

마가복음 이야기

희망의 복음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A Story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GOSPEL OF HOPE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6

20-10 Beonyeong 8-gil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815

Tel(042)841-9697

머리말: 희망의 복음(마가복음 이야기)

예수님의 공적사역의 목적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적사역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성역(聖役)이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신분노출(공개), 세 번의 수난예고, 예루살렘에로의 오르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 영광 받으심은 두 개의 바다기적, 병든 자들(여자) 치유, 두 개의 급식기적, 두 개의 장애자들(남자) 치유가 있고난 이후에 이뤄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께서 제2모세 곧 그리스도이심과 그 사명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란 이스라엘의 경제, 명예,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잘 말해준다. 여기서 사건들이 쌍으로 소개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아우른 것이고, 바다기적이 급식기적보다 앞선 것은 제1모세의 인도로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빈들)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에서 모형을 취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침례(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근거이다.

마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두 개의 바다기적과 두 개의 급식기적 그리고 두 개의 장애자 치유기적이 나온다. 그리고

4 / 마가복음 이야기: 희망의 복음

난 다음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온다. 두 개의 바다 기적들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4:35-41)는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6:35-44)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기 위해서 귀먹고 어눌한 병어리(7:31-37)가 고침을 받고 말이 분명해진다. 풍랑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위를 걸으셨던 이야기(6:45-51)는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8:1-10)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인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기 위해서 벳새다 장님(8:22-26)이 고침을 받고 만물을 밝히 본다.

복음서 독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두 개의 급식기적 곧 오천 명을 먹이신 것과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난 직후에 베풀어졌다는 사실이다.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 곧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게 말씀하셨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를 당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증거였다. 또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입증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거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베풀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셨다. 복음씨앗을 좋은 땅에 뿌릴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들 중에는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살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당신의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고, 그 소문이 헤롯 안티파스와 예루살렘의 정치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을 더 이상 감추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오천 명과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 두 개의 급식기적이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예수님을 제2모세 곧 오실 자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표적들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곧 제2모세가 오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곧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한 것과 같은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밝히는 외

적 증거였다. 이로써 눈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

마가복음의 전반부 이야기



십자가(김훈숙, 1986년)



십자가(김훈숙, 2002년)

예수님의 고난의 상흔들을 강조하면서도 손과 발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오르는 새의 이미지로 자유와 기원을, 머리의 가시면류관은 생명이 싹트고 피어나는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부활의 승리와 위로 및 생명과 평화와 희망을 담았다. 이 심을 깨닫는 과정으로써 점진적으로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혀가 풀리는 과정이었다면,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었다면, 9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왜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오랜 희망(Ha-Tikvah)을 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에 대해 점진적으로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부에서 소경이 점차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말 병어리의 혀가 풀려 만물을 밝히 보고, 말이 분명해졌을 때, 예수님을 오시기로 예언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분명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고백은 절반의 고백에 불과하다. 거기서 끝날 신앙고백이었다면, 굳이 후반부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마가 복음은 8장까지만 전반부이다. 전반부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된

그리스도

이 심을

깨닫는

과정으로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혀가 풀리는

과정이었다면,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었다면,

9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왜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오랜

희망(Ha-Tikvah)

을 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에

대해 점진적으로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6 / 마가복음 이야기: 희망의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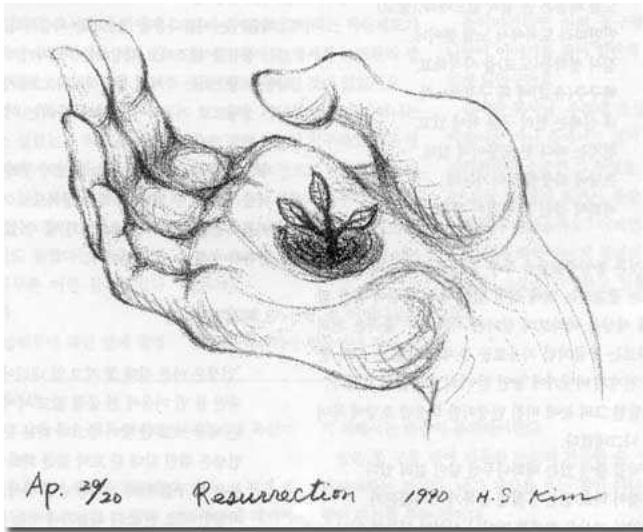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의 후반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에 해당되는 나머지 절반에 대한 고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마가복음 9-16장까지의 기록이다. 마가복음 8장에서 끝나 버리면, 유대교인 또는 여호와증인에 머물지만, 9장에서 출발하여 16장까지 계속 진행하면, 더 깊은 경지의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며, 영의 혀가 풀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하고나서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한 더 깊은 경지의 세계가 있음을 9장에서부터 보여주기 시작한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직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난예고를 하셨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수난예고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마가복음의 후반부 이야기

마가복음 9장부터는 후반부이다. 후반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수난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8장까지의 전반부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이 갈릴리지역에서 주옥같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오실 자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하신 많은 능력과 표적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대조를 이룬다.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변화산 체험으로 시작한 것은 모세가 많은 고난 후에 구약교회인 문자적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후 죽은 몸으로 승천한 것과 엘리야가 많은 고난 후에 구약교회인 문자적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시킨 후 산 몸으로 승천한 사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많은 고난 후 신약교회인 영적 이스라



부활(김호숙, 1990년 석판화)

엘을 출범시
킬 모퉁이돌
이 되신 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
시고 승천하
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
자였기 때문
이다. 예수님
은 모형과 그
림자였던 구
약교회시대를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새싹이 움튼나음을 표현하였다. 끝내고 원형과 실체인 신약교회시대를 출범시키셨고, 율법시대를 끝내고 복음시대를 출범시키셨다. 이 점 때문에 전반부에 예수님이 “보다 강한 자”란 침례요한의 설교(1:7-8), “너는 내 아들”이란 하늘의 음성(1:11), 오실 자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예수님이 행한 많은 표적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8:29)이 실렸고, 후반부에 예수님이 받으실 “많은 고난”에 대한 예고(8:31), “너는 내 아들”이란 하늘의 음성(9:7), 거듭된 수난예고(9:31, 10:33-34)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백부장의 신앙고백(15:39)이 실렸다.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처형을 진두지휘한 백부장의 신앙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15:39)가 대미를 장식한다. 이 모든 것에 더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곧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일이었음과 이 일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승천 및 하늘우편보좌에 앉으심을 통해서 완성된데 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희생 없이 값싸게 이뤄지지 않는다. 여기에 예수님의 수난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희생

8 / 마가복음 이야기: 희망의 복음

이 결코 헛되지 않음과 허무의 수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우편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 하늘우편보좌영광은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는 또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승천, 보좌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보상의 내용이다.

본서 <마가복음 이야기: 희망의 복음>이 독자들로 하여금 상기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신약교회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필자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기쁨이고, 그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2016년 9월 5일
소광(素光) 조동호

차례

머리말: 희망의 복음(마가복음 이야기)/3

예수님의 공적사역의 목적	3
마가복음의 전반부 이야기	5
마가복음의 후반부 이야기	6

1. 희망의 시작(막 1:1)/17

유대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희망	17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희망	18
희망의 시작	20

2. 희망의 전령(막 1:2-8)/23

복음서의 장르	23
희망의 전령 침례 요한	24
요한의 신분, 메시지 및 침례	26

3. 희망의 주인공(막 1:9-15)/29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29
광야에서의 시험	30
갈릴리에서 시작된 천국복음	32

4. 희망의 등장(막 1:14-15)/35

“때가 찼고”	35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1)	36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2)	38

5. 희망의 무대(1)(막 1:16-20)/41

갈릴리 호수	41
고깃배	42

10 / 마가복음 이야기: 희망의 복음

물고기	44
6. 희망의 무대(2)(막 1:21-28)/47	
가버나움(Capernaum)	47
유대교 회당(Synagogue)	48
예수님의 권위	50
7. 희망의 무대(3)(막 1:29-45)/53	
기적의 복음	53
예수님의 병 고치심	54
예수님의 기도	56
8. 희망이 불러온 논쟁(1)(막 2:1-12)/59	
그리스도의 사죄권	59
사죄권의 문제	60
중풍병자를 고치심	62
9. 희망이 불러온 논쟁(2)(막 2:13-17)/65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	65
죄인들과의 식탁교제	66
죄인에게 필요한 것	68
10. 희망이 불러온 논쟁(3)(막 2:18-22)/71	
유대교의 금식 전통(1)	71
유대교의 금식 전통(2)	72
희망의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	74
11. 희망이 불러온 논쟁(4)(막 2:23-3:6)/77	
사람을 위한 안식일	77
살리는 일을 하는 안식일	78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안식일	80
12. 희망이 불러온 배척(1)(막 3:7-19)/83	
제1차 갈릴리 사역의 마감	83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	84
인류의 희망 예수님의 열두 제자	86
13. 희망이 불러온 배척(2)(막 3:20-35)/89	
병들고 귀신들린 자들	89
성령님을 모독한 자들	90
하나님의 가족	92
14. 희망이 불러온 배척(3)(막 4:1-20)/95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95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96
건강한 믿음과 병든 믿음	98
15. 희망의 일군(1)(막 4:21-34)/101	
희망의 일군: 등불 비유	101
희망의 일군: 농부의 비유	102
희망의 일군: 겨자씨 비유	104
16. 희망의 일군(2)(막 4:35-41)/107	
해륙풍(Sea and Land Breeze)의 방향	107
광풍에 놀란 승선 자들	108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110
17. 희망의 일군(3)(막 5:1-20)/113	
갈릴리 호수 저편	113
데가볼리(Decapolis)	114
광인의 구원사건	116
18. 희망의 일군(4)(막 5:21-43)/119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1)	119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2)	120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3)	122
19.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1)(막 6:1-29)/125	

12 / 마가복음 이야기: 희망의 복음

복음서에서 기적들의 목적	125
고향사람들의 배척	126
제자들의 파송과 배척에 대한 권면	128
 20.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2)(막 6:30-44)/131	
그리스도신분 공개를 위한 오병이어	131
신앙고백을 위한 오병이어	132
예루살렘으로 오름을 위한 오병이어	134
 21.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3)(막 6:45-56)/137	
침례와 성만찬 모형: 홍해도하와 광야만나, 폭풍진압과 급식기적(1)	137
침례와 성만찬 모형: 홍해도하와 광야만나, 폭풍진압과 급식기적(2)	138
그리스도인들의 모범: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목적	140
 22.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4)(막 7:1-23)/143	
장로들의 전통	143
손 씻기 의식	144
손 씻기 의식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	146
 23.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5)(막 7:3-4)/149	
식기류 침례(Tevilat Keilim)	149
카샤룻(Kashrut) 구전	150
카샤룻(Kashrut)과 케이림(Keilim) 구전의 장단점	152
 24.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6)(막 7:24-37)/155	
이방인의 구원문제	155
귀가 열린다는 것	157
혀가 풀린다는 것	158
 25.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7)(막 8:1-13)/161	
이방인 구원의 표적 칠병이어	161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162

고독한 싸움	164
26.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8)(막 8:14-26)/167	
신앙과 헌신의 문제	167
빵과 신앙의 문제	168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문제	170
27.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9)(막 8:27-38)/173	
빌립보 가이사랴(Caesarea Philippi)	173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	175
참 제자의 길	176
28. 희망이신 예수님의 수난예고(1)(막 9:1-13)/179	
변화산 사건의 의미	179
모형과 그림자로써의 구약교회	180
원형과 실체로써의 신약교회	182
29. 희망이신 예수님의 수난예고(2)(막 9:14-29)/185	
마가복음 후반부의 기록목적(1)	185
부활신앙에 기초한 기도	186
부활신앙에 기초한 믿음	188
30. 희망이신 예수님의 수난예고(3)(막 9:30-37)/191	
마가복음 후반부의 기록목적(2)	191
자기 십자가	192
수난예고의 목적	194
31. 희망이신 예수님의 수난예고(4)(막 9:36-50)/197	
제자의 길: 첫 번째	197
제자의 길: 두 번째	198
제자의 길: 세 번째	200
32. 희망이신 예수님의 수난예고(5)(막 10:1-31)/203	
제자의 길: 여성 보호	203

14 / 마가복음 이야기: 희망의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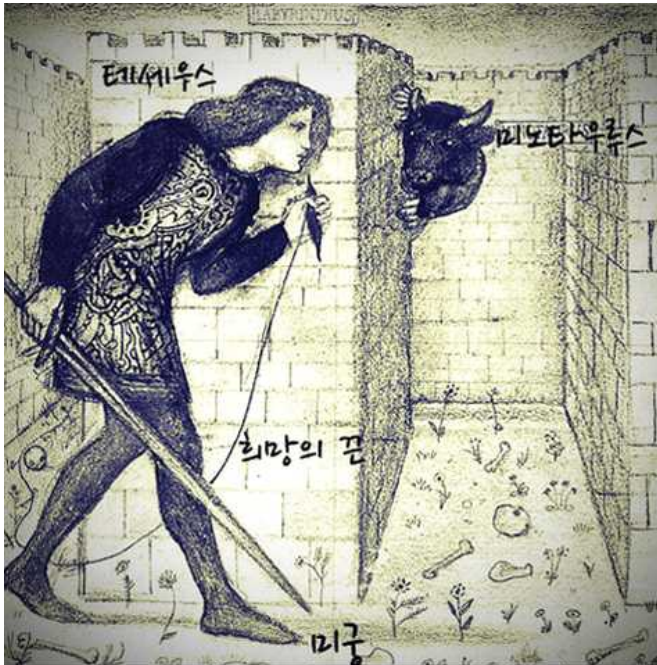
제자의 길: 어린이 보호	204
제자의 길: 가난한 자를 돌봄	206
33. 희망이신 예수님의 수난예고(6)(막 10:32-52)/209	
예수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난예고	209
수난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210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고침을 받음	212
34.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1)(막 11:1-10)/215	
예루살렘으로의 오름	215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	217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	218
35.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2)(막 11:11-14)/221	
무화과나무	221
무화과나무와 토라	222
무화과나무와 유대교	224
36.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3)(막 11:15-33)/227	
희망성취의 방향	227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1)	228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2)	230
37.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4)(막 12:1-17)/233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3)	233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4)	234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5)	236
38.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5)(막 12:18-27)/239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6)	239
‘위붐’(yibbum)과 ‘하리짜’(halitza)	240
‘위붐’(yibbum)과 ‘하리짜’(halitza)의 문제점	242
39.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6)(막 12:28-44)/245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7)	245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8)	246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9)	248
 40.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7)(막 13:1-13)/251	
종말의 특징	251
예언의 목적(1)	252
예언의 목적(2)	254
 41.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8)(막 13:14-37)/257	
예수님의 권면, “깨어 있으라.”	257
새 질서의 도래(1)	258
새 질서의 도래(2)	260
 42.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1)(막 14:1-11)/263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색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263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	264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266
 43.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2)(막 14:10-11)/269	
민중이 원했던 것	269
예수님이 가르치려 했던 것	270
민중이 느끼는 환멸	272
 44.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3)(막 14:12-21)/275	
유월절 축제(Pesach Seder)와 주의 만찬	275
유대교축제와 주의 만찬	276
기독교축제로써의 주의 만찬	278
 45.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4)(막 14:22-26)/281	
많은 사람을 위하여	281
옛 언약의 피	282
새 언약의 피	284

46.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5)(막 14:27-52)/287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	287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288
인간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290
47.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6)(막 14:53-72)/293	
공개적인 신앙고백	293
베드로의 배신	294
답이 없다	296
48.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7)(막 15:1-32)/299	
대제사장들과 공회(산헤드린)의 심문	299
로마총독 빌라도의 심문	300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302
49.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8)(막 15:33-41)/305	
예수 그리스도님의 수난의 목적	305
‘요하난 벤하골’ 유골의 증언	306
인간의 장벽들을 허물어버린 절규	308
50.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9)(막 15:42-47)/311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311
예수님시대의 장례법	313
발굴된 예수님시대의 유골함들	314
51.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10)(막 16:1-20)/317	
제자들의 개안(開眼)단계	317
제자들에게 열린 새로운 세계	318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	320

1. 희망의 시작(막 1:1)

유대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희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 복음 1장 1절의 이 짧은 구절에는 “유대인들의 두 번째 희망이 이미 성취되었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시

다. 그분은 구약성서에 오실 자로 예언된 그리스도이셨고, ‘예수’라는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수백 년간 사람들의 기대와 상상 속에 있었던 그 어떤 뛰어난 영웅호걸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떠돌이와 노예였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3,800여 년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동일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부르는 애국가 제목과 내용이 ‘하티크바’(Ha-Tikvah)라 불리는 ‘희망’이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예루살

렘과 시온이 포함된 가나안 영토와 다윗왕권을 되찾는 것이다.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 구약성서이다. 모세오경(토라)은 첫 번째 희망의 성취와 유지에 관한 내용이고, 예언서들은 첫 번째 희망의 유지 또는 멸망 후 또다시 떠돌이와 노예가 된 후에 두 번째 희망의 성취를 전제로 회개를 촉구한 글들이다.

마태복음 1장 17절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는 이스라엘 왕국의 출범과 발전기를 말한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브라함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모세가 싹을 틔어 다윗이 통일왕국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희망의 성취였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는 다윗왕국의 쇠퇴기와 멸망을 말한다. 솔로몬사후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후 136년 만에 남왕국 유다도 망하였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는, 아브라함이후 모세 때까지 품었던 첫 번째 희망처럼, 포로기시대의 예언자들은 두 번째 희망을 품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희망의 싹을 틔운 분이 모세였다면, 두 번째 희망의 싹을 틔울 분은 헬라세계에 ‘그리스도’(기름부음을 받은 자)로 알려진 ‘메시아’였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아직 오실 자’이지 ‘이미 오신 자’가 아니다. 구약예언자들이 선포한 회복에 관한 말씀은 아직도 성취되지 못한 장차 성취될 희망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여전히 두 번째 희망에 머물고 있고, 구약성서만이 그들의 정경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구약성서는 유대인(히브리인)들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희망에 관한 경전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희망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예언자들이 선포한 회복에 관한 말씀, 곧 두 번째 희망이 이미 성취되었고, 이 두 번째 성취가 더 완벽하고 완전한 성취, 곧 깨지거나 낡아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한다고 믿는다. 이 새롭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세

번째 희망이다. 따라서 신약성서는 유대인들의 두 번째 희망의 성취와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희망에 관한 경전이다.

이런 점에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그 담고 있는 내용이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한분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지만, 그밖에 것들, 예를 들어서, 영토, 국가, 메시아, 구원, 선민 등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양자 사이에 이런 큰 차이점을 만드는 요인은 구약성서를 유대인들이 철저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는데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구약성서를 자기 민족, 곧 유대인들의 생존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생존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한다. 또 유대인들은 구약성서를 이 세상에서의 삶에 국한하는데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깨지고 낡아지고 무너질 장막 곧 임시적인 떠돌이 삶에 불과하므로, 깨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처소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두 번째 희망, 곧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희망의 성취를 믿고, 세 번째 희망으로 전진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희망 곧 깨지고 낡아지고 무너질 이 세상에 삶에만 매달려 바둥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한 거름 더 전진하여 세 번째 희망, 곧 깨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삶에 뜻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종교 개혁가들의 특징은 그들이 자청하여 이 세 번째 희망을 선포하는 선구자 또는 전령이 되고자한 것이었다. 1800년대 초 미국에서 일어난 신약성서기독교운동과 교회연합운동의 배경을 보면, 세 번째 희망인 새천년시대의 도래를 확신하는 믿음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스도인의 교회운동과 교회연합운동을 쫓아서 시작하여 죽는 순간까지 펼쳤던 발톤 스톤(Barton W. Stone)은 새천년시대에는 모든 교파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름아래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였다. 그의 이런 희망 때문에 1804년 6월 28일 스프링필드 장로회가 <유언서>를 남기고 해체되었다. 교파들이 해체될 때, 계시록 20장에 예언된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스톤은 노예해방운동도 활발하게 펼쳤는데, 천년왕국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스톤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운동, 교회연합운동, 노예해방운동을 <그리스도인 전령>(*Christian Messenger*)이란 월간지를 통해서 펼쳤는데, ‘그리스도인 전령’이란 이 세 번째 희망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다.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도 7년간 지속됐던 월간지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를 폐간하고, 그 대신 1830년부터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란 이름의 월간지를 사후 4년까지 40년간 발행하였다. 알렉산더 캠벨은 기독교 본래의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새 천년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신약성서기독교 운동을 선구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처럼 스톤과 캠벨은 자기들 시대에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 새천년시대의 전령 또는 선구자를 자임하면서 개혁운동, 곧 신약성서기독교에로의 회복운동을 펼쳤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거룩한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희망의 시작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시작된다. 복음이란 기쁨의 소식을 말한다. 왜 기쁨의 소식인가? 다윗왕국이 멸망하고 가나안 땅을 빼앗긴 이후 예수님의 공생애 출범 때까지 612년간이나 묵은 두 번째 희망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시작이란 희망성취의 시작, 구원역사의 시작,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작, 교회시대의 시작을 말한다. 그것은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와 떠돌이로서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선포한 소식과 같고,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시대를 활짝 연 것과 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탄생하신) 시점은 다윗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의 희망이 처참하게 짓밟힌 지 580여년 만이었다. 모세가 이집트에 등장한 시기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기는 흑암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모세 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것처럼, 예수님 때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 이 압제는 바벨론제국, 페르시아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으로 6백년이 넘도록 대물림되어 온 것이었다. 실로 그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다(마 4:16). 또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이었다(마 9:36). 특히나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붕괴된 후에 왕과 백성이 유배지로 끌려갔듯이, 그로부터 656년만인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붕괴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던 시기였고, 동시에 로마에서는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네로에 의해서 저질러지던 시기였다. 이뿐 아니라, 당시의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과 혼란과 가난과 전쟁노예들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도덕과 윤리와 기강이 무너진 시기였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마가는 로마의 기독교박해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듯이 예수님의 오심은 실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희망의 빛이었고, 복음의 시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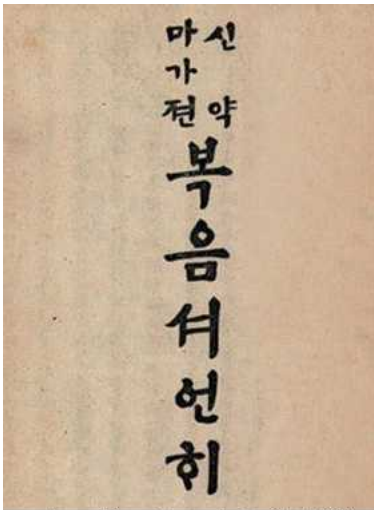
인간의 오랜 희망 속엔 인간의 오랜 외로움, 오랜 출렁임, 오랜 헛수고, 오랜 배고픔, 오랜 병듦과 하나님의 오랜 자비가 녹아있다. 인간의 오랜 희망과 하나님의 오랜 자비가 만나는 시점과 지점이 구원이 일어나는 시점과 지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기까지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끈을 놓아버리

22 / 마가복음 이야기: 희망의 복음

지 않는 사람이, 탈출이 불가능한 미로에 갇혔을지라도, 그 끈의 끝에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현명한 사람이다. 반면에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그가 짊어진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컸을지라도, 가장 가련한 인간이다.

2. 희망의 전령(막 1:2-8)

복음서의 장르



미국성서공회 지원으로 출간된 국한문 혼용
〈신약 마가복음서 언해(1885)〉 표지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어 ‘예호슈아’ 혹은 ‘예슈아’의 헬라어 이름으로써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또 ‘그리스도’란 직책은 히브리어 ‘모쉬아크’(Moshiach, 메시아)의 헬라어 단어로써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쉬아크’(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오랜 희망인 고토회복과 민족해방을 실현시켜줄 제2모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영생과 영원한 나라를 가져다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순수전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선포한 복음전기이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적 구절이 이 사실을 입증한다. 또 이 구절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적 선포(kerygma)가 복음의 알맹이이요, 설교의 핵심내용이며, 기쁜 소식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반부의 결론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8:29)이고, 후반부의 결론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15:39)이다. 이 두 가지 신앙고백의

24 / 마가복음 이야기: 희망의 복음

특징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의 입에서 나왔다는데 있다. 예수님 본인의 주장이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의 입에서 절로 터져 나온 탄성이란 것이다. 이런 고백적 탄성이 오늘날 우리들의 입에서도 터져 나와야 한다.

복음서는 귀납적인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연역적 방식으로 기록된 글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한 글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1장 1절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증명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왜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제자의 도리는 무엇인가 등을 선포한 글이다. 복음서는 구구절절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글이 아니라, 믿음과 결단을 촉구하는 글이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류의 희망이신가에 대한 글이다.

복음서는 환란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큰 시련을 겪던 때였다. 복음서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에 의해서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시기(주후 64-68년)와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뭉개버린 유대-로마전쟁(주후 66-70년) 시기에 기록되었다.

희망의 전령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복음서 저자들에게 있어서 요단강가에 내려놓고 가야할 하나의 짐이었다. 이 짐을 내려놔야 강 건너에 있는 ‘예수’라는 짐을 짊어 질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나고 먼저 죽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35살 무렵에 참수를 당했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영지주의 만다야교의 십자가와 침례식
 십자가는 상징적 몸매 침례복을 걸쳐 놓은 것이며, 모든 교인들은 침례를 일년에 수 차례 받는다.
 나 35살 무렵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두 분 모두 그리스도였을
 가능성 때문에 체포되었고 처형당했다. 만일 그분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런 영웅적 그리스도였다면, 체포되거나 처형당하
 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란 그분들
 을 죽인 자들을 처단해야 할 심판주이기 때문이다.

요한도 예수님도 모두 살아생전에 오실 자 그리스도인가라는
 신분에 대한 심문을 받았다. 요한은 자신은 오실 자가 아니라,
 그분이 오실 길을 닦고 있는 자라고 밝혔고, 예수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요한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오실 자 그리스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죽음이 임
 박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과 동시에 이뤄졌다. 오실 자 그리스도
 인데 죽음이 임박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좀처
 럼 이해되기 어려운 수수께끼였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푼 사
 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풀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교인으로
 남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스펝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오이디푸스
 처럼 생명을 얻었고, 유대교인들은 스펝크스의 끼니꺼리가 된
 사람들처럼 가련한 처지가 되었다.

바울이 주후 55-57년 사이에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침례 요한
 을 따르는 무리를 만난 것과 요한을 추종하는 종교집단이 지금
 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면, 요한이 당시 민중들로부터 어떤 대우

를 받았는가는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집단은 영지주의 만다아교(Mandaeism)로써 이미 3-4세기경부터 이단종파로 분류된바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아마도 복음서 저자들은 침례 요한이 누구이며, 예수님과 어느 어떤 관계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명확히 하고자 했을 것이다.

첫째,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희망의 전령이었지,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둘째, 그의 메시지는 오실 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셋째, 그가 베푼 침례는 오실 자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회개의 침례였지, 희망의 시작인 그리스도인의 침례가 아니었다.

넷째, 그는 왕국을 건설한 모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추락한 왕국을 회복시킨 엘리야와 같은 존재였다.

요한의 신분, 메시지 및 침례

첫째,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희망의 전령이었지,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요한은 아론에 비교될 수 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친척이었다.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론이 모세를 히브리인들의 그리스도로 안내한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인류의 그리스도로 안내하였다. 요한의 역할은 집회에서 주인공의 등단을 소개하는 사회자와도 같았다. 주인공의 등장을 알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매니저와도 같았다. 따라서 그의 등장은 예수님 사역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의 퇴장(죽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신분을 노출시키는 신호탄이었다.

둘째, 요한의 메시지는 오실 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지,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마가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와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를 인용하였다. 마가는 요한의 메시지가 오실 자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면서 7-8절에서 요한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감히 넘보지 않았다고 전하였다. 침례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자기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줄 하인 급에도 들기 어렵다면서 자기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자라고 하였다.

셋째, 요한이 베푼 침례는 오실 자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회개의 침례였지, 희망의 시작인 그리스도인의 침례가 아니었다. 요한은 주후 26-29년경 요단강 주변들을 오가며 회개를 외치고 침례를 베풀었다. 그가 베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는 오실 자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기 위한 준비였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받는 그리스도인의 침례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침례와는 그 목적부터 달랐고, 교회 시대는 그 이듬해에 도래하였다.

넷째, 그는 왕국을 건설한 모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추락한 왕국을 회복시킨 엘리야와 같은 존재였다. 6절,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가 그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요한은 아합과 이세벨의 종교 탄압에 맞서 싸웠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였다.

엘리야는 털이 많았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왕하 1:8) 야훼 신앙복원을 위해서 고군분투한 인물이었다. 그의 후임 엘리사는 아합 정국을 쿠데타로 전복시키고 새 이스라엘을 열었다. 마찬가지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거주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요한은 옛 시대를 닫고 새 시대를 열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킨 인물이었다. 예수님도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마

28 / 마가복음 이야기: 희망의 복음

11:14)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말 4:5)고 한 말씀이 요한한테서 성취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희망의 성취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외침이었다.

3. 희망의 주인공(막 1:9-15)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침례 요한의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침례나 유대교의 개종침례와도 다르고, 유대인 쿨란공동체가 행한 정결의식하고도 달랐다.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새 언약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멤버로 가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대교의 개종침례는 유대인과 혈통이 다른 남녀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받는 의식이며 유대인들은 받지 않는다. 남자 개종자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요한한테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 쿨란공동체는 개인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정결의식은 단회(單回)의식이 아니었다. 그러나 요한의 침례는 단회의식이었고, 그 어떤 공동체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를 믿거나 신앙을 고백하도록 권하지 않았고, 오로지 오실 메시아와 그의 시대를 준비시키는 것이 고작이었다. 반면에 침례 요한을 추종하는 영지주의 만다야교인들은 일 년에 수차례 거듭 침례를 받는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본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었으며, 회개가 필요치 아니한 분이셨다. 이뿐 아니라, 침례 요한의 침례가 예수님 자신의 임

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더더욱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메시아로 기름부음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침례는 다르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소유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새 시대의 입문으로써 받지만, 그분은 그 누구를 믿거나 소유가 되실 수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셨다. 게다가 요한과 예수님은 새 시대에 속하지 않고 옛 시대에 속한 분들이다. 그것은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지역을 바라만 보고 죽은 것과 같다.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의 실체였다. 사무엘은 요한의 그림자였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께 침례로써 기름을 부어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 사실을 입증한 것이 “하늘로부터 소리”였다. 이 “하늘로부터 소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질적으로 뛰어났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후로 기독교에서는 침례가 성령님으로의 기름부음 또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시간으로 믿게 되었고, 그 상징으로 침례직후에 이마에 기름을 바르는 인침(견진)과 주의 만찬 의식을 치렀다. 성령님으로의 기름부음은 구원의 보증을 의미한다(고후 1:22, 5:5). 이 기름부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로 상징되는 교회를 지나 저 천국 가나안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자인 것을 보증하고 인치기 위한 것이다.

광야에서의 시험

예수님은 침례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임직을 받으신 후 하나님의 뜻과 민중의 뜻 사이에서 변민하시며 여리고가 내려다



유대광야와 사해바다(biblephoto.kr)



여리고의 시험산과 정교회 수도원(biblephoto.kr)

보이는 시험산의 동굴에 들어가 40일간 기도하셨다. 이 산 절벽에 세워진 정교회 수도원교회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앉았던 바위가 있다. 예수님은 이 바위에 앉아서 유대인들이 6백년 넘게 절망 중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문제를 놓고 변민하고 계셨다. 그 희망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던 뺨문제와 이스라엘의 명예와 주권회복이었다. 유대인들의 간절한 희망은 종교문제이기보다는 경제와 정치문제였다.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받으셨던 시험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요구들이었다.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민중이 희망하는 경제와 정치문제

해결을 위해서 손에 칼과 방패를 들어야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할지를 놓고 번민하고 계셨다.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이 결단을 내려야할 40일기도의 마지막 순간에 이뤄진 것이었다.

유대광야는 사해인근의 메마르고 건조한 산악지형의 황무지를 말한다. 이곳에 사슴, 사반, 표범, 늑대, 여우, 쥐, 독사와 같은 들짐승이 살았고, 행인을 노리는 강도와 도둑자 및 수도자들도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인근에 거대한 호수가 있지만,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이다. 빵과 물을 구하기 힘든 이런 곳을 걷는 ‘광야트래킹’이 요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한다. 거친 환경에 몸을 던져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로써 이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광야’(eremos)는 우리말로 ‘빈들’ 혹은 ‘한적한 곳’이란 뜻이다. 그래서 광야는 채우는 곳이 아니라 비우는 곳이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빵도 물도 없는 곳이니 뱃속까지 비워야하는 곳이다. 이 광야에서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광야는, 비록 사탄이 출몰하고 시험하는 황량한 곳이지만,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한다(35절).

갈릴리에서 시작된 천국복음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주변부이다. 해수면보다 210여 미터나 낮은 지역이지만, 요단강에 물을 보내는 거대한 호수를 끼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셨다. 요한의 퇴장은 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리스도가 두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첫째, 예수님은 “때가 찼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임기가 다 찼다는 뜻이다. 때가 찼다는 말씀은 개혁적이고 종말론적이다. 개혁적이고 종말론적이라든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옛 것이 끝나고 새 것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다. 모든 개혁가들과 종말론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끌어들이한다고 확신하였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왕국이란 문자적이고 정치적인 표현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란 영적이고 종교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문자적이고 정치적인 다윗왕국을 회복하실 뜻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시 깨어지고 낡아지며 무너지고 말 장막 집에 불과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으며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이다.

셋째,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임박해 있다는 뜻이지만, 이미 왔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주 선택적인 의미로 “이미”란 표현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첫 오순절 날에 성령님의 강림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넷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네 가지 회심행위는 두 가지 행위, 곧 믿음과 회개로 압축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이 네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된다.

4. 희망의 등장(막 1:14-15)

“때가 찼고”

“때”(dispensation)란 하나님의 경륜(administration)의 때를 말한다. 하나님이 오랜 자비로 시기를 특정해 놓은 섭리(providence)의 때를 말한다. 인간의 오랜 희망이 숙성되어 하나님의 오랜 자비가 임하는 때를 말한다. 예언자들의 글대로 인간의 오랜 희망이 성취되는 구원의 때를 말한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때를 대표하는 모형과 그림자가 출애굽사건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때가 찼고”는 제2출애굽사건의 때가 임박했다는 말씀이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 민족만을 위한 문자적 사건으로 이해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열방을 위한 영적 사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있었고, 충돌이 생겼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의 오랜 희망은 많이 아쉽게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의 욕심에 맞춰진 것이었다.

유대인들의 오랜 희망과 하나님의 오랜 자비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유대들의 희망은 땅에 것,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깨어질 것, 낡아질 것, 무너질 것, 지상 가나안땅의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경제와 명예와 주권회복의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랜 자비는 하늘의 것, 무한한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깨지지 않을 것, 낡아지지 않을 것, 무너지지 않을 것, 하늘 가나안땅의 것이었다. 오랜 외로움, 오랜 출렁임, 오랜 헛수고, 오랜 배고픔, 오랜 병듦에서 방황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과 영생을 주려는 것이었다.



신약성서 기독교(교회)시대의 상징
갈릴리 남동편 데카볼리 지역의 제라쉬(거라사) 유적

이런 이
유 때문에
“때가 찼
다”는 예
수님의 말
씀은 유대
인들의 왜
곡된 희망
을 바로
잡을 때가
되 었 다 ;
구약 시대
와 로마시

대가 퇴역할 때가 되었다; 신약시대와 교회시대가 출범할 때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때가 찼다는 말씀은 개혁적이고 종말론적이다. 개혁적이고 종말론적이란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옛 것이 끝나고 새 것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모든 개혁가들과 종말론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역사에 끌어들인다고 확신하였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때”를 고토회복과 주권회복의 때, 단절되었던 다윗왕국시대의 회복과 구약시대의 지속으로 이해하였다. 이사야는 이 “때”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잡힌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 하는”(사 61:1-2) 때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고토회복과 다윗왕국회복으로 이해하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인류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1)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첫 일성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다윗

왕국이란 문자적이고 정치적인 표현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란 영적이고 종교적인 표현을 쓰셨다. 예수님은 문자적이고 정치적인 다윗왕국을 회복하실 뜻이 없었다. 그것은 다시 깨어지고 낡아지며 무너지고 말 장막 집에 불과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으며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뜻이지, 이미 왔다는 뜻은 아니다. 예수님은 자주 현재완료의 의미로 “이미”란 표현을 쓰셨지만, 실제로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주후 30년 5월 28일에 성령강림으로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이 날로부터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시작되었고, 율법시대가 끝나고 복음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때는 로마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던 때였고, 로마의 속주였던 이스라엘이 종말을 향해 내달리던 때였다. 이 시기에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은 로마제국의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였다. 예수님의 출생전후 시기의 로마제국의 역사적 정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기원전 18년경에 발행된 데나리우스.

앞면에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CAESAR AVGVSTVS),
뒷면에는 신성한 율리우스(DIVVSIVLIV[S])라고 새겨져 있다.

첫째, 율리우스 카이사르이후 공화정이 몰락하고, 황제시대가 도래하였다.

둘째, 정치적으로는 이해득실에 따라 '합종연행'(合縱連橫)과 줄 갈아타기가 성행했고, 속임수와 중상과 모략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유포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효과를 보던 때였다. 당대에는 신문이나 방송 대신에 벽에 그리는 그림낙서를 통해서 비방선전이 이뤄졌고, 정적을 제거하는 청부암살도 많았다.

셋째,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였다. 근친상간, 동성애, 매춘이 성행했고, 여성들도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라면 남편이나 연인 갈아타기를 서슴지 않았다.

넷째, 끊임없는 전쟁으로 서민들의 삶이 피폐하였다. 민중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의 부산물인 수많은 노예들이 시장에서 짐승처럼 매매되었고, 주인들에게 학대를 받았으며, 투기장에 끌려 나가 많은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기도 했다. 사람의 목숨이 그야말로 파리 목숨만도 못하던 때였다.

다섯째, 종교적으로는 신화에 바탕을 두고 3만이 넘는 잡신들을 섬겼다. 사실 이들 신들은 모두가 명사 단어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2)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유대 땅은 이미 600년 넘게 강대국들에 유린을 당하고 있었다. 헬라로부터 부분적으로 독립하여 100년간 유대인 하스몬왕가가 통치했었지만, 그마저도 주전 64년에 로마제국의 손에 넘어가 로마가 임명한 왕이나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가난한 유대인들은 성전세와 인두세가 버거운 짐이었고, 세리들의 착취와 부패도 심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마 9:36)고 했듯이 서민들의 삶은 심히 고단하였다. 비록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율법(토라)을 소유

한 심히 종교적인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그들 상당수는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 외식에 치우쳤고, 그들의 지나친 선민의식과 민족주의가 그들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주후 66-70년 유대-로마 전쟁에서 처참하게 망가졌다.



로마황제 티투스 개선문 안벽에 새겨진 복조

주후 70년 예루살렘멸망 때 약탈당한 성전기물들(메노라, 떡상, 나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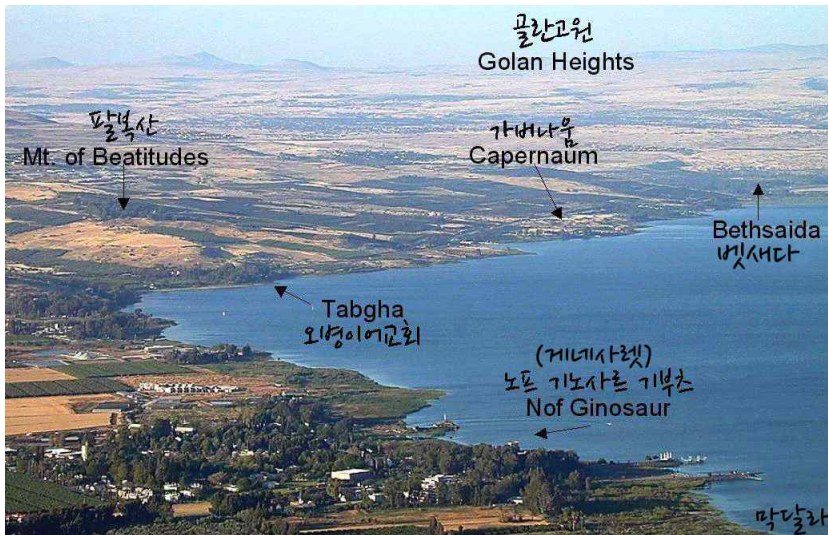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고, 조상대대로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믿었다. 그들의 지나친 선민의식이 여기서 나왔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타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열방의 하나님을 유대민족의 하나님으로 제한해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제한될 수 없는 이 우주에 한분밖에 없는 유일신이시다. 이 하나님의 독점 사상이 유대인들의 종말을 재촉하였던 것이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지은 성전에 가둬두고 독점하였다.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을 예루살렘 성전 한곳에 제한시킨 것은 일종의 통치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성소를 담과 뜰로 막아놓고 민족과

성별과 계급에 따라 접근을 제한시킨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보좌(법궤)가 놓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의 영역이었고, 성소는 당번 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었으며, 성소를 둘러싼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고, 그 바깥 이스라엘의 뜰에는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뜰로 통하는 여성의 뜰에는 남녀노소불문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여성의 뜰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 한곳에만 출입할 수 있었다. 신성하게 여겨지는 성소의 뜰에, 설사 그곳이 여성의 뜰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은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었다. 그랬다가는 목숨을 내 놓아야 했다. 이런 점에서 성전의 뜰들을 구별하는 담들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종의 차단막, 곧 휘장과 같은 것이었다. 그 차단막을 없애버릴 때가 차서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5. 희망의 무대(1)(막 1:16-20)

갈릴리 호수



성서에서 큰물 즉 바다, 호수, 강은 사단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이거나 죽음의 세계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 노아의 여덟 식구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요나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건짐을 받고 있고, 계시록에서 성도들은 하늘 보좌 앞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그 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구원’이란 말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의 침례도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하지만, 또한 더러움을 씻고, 죄를 씻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상징한다. 인류의 오랜 희망이신 예수님의 공적 활동의 전반부가 죽음의 상징이자 생명을 살리는 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이뤄진 것은 뜻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예수님의 활동은 사람들의 오랜 상처를 씻고 고치고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 이 같은 맥락에서 복음서에서 갈릴리 호수는 세상을, 배는 교회를, 고기는 그리스도인을, 어부는 교회의 일군을 상징한다.

갈릴리 호수 북동서지역은 복음서 전반부를 차지하는 예수님의 주요 활동무대였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무려 210미터 이상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5천만평이 넘는 큰 담수호이다. 물은 백두산보다 70미터나 더 높은 혈몬산(2,814m)에서 유입된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 산악지역에서 유입되는 깨끗한 물을 받아 요단강을 통해서 야르무크와 사해로 흘러보낸다. 갈릴리 호수는 받아드린 물을 나눠줌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호수이다. 반면에 해수면보다 무려 420미터 이상 낮은 사해는 받기만하고 나눠주지 않는 거대한 고인 물 호수이다. 갈릴리 호수에는 37종의 물고기들이 살아 숨 쉬지만, 갈릴리 호수의 5배인 2억5천만 평 크기의 사해는 물고기가 살수 없는 죽음의 바다이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국가들은 물 부족이 심각한 나라들이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의 수면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요르단과 시리아까지 이 호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요단강 협곡들에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 농업과 생활용수로 쓰다보니까 사해로 흘러드는 물이 현격히 줄어들어 사해 또한 매년 1미터씩 낮아지고 있다.

고깃배

솔바람에 물결치고 돌풍에 폭풍이 이는 갈릴리 호수가 세상을 상징한다면, 호수의 잔잔한 물결에도 흔들리는 고깃배는 교회를

상징한다.



노프 기노사르(게네사렛) 기부츠 인근 갈릴리 호수
배설 속에서 1986년에 발굴된 예수님 시대의 배 유물

갈릴리호 수 서안 게네사렛의 주민 모세와 유발로판(Moshe and Yuval Lofan) 형제가 가뭄이 심했던 1986년 게네사렛과 막달라 사이의 뻬속에 묻혀있는 배를 발견하였다.

신고를 받고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발굴되었고, 예수님시대의 배로 확인이 되었다. 이 배는 높이 1.25미터, 길이 8.20미터, 폭 2.30미터로써 4~5명이 탈 수 있는 크기였다. 구입 가능한 10여 종류의 나무들을 깎아 붙이고 못질을 한 돛단배였다. 이 배는 보존처리 되어 노프 기노사르(게네사렛) 기부츠 안에 있는 이갈알론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예수님이 최초로 부른 4명의 제자들은 어부들이었고 두 쌍의 형제들이었다. 그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배에서 어부의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배에서 투망질을 하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인 현장감과 긴박감이 이들 구절들에 잘 나타나 있다. 마가복음의 현장감과 생동감은 “보시니”라는 말에 나타나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투망질을 하

고 있는 현장에 계셨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셨으며,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현장에 계셨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셨다. 이들 어부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입을 당시에 생업에 충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주저 없이 “즉시로”(euthus) 따랐다. 출동준비를 마친 구조대원들처럼 긴박감과 긴급성 그리고 종말론적인 시급성이 엿보이는 장면이다. 여기서 “따르다”는 의미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간다는 뜻이다. 세상과의 관계를 일체 끊는다는 뜻이다. 이들 두 쌍의 형제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든지,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쑤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다. 회개란 과거를 즉시로 청산하는 것이다. 회개란 필요하다면 생업의 도구와 가업까지도 포기하는 것이다. 회개란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다. 회개란 즉시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회개란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회개란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회개란 이전의 일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름에 담긴 긴급성과 어부들의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에 새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물고기

복음서에서 물고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솔바람에 물결치고 돌풍에 폭풍이 이는 갈릴리 호수가 세상을 상징하고, 호수의 잔잔한 물결에도 흔들리는 고깃배가 교회를 상징한다면,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이크투스’(ichthus)이다. 공교롭게도 이크투스의 다섯 글자는 각각 예수(Iesus), 그리스도(Christos), 하나님의(Theos), 아들(Huios), 구세주(Sojomete)의 머리글자에 해당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 즉 ‘이크투스’가 상징하는 바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베드



갈릴리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

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도자로 삼겠다는 뜻이었다.

둘째, 물고기는 부활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의 표적을 믿는다. 요나는 사흘 낮밤을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큰 물고기 배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물고기는 부활을 상징한다. 예수님도 굴 무덤에 장사되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물고기 배 속에서 살아나온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셋째, 물고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제2모세로 등장할 것이라고 믿었

지만,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굴 무덤에 장사되어야 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이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굴 무덤에 장사되셨던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오실 자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처럼 물고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고, 부활의 상징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Ichthus)란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름에 즉시로 따라나서는 헌신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과 육신의 일에 존재가치를 두고 않고,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빛의 일, 생명의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6. 희망의 무대(2)(막 1:21-28)

가버나움(Capernaum)



가버나움의 베드로 생가터 기념교회(팔각정)와 가버나움 회당 유적

가버나움이란 나훔의 동네란 뜻이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 해안에 있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고향(마 4:13)이자 활동무대였고, 성공한 장소였다. 멀지 아니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지만, 활동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셨다. 헤롯 안디바가 통치한 갈릴리지방의 행정수도 티베리우스를 거점으로 삼거나 전혀 가지지 않고, 서민의 삶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을 전진기지로 삼으시고 선교활동을 하셨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선교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 당시 나사렛의 인구가 400명 정도였는데, 가버나

움의 인구는 1,500명가량 되었다.

둘째, 시리아(북)와 이집트(남)를 연결하는 하이웨이 곧 ‘해변의 길’(Via Maris)이 가버나움을 통과하고 있었다. 교통의 요지인데다가 국경에 가까워서 세관이 있었다. 군사와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마을이었다. 이런 이유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였고, 세관원들이 있었으며, 유대교 랍비와 서기관들 및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상인과 농부와 어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마을이었다.

셋째, 5천만평 크기의 넓은 갈릴리 호수 인근에 산재한 해수면 아래의 마을들을 배를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잘 닦여진 군사도로들을 이용하여 고원지대의 마을들을 여행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공적인 활동을 사실상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고, 갈릴리지역에서의 총 활동의 67퍼센트가량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열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5명을 가장 먼저 이 가버나움에서 부르셨다. 그들은 어부들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관원이었던 마태였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베드로의 장모, 백부장의 종,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 야이로 회당장의 딸,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성, 귀신들린 자 등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유대교 회당과 베드로의 생가 터가 유적으로 남아있다. 갈릴리 북서쪽 폐허에서 1905년에 고대 회당이 발굴되었고, 회당 근처에서 5세기경의 교회 터가 발굴되었는데 그 교회 터가 바로 베드로의 생가 터였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유대교 회당(Synagogue)

유대교 회당은 매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해진 후 하루 세 번씩 ‘쉐모네 에스레이’라 불리는 기도문(베라코트)을 낭송하는 기도회 장소이자 율법을 배우는 학교였으며, 율법을 범한 자들을



가버나움 회당의 유적: 바닥은 예수님 시대의 것이고, 건물은 5세기경의 것이다. 징계하는 율법재판소였다.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은 계명의 아들로써 “계명과 규례”(눅 1:6), 곧 토라와 율타리 법들을 지켜야 할 의무자들이었다. 그러나 회당에는 목회자나 설교자가 따로 없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잡무를 처리하는 집사뿐이었다. 대신에 회당장이라 불리는 세 명의 장로들이 토라와 율타리 법들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신앙과 생활 또는 믿음과 실천의 모든 것을 관장하였다. 이들은 유대교 공동체의 원로이자 재판관들이었다.

설교자가 따로 없었던 유대교 회당은 예수님이 그 주간에 읽힌 성구의 의미를 풀어주신 기도회 장소이자,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첨예하게 대립하셨지만, 대중으로부터는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으셨던 곳이다. 유대교 회당은 곧 도래할 그리스도의 교회와 유대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미리 보여준 무대이자, 주후 30-70년 사이에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던 장소였다.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논쟁의 시발점이었다. 유대교 회당의 단점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볼 수 있다.

첫째, 회당에 이방인 개종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회당은 엄격히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선민사상에 뿌리를 둔 근본주의 민족사관과 절대적 배타주의가 지배하는 장소였다.

둘째, 살리는 영이 아닌, 죽이는 율법 조문이 보통사람들을 억누르는 곳이었다(고후 3:6). 살림과 세움이 신령한 것이고 권위에서 오는 것인데, 회당은 정반대였다.

셋째, 율법의, 율법에 의한, 율법을 위한 지도자들의 외식과 불법이 넘쳐나는 장소였다(마 23:28). 그들은 규례(율타리 법들)의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계명(토라)의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넷째,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지도자들이 보통 사람들을 멸시하는 장소였다(눅 18:9). 하나님과 이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거들먹거리는 장소였다.

다섯째, 죄인, 가난한 자, 병자, 이방인을 죄인 취급하는 장소였다. 감당하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는 장소였다(마 23:4, 23).

여섯째, 회당 기도회는 같은 기도를 매일 세 번씩 반복하는 형식과 전통에 매인 것이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요 4:23).

예수님의 권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고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세움과 살림의 일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 권위는 비방과 비난의 손가락질에서 나오지 않고, 세움과 살림의 손 내밀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신령함의 척도를 세움과 살림



예수님시대의 무역로: 해변길과 왕의 길(시리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도로)

과 생명과 질서와 사랑과 섬김에 두고 말씀하셨다. 이 같은 것들이 빠진 행위를 바울은 모두 무익한 것으로 보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고, 권위 있는 자로 본 것은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서 찾아보기 힘든 예수님의 세움과 살림의 말씀과 도움의 손 내밀기 때문이었다.

23절에서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은 회당의 병든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암시한다. 그 상태가 귀신들린 사람과 같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병든 상태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리는 요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 병든 상태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잘 말해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고토회복과 민족해방이 오랜 희망이고 꼭 이뤄야할 혁명과업이긴 했지만, 그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

한 것은 내적치유 곧 그들 안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귀신부터 몰아내는 종교개혁, 곧 병든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24절) 오실 자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전쟁에 의한 피흘림과 권력의 횡포에 무슨 권위나 신령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움과 살림과 빛과 생명에 권세가 있고 신령함이 있다는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나 카이사르와 같은 그리스도는 죽이는 영웅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책이 마가복음서이다.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은 손 내밀기에 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도움의 손을 내밀기보다는 비난과 비방의 손가락질을 일삼던 지도자들이었다면,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운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귀신을 내쫓아주신 분이셨다. 죽이는 율법과 규례를 엄수하기보다는 살리는 일의 실천을 더 중히 여기신 분이셨다. 권위란 억압하고 누르는 데서 세워지지 않고, 사랑과 자비와 위로와 나눔으로써 세워진다. 그러므로 진정한 리더십은 빛과 생명을 주는 살리는 일에서 비롯된다.

7. 희망의 무대(3)(막 1:29-45)

기적의 복음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

5세기경에 이곳에 교회가 들어섰으나 무슬림에 의해서 폐허가 된 것을 1905년에 발굴하였다.

예수님의 활동은 크게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으로 나뉜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활동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들에서 전반부에 소개되었고,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활동은 후반부에 소개되었다. 전반부에 소개된 갈릴리 지역은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주변부로서 예수님의 활동무대였고, 고향이었으며, 제자들을 택한 곳이었고, 성공한 장소이며, 부활 후에 처음 나타나셨던 곳이다. 이곳 갈릴리 지역에서의 활동은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병자들을 고치신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반면에 후반부에 소개된 예루살렘 지역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부이고, 권모술수와 중상모략이 난무하던 곳으로써 예수님은 이곳의 지도자들로부

터 배척당하시고 체포되어 심문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장사되었다가 부활승천하신 곳이다.

서민들의 터전인 주변부에서 인기를 모은 예언자들과 개혁가들이 상류층과 고위층이 많은 중심부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모반 등의 혐의로 처형되는 일은 다반사였다. 오랜 외로움, 오랜 출렁임, 오랜 헛수고, 오랜 배고픔, 오랜 병듦에서 방황하고 신음하고 좌절한 서민들에게 새 시대 혹은 새 천년시대에 관한 메시지가 새 희망에 부풀어 쫓기하게 만들지만,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움켜쥔 자들에게는 이것이 공포의 메시지가 될 뿐 아니라, 서민의 쫓기가 반란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새 천년시대를 가져다 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삶에 지치고 한에 서린 서민들이지,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때가 이르기 전에 또는 천국복음이 충분히 전파되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1-8장까지로써, 마가복음서에 실린 18개의 기적들 가운데 15개가 실려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의 전반부는 기적의 복음으로 불린다. 이들 18개의 기적들은 신약성서에 가장 먼저 소개되었고, 마가복음서 전체 분량의 24퍼센트에 해당된다. 마가는 이들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초인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였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몰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며, 적대자들을 침묵하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능력이 많은 분’이신 예수님은 시련과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같은 정황에서 전반부 1-8장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인 ‘주는 그리스도 이십니다.’로 절정에 다다른다.

예수님의 병 고치심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열병으로 누워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 포문을 연다. 열병으로부터 놓



예수님 시대의 침실 모습

임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시는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수발한 최초의 식탁 봉사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하필 “저물어 해질 때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병자들은 한시가 급했지만, 안식일 법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 온 것이다. 많은 수의 구경꾼들도 몰려왔다. 자비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고 영혼의 질병까지 모두 고쳐주셨다.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34절).

예수님께서 귀신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나 나병환자를 고치신 후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때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소문이 너무 빨리 퍼져 천국복음이 충분히 전파되기도 전에 잡히시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병마로부터 놓임을 받은 사실과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지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왔다”(45절).

이처럼 예수님의 인기는 인간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시켰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당부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또는 주변의 환경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며 기도하고 마음을 비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은 당장엔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 사실과 맞물려 있었다. 한 가지는 고단하고 지친 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육신에 병든 사람들과 영혼과 정신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인기가 치솟고 소문이 급속히 퍼지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우쭐하게 만들어 자만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시킨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대중의 인기는, 특히 그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추정은 권력자들로 하여금 칼을 빼들게 만들고, 중상모략과 권모술수를



겟세마네 바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생사문제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

풀가동시키도록 자극하며, 권력자들이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은 활동초기부터 고민이 많으셨고, 사람들이 잠에서 깨기 전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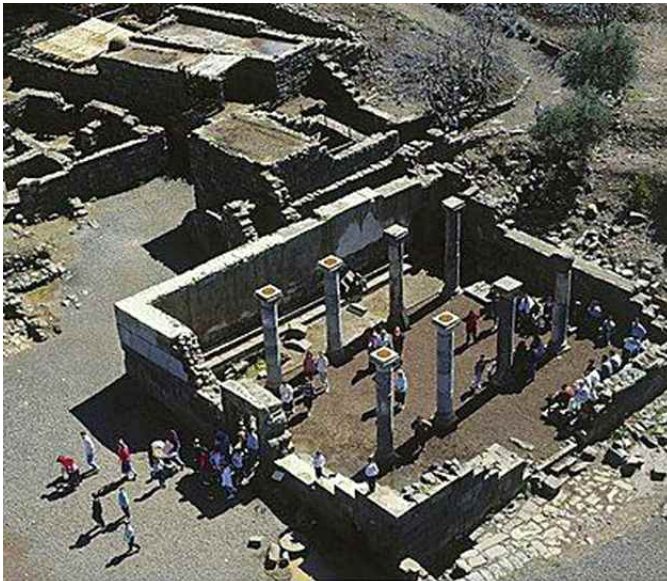
예수님의 인기는 당연한 결과였다. 율법(토라)과 규례(율타리 법들)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 전체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었다. 율법과 규례가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갖게 하였고 민족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갖게 하였지만, 다른 면에서는 형식과 외식에 치우게 만들었다. 또 율법과 규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에서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들어왔다. 또 율법과 규례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받도록 만들었고,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격리하고 파문시키며, 심지어는

그들에게 39대의 곤장이나 돌로 치는 투석형을 내리기도 하였다. 반면에 예수님은 랍비들의 안식일 법을 무시한 채, 심지어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조차 병자들을 고치셨고, 안식일일지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까지 하셨다(막 2:27).

예수님은 기도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죽음이 임박한 시간까지, 많지 않은 시간동안,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암환자가 혼신의 힘으로 남은 삶을 불사르듯이, 부지런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예수님은 주어진 짧은 인생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뜨겁게 불사르셨다.

8. 희망이 불러온 논쟁(1)(막 2:1-12)

그리스도의 사죄권



갈릴리 북동쪽 골란고원의 카즈린(Katzevin) 마을 유적
주후 746년에 지진으로 무너져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을 1982년부터 복원시켜
예수님 시대의 주거생활을 재현 하였다. 주택지붕에 거적이 덮인 부분이
있는데, 거적을 거둬내면 대들보가 쉽게 노출되는 가옥구조로 되어 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
터 3장 6절
까지에 예
수님이 유
대교 지도
자들과 논
쟁을 펼친
다섯 개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들
논쟁기사들
에 희망이
야기한 네
가지 논쟁
들이 등장

한다. 그 첫 번째 논쟁이 중풍병자 이야기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죄 선포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논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못하도록 랍비들이 계명들에 방어망을 둘러친 유대교의 율타리 법들 즉 규례, 장로들의 유전(전통), 미쉬나(Mishnah) 구전에 무슨 구속력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2장 13절부터 3장 6절까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다뤄

진 세 가지 논쟁들은 음식법(Kashrut), 금식일법(Taanis), 안식일법(Shabbat)이며, 이것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한 근거들이었다. 예수님은 랍비들이 만든 이들 율타리 법들을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과 참 뜻을 왜곡되게 해석한 것이라며 무시해버림으로써 사람들을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권위의식을 비판하셨다.

마가복음 1장 1-12절의 내용은 그리스도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을 때, 6절에서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였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10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하신 것에서 우리는 이 본문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죄의 권세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 병 고침은 죄 사함과 동등한 의미를 지녔다. 질병을 죄의 결과로 믿었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면, 병 고침은 병의 원인이었던 죄가 사라진 것이 된다. 이 점에서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죄가 사라지게 한 권세자임을 증명한 것이 된다. 죄를 사라지게 할 권세가 없었다면, 중풍을 사라지게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죄권이 하나님의 권세라 생각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역으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다.

사죄권의 문제

오늘날에도 사죄권에 대한 가톨릭과 개신교의 견해차가 크다. 요한복음 20장 19-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밤, “안



갈릴리 북동쪽 골란고원의 카즈린(Katzerin) 마을 유적에서
발굴된 랍비 아부나(Abun)의 사택 내부와 거적 천정의 모습.

식 후 첫날 저녁 때,” 우리에게는 일요일 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월요일 밤, 곧 부활하신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집에 오셔서 평강을 기원하시고, 파송의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 이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마련된 사도 임직식이었다.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이 받았던 단기선교훈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임직식이었다. 이 임직식을 주도하신 분은 생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 이때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오순절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성령님, 곧 구원의 보증과 인침과 선취를 위해 선물로 받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은 것이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덧입히는 의식이였다. 이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제자들에게 사죄권을 주셨다.

여기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입장이 갈린다. 가톨릭은 사제들이 사도직을 계승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톨릭교회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만 계승되고, 그 직책은 계승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사죄권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교회시대 초기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리스도에게 사죄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큰 견해차를 보였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구세주도 아니고, 죄가 없으신 삼위일체의 신(神)도 아니었다.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는 신성(神性)도 아니었다.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수난자인자(人子)도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가나안땅을 되찾아줄 제2모세 또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게 해줄 제2다윗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영웅으로서 따름과 실천의 대상이었지, 예배와 섬김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정치적 영적 구원을 가져다 줄 자이며, 이스라엘에 한 정부를 세울 자이고,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전 세계 정부의 중심에 세울 자이며, 성전을 재건할 자이고, 성전 예배를 다시 세울 자이며, 이스라엘의 종교법정 체계를 회복시킬 자이고, 나라법으로 유대법을 세울 자이다.

중풍병자를 고치심

2008년에 도올 김용옥은 중앙일보에 <도마복음이야기>를 연재한바가 있다. 그 연재에서 도올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 골란고원의 카즈린(Katzrin)에 있는 탈무드 마을 유적지를 방문하여 주후 746년에 지진으로 무너져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82년부터 복원된 주택 옥상에 올라 앉아 일부 지붕이 거적으로 덮인 것을 보고, 이 마가복음 2장 1-12절에 기록된 중풍병자 치유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마가복음 2장에 재미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며칠 뒤 예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그때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바로 위의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요에 눕힌 채 예수 앞에 달

아내려 보냈다”(막 2:1~4). 카즈린 마을의 가옥구조를 보면 이 장면이 실감나게 재현될 수 있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옥상인데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내 앞에 거적이 덮인 곳이 있다. 그 거적만 벗기면 대들보가 쉽게 노출된다. 그 대들보에 줄을 감고 들것에 달아맨 사람을 내려 보내면 바로 그 아래 천장이 높은 거실로 내려가게 된다. 성서의 모든 장면은 이와 같이 현실적인 체험에 기초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풍병자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준다.

첫째, 희망이 간절하면 성취가능한 방법이 강구된다.

둘째, 희망은 갈등을 불러온다. 부모와 자식의 희망이 서로 다를 때 그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듯이, 유대인과 예수님,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도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나님의 뜻과 세속적인 욕망, 문자적인 것과 영적인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깨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과 깨어지고 낡아지고 무너지는 것 사이의 갈등이었다.

셋째, 육신의 질병은 타고난 약골과 유전에서뿐 아니라, 영혼

과 마음, 잘못된 식생활과 환경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질병치유는 근본적이고 전인적이어야 한다. 이점에서 예수님의 사죄선언에 따른 중풍병자 치유는 근본적이고 전인적인 치유에 해당된다. 예수님의 사죄선언은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일 뿐 아니라, 질병의 뿌리까지 제거한 전인적이고 근본적인 치유였다.

넷째, 예수님은 사죄권을 가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다섯째, 살리는 일을 하는 이웃들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희망을 행동으로 옮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9. 희망이 불러온 논쟁(2)(막 2:13-17)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



세관에서 업득을 보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

유대교의 율타리 법들, 즉 규례, 장로들의 유전(전통), 미쉬나(Mishnah) 구전은 희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개혁의 대상이었다. 이 개혁의 대상들 가운데 희망이 불러온 두 번째 논쟁은 죄인과의 식사문제였다. 이 논쟁은 유대교의 음식법(Kashrut)에 관련되어 있다.

랍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한(treyf) 것, 정한(kosher) 것, 거

룩한(kadosh) 것으로 나눠놓고 부정(不淨)한 것을 멀리하고 정(淨)한 것을 가까이 하여 정한만 먹고 정한 것만 사용하면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쳐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기제품을 우유제품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기제품에 접촉된 그릇은 우유제품에 쓸 수 없고, 반대로 우유제품에 접촉된 그릇은 고기제품에 쓰일 수가 없었다. 게다가 까다로운 그릇 씻기 법과 손 씻기 법까지 있어서 이래저래 죄인들이 양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대교인들은 카샤룻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곧 이방

인들, 이방인(로마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세리들, 몸을 파는 창기들, 빈곤층의 사람들과는 식탁교제를 극도로 피해왔다. 생계 때문에 이방인과의 접촉이 잦았던 사람들과 빈곤층의 사람들은 카샤룻 음식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



경한(Kosher) 고기(바사르)라고 적은 상품화
거룩한(kadosh, 카도쉬)이라고 적은 문자디자인

라서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유대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부정한 죄인들로 간주하여 멀리하고 교제하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나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은 규례 혹은 장로들의 유전(전통)으로 일컬어지는 유대교의 율타리 법들을 잘 지키지 않으셨다. 그것들의 가장 큰 단점은 지나치게 의식적이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경건함이나 거룩함하고도 무관하였고, 살리는 일이기보다는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무엇이 살리는 일이고 무엇이 죽이는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관에서 업무를 보던 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으셨고,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아 그의 동료 세리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셨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한 자들로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뿐 아니라 죄인들과도 거리낌 없이 교제를 나누셨다.

죄인들과의 식탁교제

예수님 당시에 세리공무원은 월급을 받지 않는 도급제였다.



유대인들의 부정환(Treyf) 음식을 별도로 소개한 사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치즈가 섞인 미트볼을 먹지 않는다.
한 적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할당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거
뒀 착복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로마시대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내는 반 세겔(이틀 치 노동자
품삔)의 세금과 십일조 이외에 로마가 물리는 각종 세금들을 내
야했다. 그 가운데 인두세가 있었는데, 여성은 12세부터, 남성은
14세부터 65세 때까지 한 데나리온씩(하루치 노동품삔) 바쳐야
했다. 유대인에게 로마에 인두세를 바치는 행위는 이방인에게
맹종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수치스런 일이었
다. 따라서 세리들은 경멸의 대상이었다.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지켜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제자
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16절)고 힐
난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
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
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대답하셨

세리는 세금을
거둬들여 할당
된 금액을 로
마에 바치고,
나머지로 제몫
을 챙겼다. 할
당액보다 많이
거둘수록 세리
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아지
는 구조였다.
침례 요한이
세 리 들 에 게
“부가된 것 외
에는 거두지
말라”고 충고

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식탁교제를 나누심으로써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 병든 것이고, 무엇이 건강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아이러니하게도 병든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정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여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으며, 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영적 말 병어리들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눈뜨기를 바라고, 어떻게 귀가 뚫리기를 바라며, 어떻게 혀가 풀리기를 바랄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깨끗하다할지라도,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지, 특정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특정인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데 있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 거룩한 자들의 하나님, 깨끗한 자들의 하나님, 건강한 자들의 하나님, 잘난 자들의 하나님이란 생각을 한 데 있었다. 그래서 계명과 율타리 법들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건강한 자들과 잘난 자들은 죄가 없어 복 받은 자들, 반대로 이방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은 죄가 있어서 벌을 받은 자들이란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세속적으로 형통한 것이 영적으로도 형통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바꿔놓은 인물들이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지 않으시



바사른(고기)과 할라브(우유)를 섞지 않아야 정한 (Kosher) 음식이라는 그림이며, 아래 영문은 "우리는 지금도 모시아크(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고독한 사람들이다. 누가 하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가? 누가 하나님을 가진 자와 건강한 자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복된 자들에게보다는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더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가가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가난해지기를 원하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려고 병들기를 원하거나 공짜 숙식을 제공받으려고 교도소에 들어가기를 원하겠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갖지 못한 자들, 죄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집중된다고 해서 죄인이 되기를 원하거나 병들기를 원하거나 가난해지기를 원하겠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살리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복 주기를 원하신다. 생수를 받아 가두고 썩히는 사해가 아니라, 생수를 받아 강으로 흘러 보

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순종적인 자의 하나님만 되지 않으시고 방탕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거룩한 자의 하나님만 되지 않으시고 죄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들이다.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 생명체를 살리는 갈릴리 호수처럼 복을 받아 가두고 썩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을 받아 이웃들에게 흘러 보내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빛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10. 희망이 불러온 논쟁(3)(막 2:18-22)

유대교의 금식 전통(1)



24시간 금식하는 대속죄일(보통 추석 5일전)이 시작되는 해질 무렵에 유대인들이 회개 기도와 함께 새해에도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인봉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모습.

마가복음 2장 18-22절은 희망이 불러온 세 번째 논쟁으로써 금식 전통에 관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연중 예닐곱 차례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한다. 이 가운데 두 번은 24시간하는 단식이고, 나머지는 해가 있을 동안만 하는 금식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 속죄일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는 금식만 개인기도하는 날들이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를 추도하는 공적기도의 날들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명하셨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단 한번 하나님은 대 속죄일(Yom Kippur, 보통 추석 5일전)은 큰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레

16:29-31, 23:27-32, 민 29:7)는 계명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따라 24시간 단식한다. 대 속죄일은 새해 새 달 10일로써 초하룻날부터 시작한 기도, 곧 지난해에 지은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기도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또는 생명책이 인봉되는 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 자신들의 진실한 기도가 상달되어 자신들의 이름이 새해의 생명책에 기입되기를 간구한다.

유대인들이 24시간 단식하는 또 다른 날은 통곡일(Tisha B'Av, Av월 9일)이다. 이 날은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동일한 날짜로써 양력 7-8 월경에 닿는다. 유대인들은 대 속죄일과 통곡일에 요일에 관계 없이 24시간 동안 안식일 법을 지키며, 추가로 음식섭취, 몸씻기, 가축신신기, 향수뿌리기, 성생활을 금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단식일이다.

나머지 금식하는 날들은 해가 있을 동안에만 하는 가벼운 금식이고, 안식일 법이나 추가 제약 등을 받지 않는다. 목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한 날이고, 월요일은 금식을 마치고 율법을 받아 내려온 날로 알려져 있어서 목요일과 월요일 오전 기도회 때 토라를 낭독하고 해가 있는 동안 금식한다. 에스라 때 이 전통이 시작되었고, '타카나'(takkanah)라 불린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관습법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특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관습법을 어긴 것이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던 분으로서 본질에서 벗어난 형식에 치우친 낡은 관행을 개혁하여 희망을 성취코자 하셨던 것이다.

유대교의 금식 전통(2)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무슬림들도 금식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무슬림들의 연중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라마



우리 결혼문화에서처럼 유대인들도 차양을 치고 혼례를 치른다. 피로연때 신랑신부를 들것에 태우거나 차양으로 행가래를 친다 게 라마단 단식은 필수사항이다. 그러나 라마단 금식은 해가 있을 동안에만 단식하는 가벼운 금식이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가벼운 금식일이 연중 다섯 차례나 있지만, 라마단과 달리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첫째, 그달리야 금식일(The Fast of Gedaliah, Tishri월 3일)로써 양력 9-10월에 닿는다. 그달리야는 느브갓네살 왕이 임명한 유다 총독이었다. 그가 유다 땅에 남은 자들과 피난민들을 불러 모아 유다 땅에 정착시켜 유다 땅을 재건시키려 하자, 암몬 왕이 사람을 보내 그달리야를 암살시켰다(왕하 25:25). 유대인들을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한다.

둘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날(숙 7:5, 8:19)을 추도하여 금식하는 날로써(Tevet월 10일) 양력 12월과 1월 사이에 닿는다.

단이라 불리는 30일 단식기간이다. 라마단은 초승달이 뜰 때 시작되어 다음 초승달이 뜰 때 끝난다. 무슬림들에게 매월 초하루는 초승달이 뜨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슬람교는 초승달 곁에 그려진 금성의 다섯 별꼭지(★)가 (1)신앙고백, (2)기도, (3)라마단, (4)구제, (5)성지순례를 뜻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서 무슬림들에게 라마단 단식은

셋째, 에스더 금식일(The Fast of Esther, Adar월 13일)로써 양력 2월과 3월 사이에 닿는 부림절 전날에 한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 아하수제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금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에4:16). 유대인들은 금식일 다음 날인 부림절(Purim)에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관련 성구들을 읽는다.

넷째, 장자들의 금식일(The Fast of the Firstborn, Nissan월 14일)로써 출애굽 당시 유월절 전 날에 장자들이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유월절 전날에 장자들만 금식한다.

다섯째, 제2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파손된 것을 추도하는 날로써(Seventeenth of Tammuz) 양력 6-7월에 닿는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같은 금식기도들은 랍비들이 제정한 관습법들로써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금식기도들을 자신들을 뽐내는데 이용하였다. 예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의 금식기도는 신령과 진정성이 없는 형식에 그친 말 그대로 개혁의 대상이었다.

희망의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



남
들
다
하
는
금
식
을
왜
당
신
들
만

짧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는 보통 질긴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양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맞는 사고의 틀(paradigm)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혼인잔치,

배 조각, 포도주 부대 이야기를 끄집어내셨다.

첫째, 예수님은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유대인들은 결혼식 피로연이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 포도주를 마시고 악사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며 흥겹게 논다. 그들은 결혼식 날짜를 24시간 단식하는 날들을 피해서 정했을 것이고, 나머지 해가 있는 동안에만 단식하는 날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이나 축연은 해가 진 저녁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혼인집은 교회,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성도,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상징한다. 예수님과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금식기도를 하였다.

둘째,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고 하셨다. 생배는 물에 빨면 줄어들기 때문에 헨옷을 잡아당겨 헤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생배는 새 시대, 복음시대, 신약시대, 낡은 옷은 옛 시대, 율법시대, 구약시대를 상징한다. 희망의 내용이 담긴 복음과 신약은 율법과 구약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셋째,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하셨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끝나지 않은 포도주를 말하는데, 이것을 신축성이 없는 낡은 염소가죽부대에 보관하게 되면, 부풀어 오른 가스로 인해서 부대가 터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좋은 새 염소가죽부대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금식논쟁에서 기존의 낡고 폐쇄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 희망의 새천년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새로운 사상은 새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뜻으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한다거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거나 혼인잔치 때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혼인잔치 때 금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낡은 옷에다 새 천을 대고 깎으면 새 천이 낡은 천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만든다. 새 포도주는 숙성과정에서 가스를 발생시켜 부대를 팽

창시킨다. 이때 낡고 약해진 부대는 터지고 만다. 이처럼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거나 낡은 옷에 새 천을 대고 겹이면 문제가 생기듯이, 혼인잔치에 금식이 옳지 않듯이, 시대에 뒤진 폐쇄적 율법주의로는 개혁적인 복음주의를 수용할 수 없다. 복음적이란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며, 닫힌 것을 개방하고, 갇힌 것을 풀어주며, 탕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 복음적 믿음과 가치를 담아내고, 폐쇄적 사고방식, 낡은 형식주의, 죽임의 율법주의, 낡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려야 희망이 성취된다.

11. 희망이 불러온 논쟁(4)(막 2:23-3:6)

사람을 위한 안식일

마가복음 2장 22절부터 3장 5절까지는 희망이 불러온 네 번째 논쟁으로써 안식일 법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죽음의 일을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 죽음의 일들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뀔 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 원래는 수단이었던 것이 나중에 목적이 되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뀔 때 많이 생긴다. 한 예로 법은 원래 삶의 질서와 안정을 위한 수단이지만, 법 그자체가 목적이 될 때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고 만다.

전 세계에서 유대교인들만큼 율법에 민감한 사람들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613개의 계명을 '미츠보트'(Mitzvot)라고 부른다. 이밖에도 랍비들이 만든 '게자이라'(gezeirah), '타카나'(takkanah), '민하그'(minhag)와 같은 전통 법들이 있다. 이들 랍비들의 전통 법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안식일 법이다. 안식일 법은 광야에서 사용했던 성막 제조과정에서 나타난 39가지 범주의 창조의 일들에서 뽑아낸 수백수천가지의 '안식



REAPING

קוצר

안식일 법 39개 범주(Melachot) 가운데 세 번째인 '추수하기' 혹은 '자르기'(kotzeir) 금지법

라'(gezeirah), '타카나'(takkanah), '민하그'(minhag)와 같은 전통 법들이 있다. 이들 랍비들의 전통 법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안식일 법이다. 안식일 법은 광야에서 사용했던 성막 제조과정에서 나타난 39가지 범주의 창조의 일들에서 뽑아낸 수백수천가지의 '안식

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다. 시대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새로운 생활환경에 따른 새로운 안식일 법들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안식일 법은 그 숫자를 가름하기 어렵다. 그래서 안식일 법은 수단이 목적으로 뒤바뀐 대표적 케이스이다.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안식일 논쟁이 다수 실려 있다. 마가복음 2장 23-28절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들 가운데 세 번째 '추수하기'나 '자르기'(Kotzair) 금지법을 어긴 것이다. '자르기' 금지법은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면 다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밋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나눠준 사실을 언급하신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법보다 우선된다는 법정신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정통주의 유대교인들조차도 위급상황에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안식일 날에는 자동차의 시동을 켤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운전할 수 없고, 전화나 돈을 사용할 수가 없지만, 위급상황에서는 운전을 할 수 있고, 전화나 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당하고 옳았다는 증거이다.

살리는 일을 하는 안식일

손 마른 사람(막 3:1-5), 고창병자(눅 14:1-6), 눈먼 소경(요 9장),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사람(눅 13:10-17), 38년 된 병자(요 5:1-18) 등을 안식일에 고치신 것을 유대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들 가운데 스물두 번째 '매듭풀기'(Matir) 금지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안식일 법에서는 '매듭매기'도 금지되지만, '매듭풀기'도 금지되고 있다. 이



UNTYING A KNOT

מתיר

안식일 법 39개 범주(Melachot) 가운데
스물두 번째인 '매듭풀기'(Matir) 금지법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주고 있는 곳이 누가
복음 13장 10-17절이
다. “열여덟 해 동안이
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
치시고 나서, 분을 내
며 책망하는 회당장에
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
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

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매인 것을 푸는 것
이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식일에 마구
에 묶어둔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인다는
것이다. 하물며 오랜 세월 질병에 시달리며 사탄에게 매여 살아
온 사람들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는 것이
다.

위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 법에 우선되는 상위
법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사람이나 짐승을 구해내
는 행위나 안식일에 마구에 묶인 짐승을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행위는 안식일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었다. 예수
님은 늘 법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셨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사
단에 매인 자들로 보셨고,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그 매임에서
풀어줘야 할 위급상황에 몰린 자들로 보셨다. 반면에 바리새인

과 서기관들은 사람보다는 법을 우선시하였다. 그들은 병자들을 법을 어긴 죄인들로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오해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병자들을 죄인취급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에서 자신이 바로 안식일 법 제정자라고 선포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옳고 바른 행위라고 선언하셨다. 이것은 낡은 전통의 개혁가로서의 예수님이 혼인잔치로 상징된 하나님의 나라의 행정권, 죄 사함으로 상징된 사법권, 안식일 법으로 상징된 입법권을 손에 쥔 최고수반이심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로써 예수님은 세상나라의 입법권자, 사법권자, 행정권자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안식일



TRANSFERRING

הוצאה

안식일 법 39개 범주(Melachot) 가운데
서른아홉 번째인 '운반하기'(Hotza'ah) 금지법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안식일 법을 문제 삼으신 것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쉼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인간과 피조물의 쉼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있다. 쉼의 참된 의미는 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과중한 업무에서 풀려

나는 것이다. 시간의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육체의 고달픔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정신의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사단의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을 옳아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살리는 일 곧 생명을 주는 일에 있다. 손 마른 것을 고쳐주고, 꼬부라진 것을 펴주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38년 동안 누워 있던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데 있었다. 이런 면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살리는 일 곧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자가 진정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예수님은 이 점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이런 점들을 간파하지 못한 채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이 목적이었다. 자기들만 안식일 법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무지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과도 안식일 법의 노예로 만들었다. 안식일 법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과 고침 받은 병자들을 책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죄인 취급하여 무시하였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설사 그 원인이 죄 때문이었을지라도, 그들을 부축해 주고 살려줘야 하는 데,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질병의 고통과 가난의 시련을 당연히 받을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이나 랍비들이 만든 구전법에 얽매이기보다는 율법의 정신에 따라 생활하셨다. 법 이전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실천하셨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의 문제점은 안식일 성수와 헌금 및 금식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생활은 남들보다 훨씬 뛰어

났고 모범적이었다. 반면에 그들의 문제점은 사람을 우선시하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사람을 이용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 자비와 사랑의 행위와 같은 살리는 일 곧 생명을 주는 일이 없었다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행위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12. 희망이 불러온 배척(1)(막 3:7-19)

제1차 갈릴리 사역의 마감



마가복음 3장 7-12 절은 침례 “요한이 잡힌 후”(1:14) 갈릴리에서 시작한 제1차 갈릴리 사역의 결론 부분이자 희망이 불러왔던 논쟁들이 배척으로 발전된 상황을 기록한 후반기 갈릴리사역의 도입부분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요 2:4, 7:6-8)고 생각하셨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려하셨고, 적대자들과 적정한

거리를 두시기 위해 자주 한적한 곳으로 피신하셨다. 그러나 아무리 입단속을 시키고 한적한 곳으로 피신하셨어도,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상황이어서 “갈릴리의

떠돌이 예수가 오실 자 그분이다”는 유언비어가 굵이굵이 산등성이와 계곡을 따라 사방각지로 퍼져나갔다. 전국사방각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갈릴리로 몰려왔다. 유언비어는 본래 근거 없이 퍼진 소문을 뜻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실(fact)의 씨줄과 민심의 날줄로 수놓아진 천심이었다. 그러나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이 천심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없었다.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이었다. 갈릴리 호수 서편 디베라가 그의 수도였다. 이 당시 헤롯당은 헤롯 왕가의 부흥을 꾀하는 정치집단으로써 기득권 유지를 위해 로마의 식민 통치를 지지하는 반민족세력이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철저한 보수주의 유대교인들로서 외세의 침략을 배격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다. 따라서 바리새파와 헤롯당은 결코 뒤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증거이다. 모세가 주도한 출애굽사건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는 세상권력과 우상종교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어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땅의 주권을 되찾아 주는 영웅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은 자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세상권력과 우상종교들이 필연코 그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출현을 겁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이다. 반면에 민중은 그들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오랜 한과 오랜 희망을 품고 살아왔으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땅의 주권을 되찾아줄 그리스도의 출현을 몹시 반기지 않을 수 없었다.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

마가복음 3장 13-19절은 열두 제자가 부름을 받고 임명을 받는 내용이고,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마가복음의 전반부인 1-8장까지에서 세 차례 수행되었다. 제1차는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로 가셔서 하



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으로 시작되었고(1:14-3:12), 제2차는 열두 제자가 부름을 받고 임명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3:13-6:6), 제3차는 요한이 죽은 후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6:7-8:26).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침례 요한의 삶과 제자도 또는 제자의 길에 관련되어 있다. 이후부터 마가복음은 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눈멀고 귀먹어 말이 어눌한 자들처럼, 처음에는 천국 복음에 무지하여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출발하지만, 점차 영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며 혀가 풀려 만물을 밝히 보고 말이 분명해지게 된다는 점, 또 그들은 영성이 열려감에 따라 세상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빵 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예수님은 기득권 세력의 배척이 심해지자 산허리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추종자들을 부르시고 따로 제자로 세우셨는데 그 숫자가 열두 명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전도훈련을 받았다. 마가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들로 하여금 복음전파자가 되게 하여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다”(15절)고 하였다. 이들 가운데 으뜸이 시몬으로서 ‘베드로’(반석)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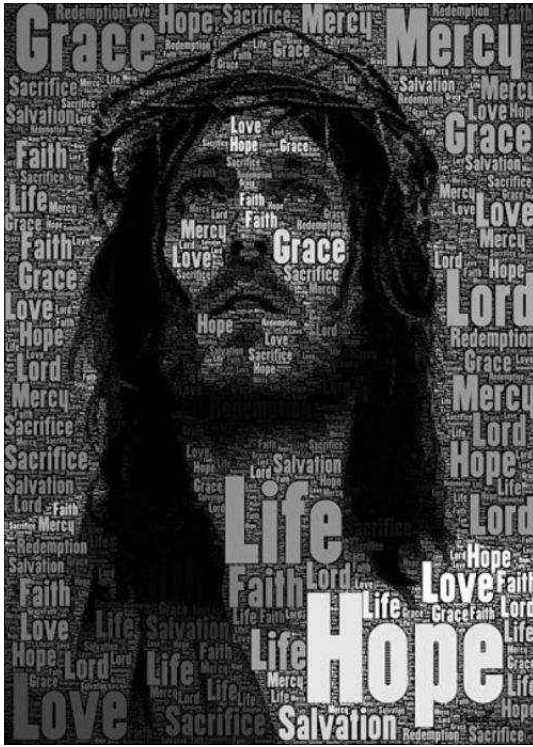
별명을 얻었다. 그 다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으로서 이들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얻었다. 그밖에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빌립, 정직한 나다나엘로 알려진 바돌로메, 세관원 마태, 실증주의자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열심당원 독립운동가 시몬 및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네 사람의 어부, 세관원, 독립운동가, 재리에 밝은 자, 실증주의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무식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매년 한 차례씩 토라를 읽고 그 밖의 예언서들과 성문서들을 읽어야 함으로 글 읽기를 배우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은 주간에 회당에서 읽고 쓰기를 배웠는데, 교과서는 주로 구약성서였다. 6살에 모세오경(토라), 읽고 쓰기, 셈법을 배웠고, 10살에 구전법인 미쉬나, 15살에 구전법을 주석한 가마라를 배웠다. 또 유대인 남성들은 성년을 준비하는 12세 때부터 회당기도회 때 토라를 낭독해야 함으로 글을 읽고 쓰는 것은 필수사항이었다.

인류의 희망 예수님의 열두 제자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어 말이 어눌한 자들이었으나 점차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며 혀가 풀려 만물을 밝히 보고 말이 분명해져감에 따라 세상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빵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자들이었다.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하나님의 오랜 희망, 곧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또 그 희망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깨닫고 일생을 인류의 희망성취에 바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에게 맡기고 모두 바울처럼 로마제국의 전 지역은 물론이고 접경 국가들에까지 찾아다니며 순회전도자로 활동하다가 대부분 이교도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로마박해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남겼다. 한 때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그리스 북부지방에서 전도하던 중에 X형 십자가에 못 박혔다. 3인 수제자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주후 44년경에 유대 왕 헤롯 아그립바 1세에게 목 베임을 당하였다. 한 때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옮겼으며, 요한복음과 요한1-3서를 저술하였다. 노년에 밧모 섬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계시록 저술을 끝낸 직후인 96년경에 소천하였다. 한 때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빌립은 주후 54년경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였다.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돌로메(나다나엘)는 바울이 전도했던 남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터키 동쪽 끝 아르메니아에 도달해 그 곳에서 선교하다가 이교도들에 의해서 산 채로 살가죽이 벗겨졌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참수되었다. 가버나움 세관에서 근무했던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다. 그는 페르시아나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힌두교도의 창에 찔려 죽었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대오와 독립 운동가였던 시몬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톱으로 켜이는 형벌로 순교하였다. 그리고 가롯 유다를 대신

해서 뿔뿔히 찢어놓은 예루살렘에서 돌로 맞은 후 참수 당하였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활동과 생애를 기록한 글들은 많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개신교에서는 이것들을 참고만 할 뿐 규범이 될 만한 글로 다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짧은 기간에 전 로마제국과 주변 국가들로 빠르게 전파된 것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열두 제자들의 순교사가 결코 허언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3. 희망이 불러온 배척(2)(막 3:20-35)

병들고 귀신들린 자들



스타벅스 로고에 사용된 팔레스타인의 신 다곤(Dagon)과 아스타롯(Astarte).
좌측 위의 로고는 1971년의 것이고, 좌측 아래는 에그론(Ekron)의 물고기 신 다곤(Dagon)이며, 우측 아래의 부조는 풍요와 생식의 신 아스타롯이다.

마가복음 3장 20-22절에 두 그룹이 등장한다. 한 그룹은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자들이고, 다른 그룹은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무리이다. 이 무리 중에는 병든 자들과 귀신들린 자들도 있었다. 예수님은 밀려오는 이 무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과 귀신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느라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이 무리가 과연 미친 자를 보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과연 미쳤는가? 예수님에게 과연 바알세불이 지폈는가? 예수님이 과연 귀신의 왕에게 붙들렸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한 그룹은 건강한 상태처럼 보였어도 진짜로 병든 상태였을 것이고, 다른 그룹은 병든 상태처럼 보였어도 의외로 건강한 상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진짜 병든 자들이고, 과연 누가 진짜 건강한 자

들이었는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예수님의 친족들과 “예수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비방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병든 상태였을 것이고,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겠다고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는 역설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을 것이다.

바알세불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으로서 본래 ‘바알세불’(Beel-zebub) 곧 ‘높은 거처의 주인’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의 뜻으로 이를 ‘바알세불’ 곧 ‘파리들의 주인’라고 불렀다. 또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으로도 불렀다(마 12:24). 열왕기하 1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자 사람을 블레셋으로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신탁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으로서 바알송배 강요로 악명을 떨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다. 그는 아합이 죽은 후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년간(853-851 BC) 다스린 후에 요절하였다. 그는 자신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의 전철을 밟아 야훼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사망하였다. 그는 낙상에 의한 사망이 아니었더라도 엘리사와 예후의 쿠데타 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한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자녀들이 몰살당했음을 전하고 있다.

성령님을 모독한 자들

마가복음 3장 23-30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방하는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하셨다. 첫째, 아무리 악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거슬러 분쟁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의 나라는 설 수 없고 망하고 말 것이다. 둘째, 적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그 나라를 약탈할 수 없다. 하물며 적장을 치려고 나간 자가 어떻게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겠는가?
사리분별이 가능한 자들로서
이런 터무니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약탈당하게 하는
위험한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곧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일들은
사람들이 일찍이 보지 못
했던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
사와 표적이었다. ‘기사’란
나타난 능력에 심히 놀라는

것을 말하고, ‘표적’이란 그 놀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능력은 큰 무리가 지켜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났다. 이를 고의로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손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바알세불 또는 귀신의 왕에 의한 것이라고 폄훼한 것은 하나님을 바알세불 또는 귀신의 왕이라고 말한 것과 다른 없는 신성모독이었다. 그리고 이 신성모독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자만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왔다. 게다가 이 같은 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악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서기관들이 악의적으로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폄훼한 것은 그들이 고침 받을 수 없는 중대한 병에 걸렸다는 암시였다. 자신들의 불치병을 고쳐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일컬어 귀신의 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니, 그들이 무엇으로 자신들의 불치병을 고침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

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 곧 인성을 지닌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손으로 행해지는 물리적인 능력(power)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이 그냥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성을 지닌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를 통해서 행해진 하나님의 능력은 인성을 지닌 성령님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며, 또 성령님이 행하신 능력은 자기가 행한 능력이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분이신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유대교에는 교리나 신앙고백서가 따로 없다. 그 이유는 613개의 계명과 수많은 규례의 실천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굳이 열거 하자

면, 열 세 개의 믿음의 원리와 몇 개의 계명들을 추가시킬 수 있다. 그것들에는 ①살아계신 하나님, ②한분이신 하나님, ③영이신 하나님, ④영원하신 하나님, ⑤중보자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 ⑥예언자들의 예언의 진실성, ⑦모세의 예언의 진실성, ⑧모세가 전한 토라(성문과 구전 포함)의 진실성, ⑨토라의 최종 권위, ⑩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 ⑪신상궤별하시는 하나님, ⑫메시아의 도래, ⑬죽은 자들의 부활이 포함된다. 그리고 신성모독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 하나님을 사랑할 것, 하나님을

경외할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 하나님을 본받을 것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유대교의 가장 큰 업적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한 것이었다. 특히 자기 민족의 운명과 관련해서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였다. 여기에 이방인들이 비집고 들어설 공간이 없었다. 유대인들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하나님 이해에 온 인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지평을 넓혀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하나님의 외아들로서의 위치를 굳히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은 민족색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나 혈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자기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들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한 형제요 자매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다. 민족색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나 혈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가 되게 하신다는 이 위대하고 엄청난 선포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어 외아들의 신분을 버리시고 맏아들이 되셨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친히 그들의 맏형이 되심으로써 그분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동생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

이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34-35절).

14. 희망이 불러온 배척(3)(막 4:1-20)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노프 기노사르(게네사렛) 기복촌 인근 갈릴리 호수 배설
속에서 1986년에 발굴된 예수님 시대의 배를 복원한 모습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보도가 3장 7-12절에 이어 또다시 언급되었다. 호숫가에서 가르치신 것은 사람이 몰려와

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작은 배를 대기시켜놓은 채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두 번째에는 아예 배에 올라앉으신 채 복음을 전하셨다. 첫 번째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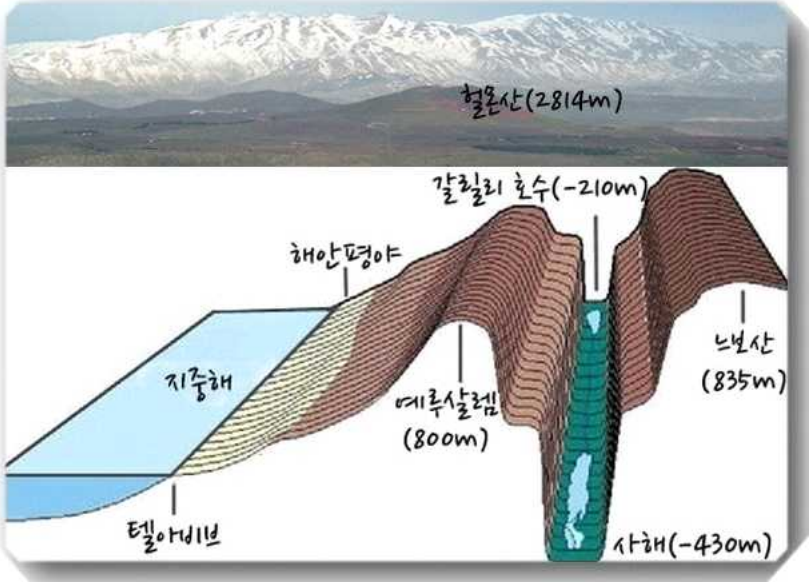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뭔가에 목마른 사람들이었다. 자신들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고, 혀가 꼬여서 말이 분명치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의 출렁이는 물결과 빈

배처럼 오랜 한과 희망을 품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었다. 오랜 외로움, 오랜 출렁임, 오랜 헛수고, 오랜 배고픔, 오랜 병들에서 방황하고 신음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깨끗한 물로 오랜 상처를 씻고 고침 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랜 자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요 구원의 빛이었다.

반면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병든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식과 건강을 뽐내는 자들이었다. 자신들이 눈멀어 보지 못하고, 귀먹어 듣지 못하고, 혀가 꼬여 말이 분명치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자신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었다. 잘났고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한 사람들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러나, 자신들이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백치들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을 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할 리가 없고, 옴(義)과 사랑(慈悲)과 믿음(信)이 있을 리가 없고, 이웃과의 소통과 배움의 자세가 있을 리가 없었다. 자기 아집과 자만에 빠져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려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복음서들에는 구조주의 모형론(Structural Typology)이 담겨 있다. 복음서들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상반된 대립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념체계인 복음을 독자들에게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당대의 정치종교지도자들과 유대교의 율타리 법들(Gezeirah), 곧 규례와 장로들의 전통을 건강한 복음에 대립되는 병든 것으로 설명한다. 어둠 속에서 빛이 밝게 빛나듯이 유대교의 병든 상태를 지적함으로써 기독교복음의 건



강한 상태가 밝히 드러나게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마가복음에 실린 ‘씨 뿌리는 자’ 또는 ‘네 종류의 밭’에 관한 비유를 기독교복음을 수용하는 건강한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병든 상태를 세 종류로 나뉘서 설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씨 뿌리는 자”는 기독교복음을 최초로 선포하신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의 일군들을 말한다. 그리고 그 씨를 받는 믿음의 밭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하셨다. 여기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건강한 상태인 “좋은 땅”에 대립되거나 상반된 병든 상태를 말한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농부는 김도 매주고, 덧거름도 주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물도 준다. 그러나 만일 토질이 나쁘거나 전염병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닥친다면, 수확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게 된다.

예수님은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영농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씨를 받는 토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토양의 질이 좋고

거름이 충분하면, 병충해 방제를 자주 하지 않아도,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발아가 빠르고, 뿌리를 잘 내리며, 가지를 잘 뻗고, 잎사귀와 열매가 튼튼하게 자란다. 반면에 토양의 질이 나쁘거나 거름기가 없고, 햇볕이 안 들거나 통풍이 안 되면, 농부가 아무리 자주 물을 주고 김을 매줘도 씨앗은 어렵게 발아한 후에도 시들부들 죽거나 살아남아도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를 받는 토양은 문자적인 토양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다. 기독교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까지 결실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하면, 복음의 씨앗을 받는 순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는 굳어진 심령의 불신자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단물인 감동만 빨아먹고 믿음의 단련인 시련의 쓴물은 내뱉어버리는 포기자도 있으며,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짓눌려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건강한 믿음과 병든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앗을 받는 밭의 비유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에 대한 것이다. 복음을 듣고 믿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은혜체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

갈릴리 호수는 세상을,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다.”는 말씀은 무리가 아직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아니한 상태, 즉 이제 겨우 복음을 듣는 단계를 말한다. 그들이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려면, 복음을 듣



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믿음을 증인들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무리는 아직 복음을 듣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승선을 결정하기까지 아직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씨앗이 뿌려지는 네 종류의 밭은 어쩌면 승선하기 전과 후 4단계를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는 예수님이 교회의 창설자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배는 기독교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통해 배표를 받고 승선한 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상징된 하늘 가나안땅의 구원의 해변으로 실어 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승선할지 말지를 결정해야할 시간이다.

기독교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배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이 멀고, 말씀의 귀가 먹어서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11절)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이 “길 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 만물을 밝히 보는 자들이요, 귀먹고 어눌한 혀가 풀려 말

이 분명한 자들이다. 이 범주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결실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들은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침례(배표)를 받고 승선하기까지 믿음을 발전시킨 후, 그 결실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15. 희망의 일군(1)(막 4:21-34)

희망의 일군: 등불 비유



예수님 시대의 오일램프

등잔에 불을 밝히는 목적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함이다. 그리스 로마세계에서 어둠은 무지를, 빛은 지식을 상징한다. 병들고

무지한 흑암의 세상에 등불을 켜는 목적은 무지를 몰아내고 지식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고린도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밝은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고린도사회가 병들고 무지한 흑암에 갇힌 사회임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때는 바야흐로 숨긴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나타날 종말시대란 것이다. 여기서 종말은 오랜 희망과 염원이 성취되는 새로운 세상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숨긴 것”과 “감추인 것”은 악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한다.

바울은 기독교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신비) 혹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불렀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계시인데, 그 계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오랜 기간 비밀이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아집과 무지 때문이었다. 한편 예수님은 그것이 오랜 기간 비밀이었던 이유조차도, 22절에서, 나타내려 하고, 드러나게 하려는데 있다고 하셨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여기란 것이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오랜 비밀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란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른 아닌 등불을 가져온 희망의 일군이시오, 희망의 등불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신비)을 밝힌 희망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계시였다. 그분이 세상에 등장하신 것은 어둠의 세상에 등불이 켜진 것과 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등불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이나 “평상”과 같은 배척자들을 경고하셨다. 여기서 “말”은 등잔을 덮는 뒷박이나 그릇을 뜻하고, “평상”은 침상을 말한다. 등불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놓아야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지하고 캄캄한 세상에 지식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밝히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빛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훼방하는 자들은 등불이신 예수님을 끌어내려 자신들의 율법과 규례의 뒷박으로 덮어버리거나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안락의 침상 아래에 감춰버리려고 하였다. 그 공격이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24-25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경고하셨다. 만일 누구든지 어둠의 일과 생명을 해치는 죽이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희망의 일군: 농부의 비유

본문 26-29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



초정통파(ultraorthodox) 유대인들의 밀수확 모습

되 처음에는 싹이
요, 다음에는 이
삭이요, 그 다음
에는 이삭에 충실
한 곡식이라. 열
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
는 추수 때가 이
르렀음이라.” 예
수님의 이 비유와

비교시켜 볼 수 있는 성구가 고린도전서 3장 5-10절이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나?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군, 곧 희망의 일군이다. 일군은 농부와 같아서 기독교복음의 씨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며 병충해를 방제하고 김을 매주는 자이다. 그러나 그 씨가 발아되어 싹을 틔우고 성장시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땅이다.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땅에 생명의 신비를 부여하셨다. 농부가 씨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며 병충해를 방제하고 김을 매주는 목적은 “충실한 곡식”을 얻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오랜 인간의 희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건설하는 복음의 일은 신인협업, 곧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사역으로 이뤄진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사람의 능력, 곧 사람의 노동과 기술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궈지지 않는다. 사람이 씨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며 병충해를 방제하고 김을 매준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사람이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군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군이요 그리스도의 일군이다.

그리고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는 말씀은 최후심판의 때를 암시한다. 그러나 비유의 핵심은 불에 태워질 쭉정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곳간에 모아질 “충실한 곡식”에 있다(마 3:12, 눅 3:17). 충실한 곡식은 하나님의 오랜 자비를 입어 헌신한 희망의 일군들의 수고의 대가이다. 그리고 충실한 곡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희망의 일군: 겨자씨 비유



Hot mustard seeds



Yellow mustard seeds



겨자꽃과 씨와 맷새(터미)

겨자씨 비유는 믿음과 기독교 복음의 잠재 능력, 곧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동력을 암시한다. 복음서에는 두 개의 겨자씨 비유가 있다. 하나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마 17:20, 눅 17:6)이 갖는 행동 능력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마 13:31, 눅

13:19)만한 복음이 갖는 성장 동력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는 믿음과 기독교복음이, 비록 지금은 그 시작이 미약하지만, 필연적으로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요 8:7)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메마른 겨울나무 속에 숨겨진 생명의 부싯돌처럼, 또 메마른 씨앗 속에,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알갱이에 불과할지라도, 그 속에 새 생명을 탄생시켜 열매를 맺게 할 DNA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지목하여 말씀하신 것은 겨자가 갈릴리 주변에서 자라는 매우 흔한 식물이었기 때문이다.

겨자는 1년생 초본식물로써 2-3미터정도까지 자라며, 유채꽃과 흡사한 노랑꽃이 핀 후에 좁쌀 정도의 씨앗이 맺힌다. 우리나라에서 “작다”는 것을 종종 “좁쌀만 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작다”는 의미를 겨자씨로 표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31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땅에”라는 말은 “자기 밭(채소밭)에”(마 13:31, 눅 13:19)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기 밭에 심은 모든 씨보다 작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겨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kosher) 채소로써 채전에 심기는 씨앗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작지만 큰 키로 자라기 때문에 새들이 자주 날아와 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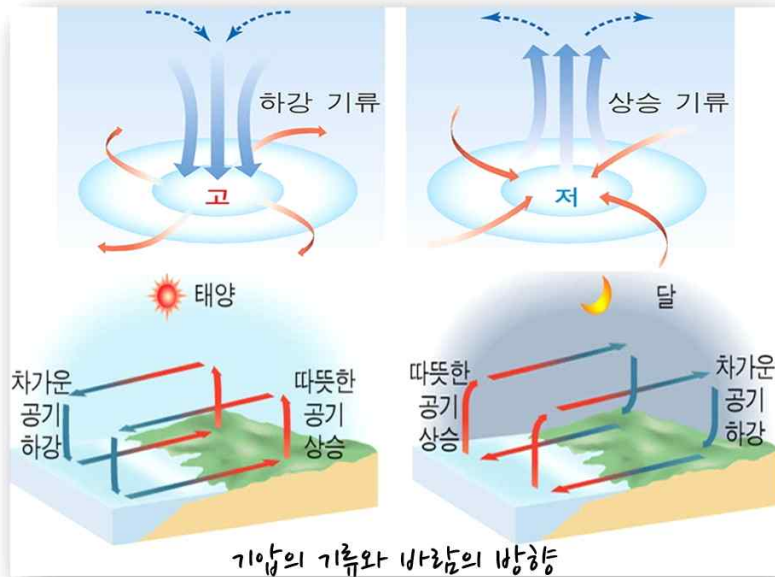
복음서에서 겨자씨는 좋은 씨를 대표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비취볼 때, 겨자씨는 좋은 씨,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의미했다고도 볼 수 있다. 갈릴리 주변에 흔해빠진 잡초나 다름없는 작은 겨자씨가 하나님의 밭에 심긴 후에 새가 깃들만큼 성장한다는 말씀은 작고 쓸모없다며 멸시와 무시만 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지친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쓸모가 큰 사랑받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뜻이다.

초기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교인들과 헬라인

들로부터 무시와 탄압을 받던 작은 겨자씨 공동체에 불과했지만, 삶에 지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만큼 성장 동력이 큰 다이내믹한 집단이었다. 10여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후 392년에 1,145년의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제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16. 희망의 일군(2)(막 4:35-41)

해륙풍(Sea and Land Breeze)의 방향



온기가 상승한 자리를 냉기가 채우면서 바람이 만들어진다. 여름철 낮 시간대는 햇볕에 데워진 육지가 기온차가 작은 바다보다 기온이 높고, 밤 시간대는 기온차가 작은 바다가 식어버린 육지보다 기온이 높다. 반대로 겨울철엔 기온차가 작은 바다가 쫄쫄 얼어붙은 육지보다 기온이 높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하니깐 여름철 낮 시간대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분다. 그러나 겨울철엔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분다. 겨울철엔 바다의 온도가 대륙의 온도보다 높고, 이 저기압이 위로 올라가면, 그 자리를 찬 대륙의 고기압이 메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겨울에 추운 이유는 시

베리아의 찬 고기압이 바다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갈릴리의 여름철엔 남서풍이 불지만, 겨울철엔 북동풍이 분다. 일반적으로 연사는 청중보다 높은 곳에 서서 청중을 내려다보며 연설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셨다. 상식에 맞지 않는 방법인 것 같지만, 실상은 탁월한 방법이었다. 갈릴리 호수는 세숫대야에 물이 담긴 것처럼 해발 마이너스 210미터이상 아래에 있고, 사방이 온통 가파른 산으로 포위되어 있다. 그리고 육지는 호수보다 기온이 높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바람은 호수에서 육지를 향해서 분다.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 바닷가에 서거나 배를 타고 앉아서 말씀을 전한 것은 자연이 마련해준 음향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신 것이다. 바닷가에서 서서 평소처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호수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을 타고 육지(산언덕)에 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들린다.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은 자연의 원리를 지혜롭게 이용하셨던 것이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여름철엔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서 산 쪽으로, 또는 지중해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남서풍이 분다. 반면에 겨울철엔 바람이 북동쪽 고지대, 즉 혈몬산과 골란고원에서 호수를 향해 남서쪽으로 분다. 5천만 평가량 되는 갈릴리 호수는 수심이 크게 깊지 않은 반면에 세숫대야에 물이 담긴 것처럼 협곡에 위치하고 있다. 혈몬산과 골란고원에서 오는 북동풍이나 지중해에서 오는 남서풍이 세게 불면 갈릴리 호수의 물은 세숫대야의 물이 소용돌이치듯이 거센 물결을 만들어낸다. 이런 현상은 특히 겨울철인 11월에서 4월 사이에 자주 발생한다. 물결이 거센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고깃배들은 작은 돛단배들이어서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광풍에 놀란 승선 자들

예수님이 낮에 말씀을 전하실 때, 호숫가에서 물을 등지고 서서 산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소리전달이 잘 되었다. 호수의 찬 공기가 달궈진 대지 쪽으로 이



혈문산의 거센 북동풍과 지중해의 거센 남서풍이 깊은 협곡 아래의 갈릴리 호수에 종종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동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가 저물고 대지가 식으면, 특히 2,814미터나 되는 높은 눈 덮인 산에서 만들어진 북동풍의 찬바람이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해수면보다 210미터나 더 낮은 계곡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를 스치고 지나간다. 35절을 보면,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 바람의 방향은 남서풍에서 이미 북동풍으로 바뀌고 있었다.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와 주변의 다른 배들도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바람이 갑자기 돌풍으로 바뀌었다. 지형의 특성상 흔히 있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배는 출발지에서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동쪽을 향하고 있는 터라 맞바람을 맞으며 항해하고 있었다. 돌풍은 세숫대야 모양의 갈릴리 호수를 소용돌이치게 만들기 때문에 배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37절을 보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였다.

고요하기만 하던 호수가 갑자기 요동을 치자, 평화롭기만 했던 배와 배에 탄 사람들이 함께 요동을 치며 위태롭게 되었다.

38절을 보면, 몹시 고되고 지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은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시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쉼도하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돌보시는 일은 예수님에게 힘겨운 노동이었다. 예수님은 마른 빵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그조차도 시간이 없어서 자주 걸려야 했다. 그러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38절의 말씀은 이 고단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로 평온함을 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국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이나 천국복음으로 한껏 위로를 받았던 제자들까지도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온했을 것이고 기쁨으로 차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신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에 벌어진 일이었다. 또 이 상황은 17절에서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벌어질 또는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호수는 세상을, 배는 교회를, 폭풍은 환난을, 저편은 목적지나 신세계를 암시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이자 권면의 말씀이다. 그러나 전기보



갈릴리 호수에 드리워진 무지개

다는 권면에 더 치중되어져 있다. 복음서가 기록될 무렵에 교회는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네로의 기독교 박해와 예루살렘의 유대-로마전쟁이라는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었

기 때문이다. 온 교회들과 교우들은 심히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폭풍진압 이야기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는 돌풍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길지 않다는 것이다. 시련은 언제나 짧다는 것이다.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이는 날이 일 년 365일 가운데 며칠이나 되겠는가? 시련은 지나 가게 마련이다. 둘째는 환난의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맞닥뜨리는 시련은 더 단단하게 만들지 쓰러져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폭풍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피우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한다. 39-40절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 하라. 고요 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울 것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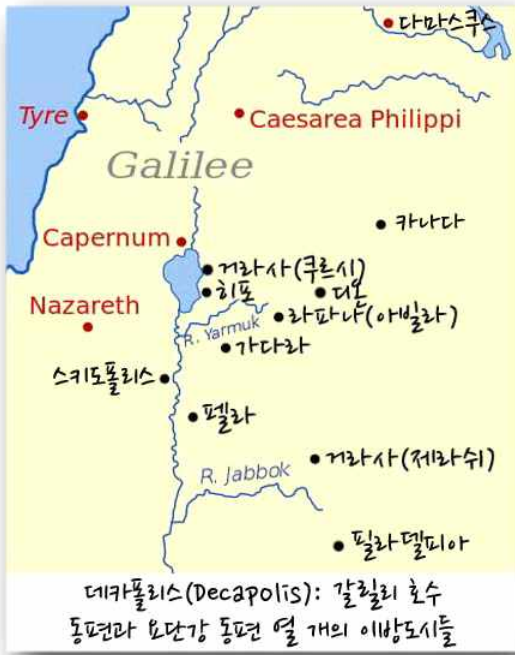
희망의 일군인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맞닥뜨린 환난을 잠잠케 하고 고요하게 잠재울 능력이 많으신 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다. 배라는 삶의 중심에, 배라는 가정의 중심에, 배라는 교회의 중심에, 배라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중심에 누구를 모셨는가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36절,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을 모신 삶,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모신 교회, 예수님을 모신 크고 작은 공동체는 거친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될 것이다. 또 38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난은 예수님을 찾게 만든다. 환난은 노란색 경고표시이자 빨간색 위험표시이다. 삶에 찾아오는 위기는 경고이자 위험표시이다. 위기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생활에서 뒷걸음질할 때가 아니라 삶을 반

성하고 회개해야할 때이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능력 많으심을 인정해야할 때이다. 내게서 잊히신 하나님을 찾고 깨워야할 때이다. 희망의 일군인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청한 것처럼, 희망의 일군인 우리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분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한다.

17. 희망의 일군(3)(막 5:1-20)

갈릴리 호수 저편



복음서에서 갈릴리 호수 저편은 신세계, 새 가나안땅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할 수 있다. 사실 갈릴리 호수 저편은 동서남북 어디든 상관없다. 교회를 상징하는 배를 타고 세상을 상징하는 호수를 건넌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는 홍해건너 광야 또는 요단강건너 가나안땅이 될 수 있다.

광야나 가나안땅은 처음부터 히브리인들의 땅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홍해를 건넌 후에는 히브리인들의 임시거처가 되었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다.

신약성서기독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방인 지역들에서 확장되었고, 이방인들의 종교로 발전되었다.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은 5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와 4천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이다. 이들 표적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을 입증하는 것들인 동시에 신약성서기독교에서의 주의 만찬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의 천국잔치를 상징한다. 그런데 그 같은 표적들이 펼쳐진 장소는 갈릴리 호수 북서편 다브가의 언덕과 호수 동편 데가볼리 지역이었다.

마가복음은 그 당시 병들고 귀신들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인상을 준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교 회당에서 병든 자들과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유대교가 사람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기보다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준다는 메시지가 숨어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데가볼리의 거라사인의 지방에 군단(legion)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서 제정신을 찾게 해주신 것이다. 유대인들의 병든 상태도 심각했지만, 이방인들의 병든 상태는 그 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보병 6천명과 기병 120명으로 구성되는 로마 군단 병력만큼이나 그 숫자가 많고, 악령의 힘이 강력했다는 암시가 들어 있다. 이토록 심각하고 위험한 병든 상태를 치유하고 제정신을 찾게 해줄 묘약은 희망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선포하신 신약성서기독교 복음이었다.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의 말씀은 모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물러가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보는 것을 알지 못했고, 듣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그 근원을 몰아내는 실수를 저질렀다. 데가볼리의 거라사인들은 갈릴리 호수에 종종 몰아치는 질풍노도와도 같았던 광인이 새 사람이 되어 옷을 입고 조신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데가볼리(Decapolis)

예수님께서 군단 귀신을 몰아내신 곳은 갈릴리 호수 동편 데가볼리(Decapolis)에 속한 쿠르시(Kursi) 거라사(Gergesa)였다.

이곳은 산비탈이 호수로 이어져 있어서 2천여 마리의 돼지 떼가 내리달려 곧바로 호수로 뛰어들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돼지 떼(2천 마리)가 몰살된 거라사 산비탈(갈릴리 호수 동편 언덕)과 근처에서 발굴된 비잔틴시대 수도원 유적(5세기 경)

군단 귀
신에 들
렸던 사
람이 거
주 하 던
돌 무덤
들의 터
가 남아
있 다 .
그 리 고
이 지 역
은 이 방
인 들 이
사는 지
역 이 었
기 때 문
에 돼 지
방 목 이

허용된 곳이었다. 성지순례자들 중에는 갈릴리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 떼를 발견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이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1970년에 골란고원으로 이어지는 도로건설을 하던 중에 이곳 산비탈 아래에서 5세기경에 세워진 거대한(돌담의 크기: 145x123m) 비잔틴시대의 수도원과 예배당 유적을 발견하였다. 이후 탐사와 발굴에 4년이 걸렸다. 또 수도원 근처 언덕의 바위 위에도 작은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 예배당 터에서 파괴와 복구 작업이 여러 차례 이뤄졌음을 말해주는 3개의 층으로 된 모자이크가 발굴되었다. 이곳은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 왔던 614년에 파괴 되었다가 복구되었고, 8세기경에 다시 화재로 파괴되었다가 복구되었으며, 9세기경에 무슬림들이 정착하면서 다시 파괴되었다. 지금은 국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성지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데가볼리(데카폴리스)는 문자 그대로 ‘열개의 도시’란 뜻이다. 갈릴리 동남부 헬라어를 쓰는 이방지역에 세워진 이들 도시들은 헬라의 자치적인 연맹 도시였다. 주전 3세기경 셀류시드(Seleucid Dynasty) 왕조 때 시도한 헬라화 정책, 곧 유대인 민족주의와 종교적 배타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리스-로마 문화를 이식하여 세운 시범 도시들이었다. 하스몬(Hasmonean) 왕가 때 힐카누스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주전 64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의 침입 때 로마에 편입되었다. 이들 도시들에는 필라델피아, 거라사(제라쉬), 스키토폴리스, 펠라, 가다라, 디온, 카나다, 라파나(아빌라), 힌포, 다마스쿠스가 포함되었다. 군단 귀신들린 광인을 고쳐주신 거라사(쿠르시)도 데가볼리에 포함된 곳이었다.

주후 66-70년에 있었던 유대-로마 전쟁 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데가볼리에 속한 펠라(Pella)로 이주하였다. 데가볼리는 로마도시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무슬림들에 의해서 폐허가 될 때까지 기독교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지역들이고, 유적들이 많아서 성지순례자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다.

광인의 구원사건

앞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상에서 광풍을 맞닥뜨린 것과 육지에 내려 광인을 맞닥뜨린 것에는 비난의 손가락질과 배척당함 그리고 최종 승리라는 어떤 연결점이 있다. 군단 귀신에 붙잡혔던 광인의 모습은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과 희망의 일군들이 탄 교회라는 배를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쳤던 광풍과 너무나 닮아 있다. 그것들은 희망의 일군들을 무서워 떨게 만들고, 겁을 집어먹게 만들며, 어찌할 줄을 몰라 찢찢매게 만드는 적대자들의 맹렬하고 사악한 공격을 상징한다. 그러나 희망의 일군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마태, 마가, 누가가 쓴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의 활동이 갈릴리 지역에 집중된 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지역인 데가



돼지 떼(2천 마리)가 몰살된 거라사 산비탈(갈릴리 호수 동편 언덕)에서 발굴된 비잔틴시대 수도원의 침례탕(5세기)

볼리의 펠라(Pella)로 이주한 점, 데가볼리의 고대도시들에서 기독교 유적들이 많이 발

견되고 있는 점은 복음서들이 기록되던 주후 60-70년대, 즉 네로의 기독교 박해와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던 시기에 이미 갈릴리 호수 주변 도시들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것은 또 신약성서기독교가 유대 땅과 유대혈통을 뛰어넘어 열방 민족의 종교로 발돋움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부정한 동물의 상징인 돼지들이 군단 귀신에 들려 몰살당한 것은 부정한 것이 귀신들을 끌어들이고, 또 귀신들은 부정한 것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군단 귀신에 사로잡혀 최악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희망이신 예수님의 손 내밀기 자비를 입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일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단 귀신들린 광인의 구원사건은 복음전도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 또 군단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에 대해서 데가볼리 전역에 전파하였다. 그 넓은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

지를 알거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의 증거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열매는 얼마 못되어 예수님이 그 지역 사람 4천여 명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음식을 먹이는 표적으로 나타났다. 그 무리는 광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서 그 지역 사람 4천여 명이 사흘간 굶은 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실을 만나볼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빵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로 먹이셨다. 폭풍이 변하여 무지개가 되듯이, 광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잔치가 베풀어졌다.

18. 희망의 일군(4)(막 5:21-43)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1)



군단 귀신
이 들렸던
광인, 12년간
혈루증을 앓
았던 여인,
병으로 죽어
가던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 이들
은 모두 건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
이었다. 그들
은 희망이란
불을 밝혀서
등경위에 두
는 자들이었
고, 희망의
성취를 위해
서 적극적으
로 행동하는

자들이었으며, 겨자씨처럼 작은 희망의 씨앗을 새들이 깃들 생명의 나무로 키워내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위험에 빠진 자들이었고, 불치병에 걸려 죽

어가는 자들이었으며, 유대교의 정결법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절망이란 바다에 빠져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었다. 그랬던 그들이 불치병이란 광풍, 부정한 자란 광풍, 손가락 질의 광풍에서 건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희망이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여인과 회당장의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소녀야 일어나라”(34, 41절).

복음서에서 건강한 상태와 병든 상태는 역설적이다. 불치병이란 절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라도 희망이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자는 건강한 상태이고, 반대로 희망이란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 자는 병든 상태이다. 군단 귀신이 들렸던 광인,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병으로 죽어가던 딸을 둔 회당장 아이로, 이들은 모두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영접한 자들이었다.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 큰 무리가 배가 정박한 호숫가로 몰려들었다.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서 혹은 배 안에서 자연이 만들어내는 음향효과를 이용하여 무리를 향해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무리 속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있었고,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된 회당장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의 병든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겠다는 희망과 의지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불치병이란 광풍을 만났지만,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란 것을 아는 자들이었다. 그들에게는 병든 상태를 보는 눈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는 귀와 예수님께로 다가갈 믿음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자들이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2)

반면에 병든 상태에 놓인 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



희망장 아이로의 죽은 딸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는 예수님(Greg K. Olsen 작)
 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4:12)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믿음을 가졌
 다고 자부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죄 많은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
 에게 동무가 되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죄라는 불치병에 걸린 자들이었으나 고침을 받지 못하고 구원
 의 방주에 오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
 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불치병에 걸렸어도 민족성
 별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
 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신 자들은 스스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
 고 희망이신 예수님께 믿음을 표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불치
 병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인간
 의 능력과 의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경험한 자들이었다. 그들
 은 오랜 병듦, 오랜 헛수고, 오랜 고통에 신음하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오랜 희망, 오랜 인내로, 하나님의 오랜 자비를 기다리
 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움켜쥔 행동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한 채 살아갔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손가락질을 받던 자들이었다. 유대교 정결

법은 무덤과 피와 시체 등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정죄하였다. 따라서 무덤사이에서 생활한 귀신들린 광인, 하혈을 했던 여인, 죽은 딸 등은 모두 부정한 자들이었다. 유대교와 신약성서기독교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유대교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접촉하셨고, 교제하셨으며, 고쳐주셨다. 그들의 어둠을 빛으로, 그들의 혼돈을 질서로, 그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므로 신약성서기독교는 희망의 일군이요, 살리는 일군이요, 생명의 일군이요, 빛의 일군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교와 율법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교의 장로였던 회당장이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내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교와 율법은 이스라엘 민중을 구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만일 유대인들의 정치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장처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려낼 자가 그리스도 예수시란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머지않아 멸망할 이스라엘의 한계와 위급함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았다면, 지난 2천여 년 간 유대인들이 겪었던 비극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3)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세 사람, 곧 광인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성인 여성과 이제 겨우 12살 된 소녀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2절 “배에서 나오시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는 이방세계가 신약성서기독교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장면이다. 군단 귀신이 들린 상태는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그 위세가 등등(騰騰)했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고, 무덤들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어둠과 혼돈한 죽음의 상태였음을 말했다고 볼 수 있다.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군단의 숫자보다 더 많고 강력한 잡신들을 몰아내고 기독교국으로 거듭난 상황과

매치가 된다.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의 피와 땀을 닦았던 베일을
들고 있는 성녀 베로니카(멜 그레코, 1580년)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 혈루증을 고침
받고, 줄곧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라는 설이 있다.

신부인 여성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 여성은 피를 생명으로 여기는 유대교와 관련된 불치병에 걸려 있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고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피압박'이란 고질병에서 헤어나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몸과 마음이 처참하게 망가진 민족이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였지만,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구약(옛 언약)이 아니라 신약(새 언약)이었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였다.

열두 살 먹은 회당장의 딸은 한창 꽃이 피는 소녀였다. 유대교 전통에서 12세 소녀는 종교적 성인이 되는 나이였다. 이제 갓 종교적 성인이 된 소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곧 신약성서기독교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복음서의 저작 시기는 이미 기독교가 종교적 성인이 된 주후 60-70년대 곧 주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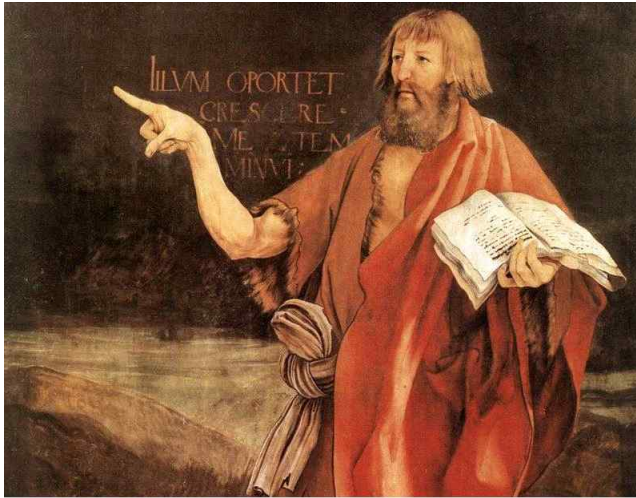
두 여인의 공통점은 12년이란 숫자이다. 성숙한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했고, 병을 고치려다가 가산만 탕진했으며, 여전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다. 만일 이 12란 숫자에 무슨 비밀이 숨어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부족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성숙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상징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

님과 관계에서 볼 때

년에 창립한지 한 세대가 지난 때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기독교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 무렵 기독교는 네로의 박해로 대 환란을 겪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으로 흩어져야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웅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므로 이제도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꿈” 하는 것이다.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서는 것이다.

19.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1)(막 6:1-29)

복음서에서 기적들의 목적



침묵계 요한이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티아스 그뤼네발트(Mathias Grunewald)의
이전하임 제단화(1515년), 프랑스 콜마르 윤티켄덴 미술관

마가가 복음서에 기적을 소개한 목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보고 확실히 믿고 분명하게 말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마가 복음에 실린 기적 18

개 가운데 가

장 중요한 것들은 두 개의 폭풍진압, 곧 배 안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과 물위로 걸어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 두 개의 급식기적, 즉 5천 명을 먹이신 것과 4천 명을 먹이신 것; 그리고 두 개의 신체장애자 치유, 곧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밝히 보고, 귀먹고 어눌한 자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는 것들이다. 이 기적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든 표적들이다.

마태, 마가, 누가가 쓴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을 오실 자 그리스도로 전파하는데 있어서 독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두

개의 급식기적, 곧 5천 명을 먹이신 것과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난 직후에 베풀어졌다는 사실이다.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 곧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게 말씀하셨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를 당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증거였다. 또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입증하는 표적을 베풀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셨다. 사람들 중에 더러는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살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당신의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고, 그 소문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유대인들의 정치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을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5천 명과 4천 명을 먹이신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 두 개의 급식기적이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예수님을 제2의 모세, 곧 오실 자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표적들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곧 제2의 모세가 오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곧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한 것과 같은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밝히는 외적 증거, 곧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다. 이로써 눈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된다. 이 신앙고백을 끝으로 복음서의 전반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는 후반부가 시작된다.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처형을 진두지휘한 백부장의 신앙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15:39)가 대미를 장식한다.

고향사람들의 배척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의 길이는 65킬로미터 정도 된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마오즈 이는



1890년경의 나사렛 마을 전경. 게곡 앞쪽 오른쪽 산의
경사지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던 곳이다.

(Maoz Inon)과 도보여행가인 데이비드 랜디스(David Landis)가 2007년부터 이 길에 “예수의 둘레길”(Jesus Trail)이란 이름을 붙여 운영하자 이스라엘 관광청에서도 2011년부터 “복음의 둘레길”(Gospel Trail)을 만들었다고 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었던 이 길을 최소 4일에서 6일에 걸쳐 도보로 순례하는 관광 상품이다.

‘나사렛’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배척’이다. ‘나사렛 예수’ 또는 ‘나사렛 사람’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떨시’와 ‘천대’이다. 여기서 ‘나사렛 사람’은 나사렛에 사는 주민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히브리어로 ‘노즈리’(Notzri), 복수로 ‘노즈림’(Notzrim)으로 부르는데 경멸의 뜻을 담고 있다. 사도행전에서는 “나사렛 이단”(Nazarene sect)으로 불렸다. 반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메시아킴’(Messianic Jews)이라 부른다.

당시 나사렛 동네는 산에 둘러싸인 계곡에 형성되어 있었고, 계곡 한쪽 산에 가파른 경사지가 있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 경사지 아래 계곡에 오래전부터 4세기 말경의 수도사였던 마론을 추종하는 가톨릭교회의 마론파(Maronites)가 자리를 잡았다. 지금은 경사

지여까지 집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다. 오늘날 나사렛의 인구는 4만 명 정도이고 상당수가 아랍인이며 60퍼센트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고향 나사렛에서의 배척은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와 맞물려 있다.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왜 오실 자 그리스도이신가를 보여주고 공개하는 장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희망했던 바대로 제2의 다윗 왕이 되지 못하고 정치와 종교지도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고향사람들한테서까지 배척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고향 나사렛에서의 배척은 독자들에게 이 점을 미리 암시하기 위한 것이다.

고향사람들의 배척에는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경탄해마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 천민 출신 아니냐? 그 친구 별 볼일 없는 사람 아니냐?”는 식의 무시와 경멸의 뜻이 담겨 있고,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고향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듯이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한 것이다.

제자들의 파송과 배척에 대한 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권면하신 말씀에도 배척이 암시되어 있다. 이것은 교회가 늘 직면했던 박해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갈릴리지역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은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신 일이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역사 속에서, 배척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다.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내보내셨다. 제자들의 임무는 갈릴리 호숫가의 출렁이는 물결과 빈 배처럼 오랜 한과 오랜 인내로, 하나님의 오랜 자비를 기다려온 사람들, 오랜 희망



열두 제자들(포레스코, Sergey Serous 작, 2008년 10월 31일)

을 품고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사람들, 인간의 한계에 지쳐 절망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오랜 외로움, 오랜 출렁임, 오랜 헛수고, 오랜 배고픔, 오랜 병들에서 신음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이었다. 기름 바름은 죄 사함의 은혜와 병 고침의 능력을 상징하였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는 예수님의 때가 임박했다.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때가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에 관한 소식을 헤롯 안디바 왕이 듣고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생각한 것을 소개한 목적은 침례 요한의 죽음을 명확히 알려려는 데 있다. 침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훈련은 이 시기의 긴박성, 복음 전파의 절박성,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 복음 전파자에 대한 배척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8-9절에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셨다. 그 대신 7절에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12-13절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10절,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은 배척자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말라는 권면이며, 배척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권면이기도 하다.

20.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2)(막 6:30-44)

그리스도신분 공개를 위한 오병이어

갈릴리 지역의 주도인 티베리아스(디베라)는 연중 기온이 10-30도 정도이고, 습도가 60-70퍼센트에 이른다. 여름인 5월과 9월 사이의 기온은 18-32도이다. 가장 더운 달은 8월로써 기온이 24-32도 정도이다. 또 5월에서 9월까지의 건기로써 강수량이 10밀리미터 안팎이다. 겨울인 12월부터 3월 사이의 기온은 9-21도 정도이다. 가장 서늘한 달은 1월로써 기온이 9-18도 정도이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우기로써 비가 11월에 90밀리미터, 12월에 190, 1월에 180, 2월에 110 정도 내린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달은 12월로써 190밀리미터 정도 내린다.

이로써 푸른 잔디가 있는 계절이 언제쯤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의 공적 활동기간을 3년 6개월 정도 기록한 요한과는 달리 마태, 마가, 누가는 일 년여 남짓만 기록하였다.



팔복교회와 오병이어교회 사이의 넓은 언덕이 오천 평을 먹이신 장소이다. 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새다(복동)로 가려했으나 강한 복동풍에 밀려 고생하다가 물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게네사렛(서쪽)에 도착하였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공개한 표적으로써 이 표적이 있고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후 30년 유월절은 4월 7일(금요일)에 닿았으므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기간을 감안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기철인 겨울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의 밤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0도 정도이고, 들녘은 푸른 잔디로 덮인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스케줄대로 예루살렘으로의 오름의 시점을 유월절 직전으로 정하셨다. 오병이어의 표적, 베드로의 신앙고백, 별세, 수난, 배척에 대한 예고는 모두 그리스도 신분의 공개, 예루살렘으로의 오름, 십자가의 수난의 시점이 유월절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오병이어의 표적 때 사람들이 앓았던 “푸른 잔디”(39절)가 유월절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또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셔야 할 때란 것을 말해준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름’(aliyah)이라는 집단무의식이 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밖에서의 삶을 비정상적 상태로 간주하면서 그러한 삶을 유배생활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예루살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Ha-Tikvah)을 국가(國歌)로 부른다.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천년을 간직한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의 오름을 ‘알리야’(aliyah)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의 오름과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오름의 목적은 상반된다.

신앙고백을 위한 오병이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활동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언급, 오병이어의 표적, 예수님의 신분노출, 베드로의 신앙고백으로 마무리되는데 있다.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십자가



오병이어 교회의 제대(성만찬상)아래 바닥 모자이크(3세기경)
제대아래 바위는 예수님께서 빵과 생선을 들고 축사하셨던 자리이다.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또 빵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각각 오천 명과 사천 명을 먹이신 표적들을 마태와 누가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신분공개와 갈릴리에서의 활동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빵의 문제와 세상의 일로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듣지 못하며, 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영의 눈이 열려 만물을 밝히 보고, 영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진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에 헌신할 수 있음을 강조할 목적에 사용하였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점과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의 사명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이 시점부터 그동안 감췄던 그리스도 신분을 공개하시고 죽음을 예고하신다.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심, 칠병이어의 표적들은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로써 모세가 행한 만나와 홍해도화와 같은 표적들에서 모형을 갖는다.

삼국시대이후 우리민족에게 거짓 미륵의 출현이 종종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유배이후 유대민족에도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의 수난에 대해서 세 차례 예고하셨다. 이 세 차례 수난 예고를 처음 소개한 저자가 마가이다. 그렇지만 마가는 빵

종종 있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를 판가름하는 잣대 혹은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다(마 16:1). 여기서 “하늘로부터”는 거짓에의 반대, 곧 ‘참’이나 ‘옳음’을 뜻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마 21:25)는 물음이 있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 또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란 표현이 있다(요 3:31), 이들 표현들에서 보듯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면, 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 일으킨 표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 하늘로부터 온 침례, 하늘로부터 온 표적들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하심을 뜻하는 ‘기적’이란 말 대신에 그 큰 능력이 일어난 목적을 뜻하는 ‘표적’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오실 자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공개한 표적이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 오름을 위한 오병이어

유대인들에게 “하늘로부터”란 표현이 생긴 이유는 주전 586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유배된 이후 제2모세와 제2가나



오병이어 교회(타브가, Tabgha)

안 땅을 희망한 데서 비롯되었다. 제2모세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가나안 땅 이전

시대에 히브리인들은 짧게는 215년, 길게는 430년간이나 이집트에서 떠돌이노예로 살았다. 설상가상으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가나안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감으로써 다시금 예전의 그 땅 없던 떠돌이노예의 신세로 돌아갔다. 이 떠돌이노예의 유대인들에게 제2가나안땅의 시대를 열어줄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라고 믿어졌다(신 18:15). 모세는 광야에서 표적을 일으켜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하였으므로 오실 자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자라야 했다(요 6:30-31).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유대인들은 놀라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였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다”(요 6:14-15).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은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추락한 명예와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로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도 유대인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야 했다. 예루살렘에서 인류의 대속제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고, 의혹에 찬 떠돌이예언자로서가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스도로서 오를 수 있는 분명한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명확한 싸인 없이, 의심이 난무하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그 죽음은 한갓 갈릴리 촌부의 것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격에 꼭 필요한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전반부에 소개된 것이고, 8장 29절에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으로 전반부의 대미를 장식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때가 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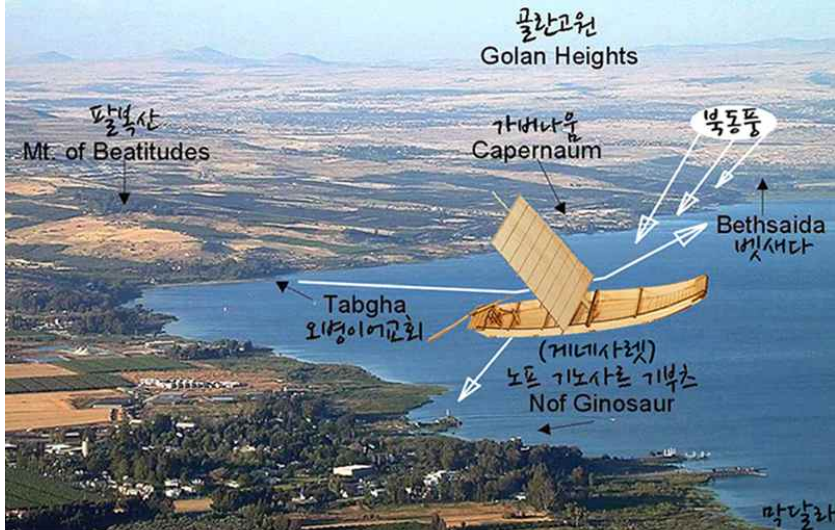
까지 당신의 신분을 감춤했어야 했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했다. 그리스도신분 노출은 죽음을 의미하였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손에 쥔 자들이 그리스도를 극도로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공개 시점을 죽음의 때로 정해놓으셨고,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는 소문내지 말라고 부탁하셨던 것이다. 소문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으로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점을 “영광을 얻을 때”(요 12:23)로 적고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큰 영광으로 보상되었음을 밝혀놓았다.

21.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3)(막 6:45-56)

침례와 성만찬 모형: 홍해도하와 광야만나, 폭풍진압과 급식 기적(1)

두 번의 광풍진압과 두 번의 급식기적은 교회의 두 가지 의식 곧 침례와 성만찬의 모형이고, 제1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의 원형이다.

4장 35-41절에서 이미 한 차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폭풍만난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지,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서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고요하라고 꾸짖어야 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내리에서 잊히신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릴



팔복산과 외성이교회 사이의 넓은 언덕이 오천 명을 먹이신 장소이다.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새다(복동)로 가려했으나 강한 복동풍에 밀려
 고생하다가 물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게네사렛(서쪽)에 도착하였다.

없이 낮잠이나 청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하고 지나치게 독립적이어서 예수님께 도움 청하기를 꺼려하고, 자신만의 힘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다가 절망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때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때이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점이 우리의 의식을 깨워야할 때이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할 때이다. 자신들만의 힘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제자들은 결국엔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서야 바다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

6장 45-56절에서는 이전 사건과 달리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만의 항해에서 예기치 않게 광풍을 만나 밤새도록 고생한 사건이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던 직후 해 저문 때에 예수님은 육지에 남으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북서쪽 타브가를 출발하여 북동쪽 벳새다로 가고 있었다. 바람이 낮에는 기온이 낮은 호수에서 기온이 높은 육지로 불지만, 육지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밤에는 북동풍이 호수를 향해 불어온다. 이 바람이 종종 광풍으로 바뀌기도 한다. 북동쪽 벳새다로 가려던 제자들이 만난 역풍이 바로 북동풍이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었거나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만 아니었다면, 이 맞바람과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펼치는 사투도 이와 같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한 신앙이나 약속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의 역풍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순응하며 살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배를 타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세상이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고난의 역풍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있고, 너무 늦지 않게 다가와 도움을 주신다는 점이다.

침례와 성만찬 모형: 홍해도하와 광야만나, 폭풍진압과 급식 기적(2)



바울은 히브리인들의 홍해도하를 그리스도인들의 침례의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였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계신 산에도 강풍은 불었고, 달빛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름을 단행하실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으셨던 것 같다. 만일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제자들에게 전화로 뱃새다로 가지 말고 게네사렛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제자들은 역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약속한 장소에 도달하려고 뱃새도록 수고했지만 낭패를 보았다. 우리도 종종 선한 일로 우리 자신을 혹사시키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이고, 너무 늦지 않게 찾아오신다는 점이고, 우리 안에 그분을 영접하는 즉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이다. 물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배에 올라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강풍이 멎었다(51절). 그러나 배는 이미 게네사렛땅으로 밀려가 있었고, 동이 틀 시각이었기 때문에 배를 게네사렛땅에 댔다. 그러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방 각지에서 병자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려고 힘썼으며, 옷 가에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56절).

어떤 항해도, 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항해라도, 주님과 함

께 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설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항해라도, 거친 파도와 강한 폭풍과 같은 시련은 여지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다. 믿음만 있다면, 물위도 걸을 수 있고, 강풍과 거친 파도도 잠잠케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병을 고치겠다는 믿음만 있다면, 믿음대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성역(聖役)이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신분노출(공개), 세 번의 수난예고, 예루살렘에로의 오르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 영광 받으심은 두 개의 바다기적, 병든 자들(여자) 치유, 두 개의 급식기적, 두 개의 장애인들(남자) 치유가 있고난 이후에 이뤄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2모세 곧 그리스도이심과 그 사명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란 이스라엘의 경제, 명예,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잘 말해준다. 여기서 사건들이 쌍으로 소개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아우른 것이고, 바다기적이 급식기적보다 앞선 것은 제1모세의 인도로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빈들)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에서 모형을 취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침례(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근거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범: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목적

마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두 개의 바다기적과 두 개의 급식기적 그리고 두 개의 장애인 치유기적이 나온다. 그러고 난 다음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온다. 두 개의 바다 기적들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4:35-41)는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6:35-44)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기 위해서 귀먹고 어눌한 병어리(7:31-37)가 고침을 받고 말이 분명해진다. 풍랑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위를 걸으셨던 이야기(6:45-51)는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8:1-10)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인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기 위해서 벧새다 장님(8:22-26)이 고침을 받고 만물을 밝히 본다.

복음서 독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두 개의 급식기적 곧 오천 명을 먹이신 것과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난 직후에 베풀어졌다는 사실이다.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 곧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게 말씀하셨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를 당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증거였다. 또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입증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거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베풀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셨다. 복음씨앗을 좋은 땅에 뿌릴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들 중에는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살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당신의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고, 그 소문이 헤롯 안티파스와 예루살렘의 정치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을 더 이상 감추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오천 명과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 두 개의 급식기적이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예수님을 제2모세 곧 오실 자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표적들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곧 제2모세가 오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곧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한 것과 같은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밝히는 외적 증거였다. 이로써 눈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 이 신앙고백을 끝으로 복음서의 전반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는 후반부가 시작된다.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처형을 진두지휘한 백부장의 신앙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15:39)가 대

미를 장식한다.

이 모든 것에 더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곧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일이었음과 이 일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승천 및 하늘우편보좌에 앉으심을 통해서 완성된데 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희생 없이 값싸게 이뤄지지 않는다. 여기에 예수님의 수난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과 허무의 수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우편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 하늘우편보좌영광은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는 또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승천, 보좌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보상의 내용이다.

22.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4)(막 7:1-23)

장로들의 전통



이스라엘의 우표
히브리어와 영어로 '미쉬나 세데르 토호롯'(구전의 주제,
정결절)이라고 적었다. 그림은 손 씻기에 사용하는 물그릇이다.

예수님
에 관한
소문은 예
루살렘에
까지 퍼졌
고, 예수
님을 찾아
온 바리새
인들과 서
기관들은
예루살렘
당국이 보
낸 정보원
들이었다.
그들은 트

집거리를 찾고 있었고, 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마가복음 7장 1-23절에서 세 가지 “장로들의 전통”(3절)이 언급되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규례 혹은 율타리 법들로서 모세 오경에 실린 613개의 계명(토라)이외에 미쉬나(Mishniot)라 불리는 구전에 실린 율법들이다. 이 가운데 손 씻기는 미쉬나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Seder)인 토호롯(Tohorot, 정결절)에 담겨있다. 토호롯은 12개의 소주제로 나뉘는데, 그중 열한 번째인 야다웜(Yadayim, 손들)이 손 씻기에 해당된다. 4절에서 “잔

과 주발과 낫그릇을 씻음이라”는 카샤룻(Kashrut) 음식법과 토호롯의 12개 소주제 가운데 첫 번째인 케이림(Keilim, 식기류)에 나오는 식기류 침례(Tevilat)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샤룻은 유제품(Dairy)과 육류(Meat) 및 그 밖의 식품들(Pareve)을 조리할 때 이들 세 가지 제품을 위한 각각의 전용 조리기구들과 식기류를 별도로 비치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사용하고, 씻을 때에도 섞이지 않게 엄격히 구분하여 전용 싱크나 개수대에서 씻어야 하며, 전용 식기 건조대나 수건은 물론이고, 이들 조리기구들과 식기류를 보관하는 전용 찬장과 공간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는 것과 부정하게 된 식기류를 정화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케이림은 처음 구입했거나 부정하게 된 식기류의 정화의식에 관한 내용이다(민 31장).

고르반(Corban)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예물(a gift devoted to God)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지적하여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그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성전에 속한 물건이 되지만, 그 물건은 서원한 사람의 소유로 그냥 남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13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는 부모님께 공양하기 싫은 재물을 고르반으로 지정만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악법을 지적하신 것으로써 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폐하는 사악한 장치였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율타리법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보통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것이다.

손 씻기 의식

첫째, 음식을 먹기 전에 ‘하모찌’(Hamotzi)라 불리는 베라카



노소를 불문하고 식사 전에 손 씻기 의식을 행하고 있는 모습
 동시에 물을 받아서 손 안팎이 흠뻑 적시도록 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복 받으시옵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주재시여, 당신은 지상에서 빵을 생산하시나이다.)를 낭송하고, 양 손에 물 붓기를 한다.

둘째, 흘러나오는 수돗물에 손을 갖다놓거나 물통에 손을 넣거나 할 수 없다. 그래서 물을 담기에 적합하고, 바닥에 세울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물그릇이 필요하다. 물그릇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의 손목에서부터 손등, 손바닥, 손가락, 손톱, 손톱 사이에까지 물이 닿도록 한 번에 붓는다. 보통은 물을 오른손에 먼저 붓는다. 손에 물이 닿는 것을 방해할 만한 것들은, 김스처럼 부득이한 것이 아닌 한, 모두 미리 제거해야한다.

셋째, 양손에 물을 적신 후에 양손을 비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쳐들고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베라카(복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를 낭송한다. 보통은 베라카 낭송 후에 한 번 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의 손에 물을 붓는다. 그러고 나서 양손을 말려야 하는데, 그 무엇도 손에 닿아서는 안 된다. 만일 손이 마르기 전이나 한 손에 물을 부은 후에 다른 손이나 다른 사람의 손에 접촉되면, 부정하게 된 것으로 보고 손을 말린 후에 씻기 과정을 다시 해야 한다.

넷째, 물그릇을 구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흐르는 물이나 물통 혹은 두터운 눈 속에 두 손을 손목까지 담글 수 있다. 펌프질을 해야 할 경우, 한 손이 땅에 있어야 한다. 만일 손 씻을 물에 손이나 손가락이 닿았다면, 그 물로는 손 씻기를 할 수 없다.

다섯째,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손 씻기 전에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단체여행중이어서 동행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면, 장갑을 끼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여섯째, 손 씻기를 마치고 식사 전이나 식사중이라도 손으로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액체에 닿으면 안 된다. 또 식사 중에 화장실을 다녀왔거나 액체에 담갔던 음식과 액체를 부은 음식을 먹는다면, 손에 닿지 않았더라도, 베라카 낭송을 뺀 물 붓기를 다시 해야 한다. 증류주를 뺀, 물로 형성된 위스키 같은 물질은 손 씻기를 해야 마실 수 있다.

일곱째, 손 씻기 관련 베라코트는 그 역사가 2천년이나 된다. 손 씻기 혹은 물 붓기는 영적 청결의 회복을 상징한다. 이 의식은 2천 년 전 제사장이 매일의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손을 씻도록 한 성전예배와 관련이 있다. 제사장이 손을 씻는 것은 성별의 행위였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행위를 본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에서 손을 씻는다고 주장한다.

손 씻기 의식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

이토록 하나님께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손을 씻어 성별되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6절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셨으며, 9절에서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가?

첫째,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셨고, 늘 본질문제에 접근하셨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외적인 허례허식에 매달렸고, 자만과 우월감에 차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꺼렸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남녀를 불문하고 식사 전에 손 씻기 의식을 행하고 있는 모습
 통기에 물을 받아서 손 안팎이 흠뻑 적시도록 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들을 죄인 취급하였다. 유대인들은 걸썩테기 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현실을 눈이 있어도 직시하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했고,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였다.

둘째, 손 씻기는 위생문제이지 성결문제가 아니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손 씻기는 손에 물을 붓는 것이었지 더러움을 씻는 게 아니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손 씻기는 위생문제와 상관없는 상징적인 의식에 불과하였다.

셋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문제이지, 영적문제가 아니었다. 유대인들의 손 씻기는 영적 청결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지, 실제로 영적 청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21-22절)고 하셨다. 정작 씻어야 할 것은 마음이지 손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이외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써 주신 구전(口傳)율법이 있다고 생각

하였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성경의 율법은 원리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바벨론 유배이후부터 유명한 유대 랍비들이 고대의 전승(傳承)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세한 생활 규범들을 정비하여 집성(集成)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린 미쉬나였다.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한 수준에 놓고, 법규를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계명의 목적과 정신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justice)와 인(mercy)과 신(faithfulness)은 버렸으며, 신앙심의 자만과 우월감에 빠진 데 있었다. 손에 물을 붓는다고 위생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영혼이 성결해지는 것도 아니다. 정작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청결과 영혼의 성결이다.

23.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5)(막 7:3-4)

식기류 침례(Tevilat Keilim)



식기류 침례(Tevilat Keilim) 의식을 행하는 유대인 가족
처음 구입한 부정한 식기류를 정화하는 의식으로써 침례탕
(Mikvah)에나 자연수(강, 호수, 바다 등)에 담갔다가 꺼낸다.

마가복음 7
장 1-23절에
서 세 가지
“장로들의 전
통”(3절)이
언급되었다.
장로들의 전
통이란 규례
혹은 율타리
법들로써 모
세오경에 실
린 613개의
계명(토라)이
외에 미쉬나
(Mishniet)라
불리는 구전

에 실린 율법들이다. 이 가운데 손 씻기는 미쉬나의 여섯 번째
이자 마지막 주제(Seder)인 토호롯(Tohorot, 정결들)에 담겨있다.
토호롯은 12개의 소주제로 나뉘는데, 그중 열한 번째인 야다윌
(Yadayim, 손들)이 손 씻기에 해당된다. 4절에서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는 카샤룻(Kashrut) 음식법과 토호롯의 12개
소주제 가운데 첫 번째이자 30장(章)으로 구성된 케이림(Keilim,
식기류)에 나오는 식기류 침례(Tevilat)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
다. 카샤룻은 유제품(Dairy)과 육류(Meat) 및 그 밖의 식품

(Pareve)을 조리할 때 이들 세 가지 제품을 위한 각각의 전용 조리기구들과 식기류를 별도로 비치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사용하고, 씻을 때에도 섞이지 않게 엄격히 구분하여 전용 싱크나 개수대에서 씻어야 하며, 전용 식기 건조대나 수건은 물론이고, 이들 조리기구들과 식기류를 보관하는 전용 찬장과 공간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는 것과 부정하게 된 식기류를 정화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케이림은 처음 구입했거나 부정하게 된 식기류의 정화의식에 관한 내용이다. 민수기 31장을 보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정결례를 제사장 엘르아살이 지시하고 있다. 22-23절에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는 계명이 실려 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근거하여 새로 구입한 식기류와 부정하게 된 식기류를 재질에 따라 정화한 후에 사용하고 있다. 먼저 불에 타지 않는 식기류는 불로 지진 후에 물에 담갔다가 꺼내 쓰고, 불에 타는 식기류는 물에만 담갔다가 꺼내 쓰는데, 당연히 정한 음식에만 사용한다. 식기류 침례(Tevilat Keilim)는 처음 구입한 부정한 식기류를 정화하는 의식으로써 침례탕(Mikvah)에나 빗물, 강물, 호숫물, 바닷물과 같은 자연수에 담갔다가 꺼낸다.

부정한 식기류 곧 이방인한테서 구입했거나 데워진 부정한 음식에 접촉된 식기류는 부정함이나 음식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재질에 따라 불로 지지거나 끓는 물에 담갔다가 꺼낸다.

카사룣(Kashrut) 구전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는 염소새끼를 어미젖으로 삶지 말라”(출 34:26, 신 14:21)는 계명이 있다. 유대교인들은 이 계명에 근거하여 육류를 유제품과 함께 먹지 않고, 육류에 접촉된 그릇을 유제품에 쓰지 않으며, 유제품에 접촉된 그릇을 육류에 쓰지



카사룩 음식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위한 주방
고기제품과 유제품, 또 그것들을 조리하거나 담는 용기들이 섞이지
않도록 싱크, 스토브, 전자레인지, 찬장 등을 두 개씩 설치하였다.

않는다.
랍비들은
그이 유가
생명을
주는 요
소인 젖
과 생명이
없고 기를
함께 섞을
수 없기 때
문이라

고 말한다.

랍비들은 육류와 유제품을 먹을 때 음식물이 치아사이에 끼는 것과 뱃속에서 섞이는 것을 고려해서 3-6시간의 간격을 뒤야한다고 말한다. 독일계는 3시간, 동부유럽계는 6시간, 네덜란드계는 1시간 이상 기다린다.

유대교인들은 식기류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요즘에는 육류용(빨강), 유제품용(파랑), 그 밖의 식품용(초록)이 색깔로 구별될 뿐 아니라 용기에 글씨를 박아 출시한다. 색 구별이 없는 식기류에는 스티커를 붙인다. 이처럼 모든 식기류에 육류용, 유제품용, 그 밖의 식품용이란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대로 지위를 유지해야 정(淨)한 그릇으로 남는다. 만일 육류를 조리했거나 육류를 담았던 그릇에 유제품을 조리하거나 유제품을 담으면, 그 그릇은 육류용 지위에서 유제품용 지위로 바뀐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부정(不淨)한 그릇이 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자주 부정해지는 것이 스토브와 싱크이다. 육류와 유제품의 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거지할 때는 그릇들

을 싱크에 담그지 않고 각각의 전용 개수통을 사용하거나, 스트브에 조리 기구를 얹을 때는 바닥에 닿지 않게 받침대나 거치대를 사용한다. 그릇세척기를 사용할 때도 육류용과 유제품용을 위한 전용 그릇걸이를 각각 구비한다. 조리할 때 사용하는 집게나 수건도 각각 구비한다. 세탁할 때에도 육류용은 육류용끼리, 유제품용은 유제품용끼리 모아서 따로 한다.

부정하게 된 싱크는 끓는 물을 부어 닦아낸다. 물을 부을 때 물이 계속 끓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을 계속 끓게 할 수 있는 전기주전자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부정하게 된 오븐은 휴대용 토치로 내부를 지진다. 오븐을 최고 온도로 반시간 이상 켜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부정하게 된 냄비, 주전자, 나이프, 포크 등은 끓는 물에 넣었다 꺼낸다. 기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토치로 지진다. 물로 정화할 때는 끓는 물에 완전히 잠겨야 유효하므로, 물은 끓게 유지하되, 통속의 용기들이 끓는 물에 닿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써야한다. 이뿐 아니라, 육류용 그릇과 유제품용 그릇들이 섞이지 않도록 각각의 용기에 넣었다가 꺼내야 한다.

카샤룻(Kashrut)과 케이림(Keilim) 구전의 장단점

유대교인의 식탁은 거룩함을 훈련하는 장소이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은 가장 기본적인 먹는 행위에서부터 거룩함을 연습하되 아주 철저하게 한다.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식탁은 신성하다. 특히 안식일의 식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유대교인의 음식법은 성결(聖潔)한 삶을 위한 절실하고도 진지한 노력 그 자체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잡한 카샤룻 음식법은 “염소새끼를 어미젖으로 삶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비롯되었다. 단순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어렵고 힘겹게 만들어 지켜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 또 그것들을 지켜내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다. 그 어느 민족, 어느 누구도 이처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색깔로 조리 기구를 구분하고 있는 유대인들
파랑=유제품, 빨강=육류, 초록=그 밖의 식품

랍비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혀 어길 수 없도록 두터운 울타리를 겹겹이 치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까 점점 더 본질에서 멀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켜 불순종하게 만드는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였다. 언제나 본질에 접근하셨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난맥상을 간파하셨고, 지적하셨으며, 결국 유대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식기세척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2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힐난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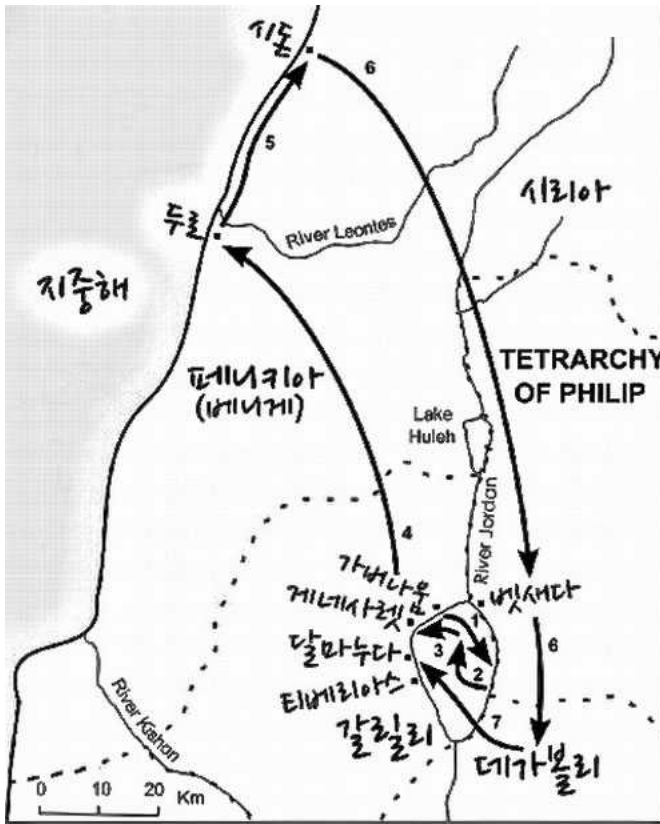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희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겉도 중요하지만, 속이 더 중요하다. 겉이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속이 깨끗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다. 속이 깨끗하고, 의(義)와 인(仁)과 신(信)으로 속이 꽉 차야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 속이 무덤 속처럼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겉만 페인트칠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행위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책망하셨다(막 7:7-8).

24.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6)(막 7:24-37)

이방인의 구원문제



예수님께서 타브가에서 오천 명을 먹이신 직후 벡새다로(1) 향하던 제자들이 북동쪽에 밀려 고생하자 물 위를 걸어가(2) 그들을 게네사렛으로 인도하셨고(3),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후(4), 시돈을 거쳐(5) 데가볼리에서 사천 명을 먹이신 다음(6) 달마누다로 돌아오신 여정(7)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6장 44절에 광풍진압,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치유,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소개된 직후 6장 45절부터 8장 10절에 물위를 걸으심,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치유,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소개되었다. 이 기적들은 앞서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위

해서 배풀어진 기적들의 짝들로써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배풀어진 것들이다.

예수님은 게네사렛을 떠나서 64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금의 레바논인 페니키아로 이동하셨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셨으나 숨길 수 없게 되었다”(24절). 예수님의 명성과 소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수로보니게의 이방인 여성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26절). “수로보니게”(Syrophenicia)에서 “수로”는 시리아(Syria), “보니게”는 페니키아(Phoenicia)란 뜻이다.

예수님의 ‘자녀와 개’ 비유는 아버지의 맏아들이 동생 탕자에게 보인 태도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 갖는 잘못된 태도를 꼬집으신 것이다. “개”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낮춰 부른 욕이었다. 이 욕은 유대인들의 배타적 선민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27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로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유대인들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둘째는 이 이방인 여인에게 자비를 입을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28절)는 여인의 답변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만한 믿음과 절실함이 있다는 표시였다. 그리고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린 것은 이방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한 것일 수 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여인이 어린 딸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귀신한테서 놓임 받게 하려는 절실함과 주님의 자비를 입을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회년의 축복을 맞이할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수로보니게 지역의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처럼 믿음을 지닌 이방인들일 수 있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다.

귀가 열린다는 것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 없는 두 개의 신체장애자(남성) 치유 기적이 있다. 한 사람은 귀먹고 어눌한 병어리였고(7:31-37절), 또 한 사람은 맹인(8:22-26)이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벧새다의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중하셨다. “너희가...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치 못하느냐?...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8:17-21). 이 꾸중은 제자들이 정말로 무지해서였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을 귀먹고 어눌한 병어리와 같고, 앞 못 보는 장님과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반면에 이 두 개의 기적이 있고난 후에는 베드로



예수님의 '자녀와 개' 비유는 땅아들의 탕자에 대한 태도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꼬집으신 것이다.

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게 된 것은 영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구원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귀먹고 어눌했던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된 사람들이다. 열림(에바다)의 복을 받아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구원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벧새다의 소경처럼 앞을 못 보았던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다. 열림(에바다)의 복을 받아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마음이 둔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자들이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귀가 열리는 것이고, 혀가 풀리는 것이며, 눈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복음에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에 감춰진 무한한 가치와 보물에 대해서 듣고 보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혀가 풀린다는 것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기적은 ‘에바다’란 아람어를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기적이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꽂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Ephphatha!) 곧 “열리라”(Be opened!)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장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여기서 핵심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
'에비다'(열리라)한 아람어를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기적이다.

구절은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다.”이다. ‘열리고,’ ‘풀리고,’ ‘말이 분명했다’이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해지는 치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결 받아야 할 숙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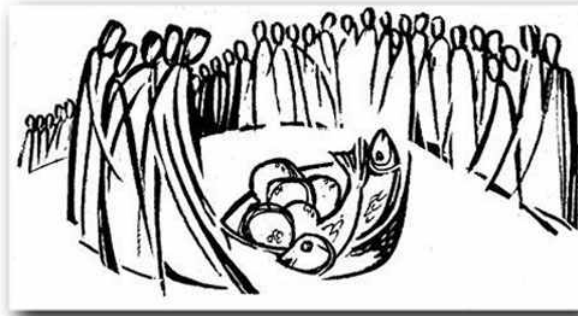
귀먹고 어눌한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것의 의미는 말이 분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듣고 보고 말하던 것을 명확하게 듣고 밝히 보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 분명하게 될 때,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귀먹고 어눌한 사람의 혀가 풀린 것은 상황의 반전을 뜻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다. 어둠이 빛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며,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이 캄캄하고, 귀가 막히고, 목이 메고, 가슴이 답답할 때,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봐야한다. 모세는 나이 들어 모래바람 휘몰아치는 광야에서 쓸쓸히 양을 치던 사람이었다. 그의 삶에 상황반전이 일어난 것은 그가 양을 치던 호렙산에서 눈이 열려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비롯되었다. 반면에 유다왕국이 세 차례나 바벨론제국의 침략을 받아 재산을 몰수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하며, 백성이 유배당하는 비극을 맞게 된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았고 눈이 멀어 국제정치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찍혀 감당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민족의 살길과 나아갈 길을 선포하였다. 매 맞고 갇히고 매국노로 낙인찍힌 고독하고 고통스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었고, 민족을 향해서 입을 열었던 예언자였다. 이 같은 점에서 모세, 엘리야, 엘리사 및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25.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7)(막 8:1-13)

이방인 구원의 표적 칠병이어



떡(떡어리 배낭)은 생명(영생)의 양식을
물고기(IXTHUS)는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일 수 있다.

1절의 “그 무
렵”은 귀먹고 어
눌한 사람을 고
치실 때를 말한
다. 이때는 두로
와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에 머물
고 계셨던 때이
다. 두로와 시돈
은 지금의 레바

논에 해당되는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한 이방인 도시들이고, 데
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남동편과 요단강 동편의 이방인 지역이
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것,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
치신 것, 사천 명을 먹이신 것은 모두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들에게 베풀어진 기적들이었다. 이 기적들은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풀어졌던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치유, 오천 명을 먹이신 표적과 이방인지역 사역을 끝내고 벳새
다에 가셔서 장님을 고치신 기적의 짝들으로써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베풀어진 것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2절에서 “내가 무리를 붙잡히 여
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양
식이 없는 것을 붙잡히 여기셨다는 뜻이다. 또 예수님은 3절에
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고 하셨다. 영적으로 볼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굶주려있었다는 내용이다. 오병이어 표적 때 단 하루 낮 시간동안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유대인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가까운 곳에 마을들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3일 밤낮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광야였기 때문에 음식을 살만한 마을이 가까운 곳에 없었다.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하고 빈곤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떡(덩어리 빵) 다섯 개는 유대인들의 토라 곧 모세오경을 상징한 것일 수 있다. 오경은 하나님의 613개 계명이 담긴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떡(덩어리 빵) 일곱 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한 것일 수 있다. 신약성서는 유대인들이 좋아한 숫자 다섯(5), 열(10) 또는 열둘(12)보다는 숫자 둘(2), 셋(3), 일곱(7) 혹은 여덟(8)을 선호하였다. 특히 일곱을 완전수로 여겨 선호하였다. 숫자 오천(5x1000)은 오경(토라)의 아들들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한 것일 수 있다. 반면에 숫자 사천(4x1000)은 사망 또는 열방을 상징한 것일 수 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던(6:34) 반면, 이방인을 생명의 양식이 없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8:2-3). 먹고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kophinos)는 이스라엘의 열두 부족을, 일곱 광주리(spyridas)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한 것일 수 있다. 실제적 사건들을 상징으로 푸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함축된 의미는 중요한 해석의 열쇠일 수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님이 삭막한 유대사막에서 받은 마귀의 시험은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에게 바란 세 가지 희망 곧 빵문제 해결, 추락한 이스라엘의 명예, 주권의 회복이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요구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내세운 첫 번째 조건이었다. 제2출애굽사건을 주도할 그리스도는 모



세가 제1출애굽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민중에게 만나를 내려 먹게 할 수 있어야 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천 명을 먹이신 표적과 사천 명을 먹이신 표적에 대한 반응

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민중은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 혁명을 꾀하려고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고 하였다. 예수님이 이 두 개의 급식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당신의 사명을 이루실 때, 대속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때, 부활 승천하여 하늘보좌영광을 받으실 때가 임박하였기 때문이었다.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명백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힌 표적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요구하는 세 가지 희망, 곧 언젠가는 다시금 깨지고 낡아지고 무너지고 말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빵문제 해결, 이스라엘의 추락한 명예와 주권의 회복을 위한 세속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셨다.

예수님에게 그토록 열광했던 민중조차 불과 수개월 뒤에 그리스도를 제거하려는 악한 자들의 편에 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세속적 희망을 거부하셨기 때문이다.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는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힐난하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한 것과 동일하고, 12절에서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

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하신 것과 같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미 두 번에 걸쳐 급식기적을 펼쳐 보이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는 말씀을 배치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민중의 선동가요 혁명을 기획한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한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마 12:39, 16:4)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이시지 않고, 13절에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고독한 싸움

침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유대교 신(神)의 이미지는 아버지였다. 그것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마 3:7)고 외



친 것처럼, 율법적이고 준엄한 엄부(嚴父)의 이미지였다. 반면에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신의 이미지는 어머니였다. 고단한 민중에게 필요한 것은 사해 언덕의 유대사막과 같은 삭막함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언덕의 푸름과 같은 것이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3-4).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민중에게 들려준 말씀들은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과와 같은 것이었다.

예수님이 갈등했던 싸움은 세속적 욕망과의 싸움이였다. 이 싸움에서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노력은 끊임 없는 기도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민중이 끈질기게 자기를 찾는 것이 세속적 욕망 때문이란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신을 깨우쳐 주려했지만, 결국 그들은 배신하였다. 복음서는 민중이 예수님한테서 사랑의 중요성을 배우려하기보다는 표적만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슬픔에 빠지게 했다고 전한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 4:48)고 한 말씀이 그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현실에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사랑은 대개의 경우 현실에 무력하고 직접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상처 입은 민중은 현실에 쓸모 있는 것만을 원했다.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것만을 원했다. 병든 자들은 병 낫기만을 바랐고, 굶주린 자들은 먹을 것만을 바랐고, 억압에 눌린 자들은 해방만을 바랐다. 민중이 바란 것은 기적뿐이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는 복음서 기록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슬픔과 질병과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신 반면, 기적을 구하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자들과는 대립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현실에 필요한 기적만을 구하지만, 정작 그들이 겪는 가장 큰 불행은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자가 없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밝힌 것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기적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

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하셨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셨으며, 최후에는 그들의 대속(代贖)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26.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8)(막 8:14-26)

신앙과 헌신의 문제



바리새인
들은 오천
명과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후에
도 예수님께
게 시비를
걸며 시험하
려고 “하늘
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

이라고 요구하였다. 먹을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빵을 주고, 병 고침을 구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지만, 다수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및 정치지도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음모를 꾸몄다.

참된 신앙과 헌신은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데서 비롯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만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바르게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복음서가 그런 사람을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로 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6-8장을 보면, 오천 명을 먹이심, 율법과 전통에 매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제자들의 무지가 차례대로 소개된 다음에 귀먹고 어눌한 병어리가 고침을 받아 말이 분명하게 되고, 사천 명을 먹이심,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경고, 제자들의 무지가

차례대로 소개된 다음에 벧새다의 장님이 고침을 받아 만물을 밝히 보게 된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소개된다. 귀먹고 어눌했던 병어리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듯이, 장님이 눈을 떠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듯이, 영의 귀와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빵 문제와 같은 육신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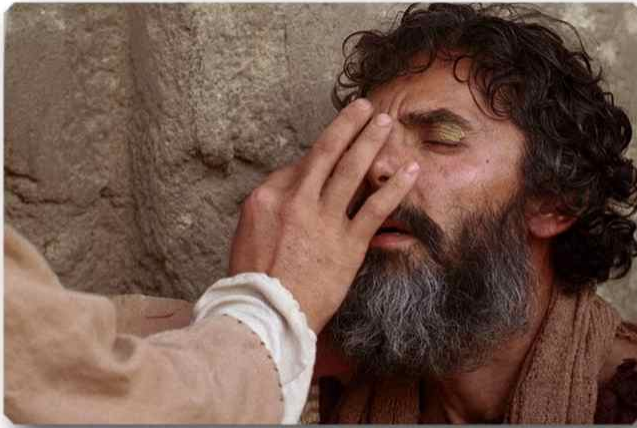
따라서 영적으로 귀먹고 어눌한 병어리와 벧새다의 장님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빵이 없음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의 본보기이며, 예수님이 아무리 큰 능력들을 그들 앞에서 베풀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자들이다. 그래서 마가는 두 개의 급식기적과 두 개의 장애자 치유기적 사이에 사람들의 무지와 깨닫지 못함을 배치하였던 것이다. 영의 귀와 눈이 열리고 혀가 풀려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영의 귀와 눈이 열리고 혀가 풀려야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장님의 눈에 침을 뱉고 첫 번 안수하신 후에 장님에게 일어난 변화는 사람들을 나무로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고 세상의 일인 빵문제 해결과 추락한 명예와 빼앗긴 주권을 회복할 제2모세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다시 안수하신 후에 일어난 변화는 만물을 밝히 보는 수준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의 수준을 말한 것일 수 있다.

빵과 신앙의 문제

사람들의 관심은 신앙문제보다는 온통 빵문제에 쫓혀있다.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내린 분명한 표적을 보고서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표적을 보려는데 있지 않고, 혁명을 꾀하는 사람들을 흥분시켜 예수님을 반역자나 신성모독자로 몰아가



려는 속셈
곧 악한 누
룩에서 나온
술책이었다.

이에 예수
님은 마음속
으로 깊이
탄식하시면
서 제자들에
게 15절에서
“삼가 바리

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빵을 챙겨오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신 것으로 오해하여 세상의 일인 빵이 없음을 걱정하였다. 제자들은 그간에 예수님이 베푼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지만, 세상의 일에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혀가 꼬이고 우둔하게 되어 기억하지 못하였다.

한편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유대인의 왕으로 삼아 로마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평가하셨다(요 6:26).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서주기를 바란 것은 열심당원들의 희망만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가 죽이려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희망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빵문제에서 비롯된 우둔한 행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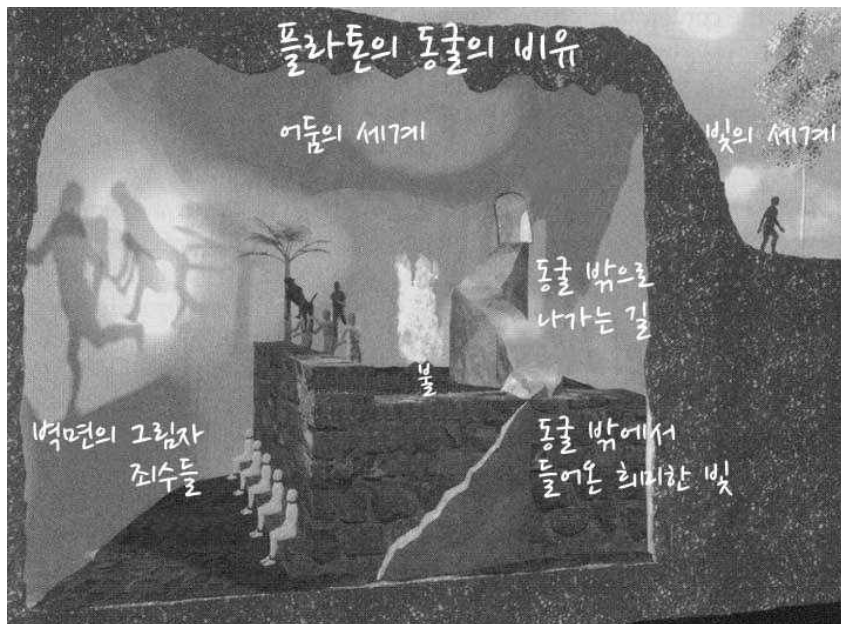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요 6:27)고 하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요 6:40)이라고 하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요

6:47)고 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보 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빵문제 해결과 이스라엘의 추 락한 명예와 빼앗긴 주권의 회복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리 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 이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 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닐런지도 모른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기대하 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의 먹고 입고 잠자 는 의식주만큼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문제

벧새다의 소경이 눈을 뜬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눈을 뜨고자 하는 열망과 예수님이 자신에게 빛을 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둘째, 눈을 뜨면 흑암에서 벗어나 만물을 밝히 보게 된다. 아무 것도 볼 수 없던 소경이 눈을 뜨면 장엄하고 아름다운 빛의 세계를 보게 된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처럼, 어둠 속 동굴에 갇혀 있던 죄수가 불빛이 만들어낸 그림자로만 세상을 파악하다가 자기를 묶고 있는 족쇄를 풀어헤치고, 자기를 가두는 동굴을 탈출하여 입구로 나오게 되면 빛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처럼, 눈을 뜨면 무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만나는 된다.

셋째, 눈을 뜨면, 본인에게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넷째, 눈을 뜨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일, 곧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일에 헌신하게 된다.

다섯째, 빛의 세계로 빠져나온 사람은 이 놀라운 지식을 동굴 안에 묶여있는 동료들에게 가르칠 긴급성을 느낀다.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빛의 세계를 알게 된 사람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동굴밖에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동굴 속 죄수들에게 전한다. 그는 그들이 족쇄에 묶여 있고, 그들과 조상들이 보고 살아온 벽면의 움직임들은 실체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본 적이 없는 실체들과 불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죄수들은 그가 미쳤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그의 시력이 엉망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가 죄수들 뒤에 죄수들이 결코 본 적이 없는 불빛과 실체들이 있다고 우기는 것은 그가 진리에서 멀어졌거나 귀신에 들려서 허튼소리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만약 그가 지속적으로 죄수들을 해방시키려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그가 죄수들에게 살해되고 말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빛의 증거자 침례 요한과 참 빛 예수님도 어둠의

자녀들에게 살해된 것을 보아 소크라테스의 예상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은, 마치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듯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편견은 자주 논쟁적이며, 반감으로 일관된다.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들과 소경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셨다.

27. 희망이신 예수님의 신분 공개(9)(막 8:27-38)

빌립보 가이사랴(Caesarea Philippi)



바울시대의 인물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빌립보 가이사랴의 궁전터(위)
판(Pan) 신전터, 동굴 속 깊은 샘, 다수의 신들을 부조한 암벽의 벽감들(아래)

빌립보 가이사라는 판(Pan) 신전을 비롯한 다수의 신들을 위한 신당들이 세워졌던 고대 로마도시로써 골란고원 최북단, 갈릴리 호수에서 4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혈몬산 남서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분봉왕 빌립이 주전 3년에 이곳에 도시를 세웠고, 주후 14년에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해 ‘가이사랴’라고 명명하였다. 주후 61년에는 아그립바 2세가 황제 네로를 기리기 위해 ‘네로니아스’(Neronias, AD 61-68)라고 명명하였다. 오늘날에는 아랍어로 ‘바니아스’(Banias) 혹은 헬라어로 ‘파네아스’(Paneas)로 불리고 있는데, 깊은 연못을 가진 동굴에 잇대어 세워졌던 판(Pan) 신전에서 유래되었다. 오늘날까지 신전 터와 아그립바 2세 왕의 궁전 터가 남아있다.

판(Pan)은 거친 자연, 목동, 양떼, 염소 떼의 신으로써 제우스가 님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머리에 염소 뿔이 달린 모습 이어서 잠든 사람에게 악몽을 불러넣고, 나그네에게 공포를 준다. 영어단어 panic(공황)이 그의 이름에서 나왔다.

판(Pan) 신전은 암반 산에 깊은 연못을 가진 동굴에 잇대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동굴 연못의 물은 요단강으로 흐른다. 이 동굴은 음부의 출입구로 여겨졌다고 하며, 암반 벽에는 판, 에코, 헤르메스 등의 신들을 부조한 다섯 개의 벽감(壁龕)이 있다. 예수님은 아마 이곳 암반 주변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gates)가 이기지 못 하리라.”(마 16:18)고 선포하셨을 것이다.

헬라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땅 속 깊은 곳에 있는 음부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해 뱃사공 카론에게 뱃삿을 주고 밑바닥이 없는 소가죽 배를 타고 통곡소리가 참혹하게 들려오는 비통의 강, 깊은 시름의 강, 분노의 불길이 치솟는 불의 강, 이생의 기억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망각의 강을 차례대로 건너면 너른 별판에 이르게 되고, 별판 오른쪽에 낙원(엘뤼시온, Elusion), 왼쪽에 지옥(타르타로스, Tartaros)이 있다고 믿었다.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주후 29-30년에 발행한 주화. 앞면 화관 속에 티베리우스(Tiberias)라 썼고, 뒷면 종려나무 사이에 EΛΓ(33년), 원둘레에 Herodou Tetrarchou(헤롯 분봉왕)이라고 썼다.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주후 30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조된 주화. 앞면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두상([Tiberiou Seb]astos Kaisar)이고, 뒷면의 글자는 주조자, 분봉왕 빌립([Philippou T]etrarchou Kitis[tou])이란 뜻이며, 원주사이의 글자 EΛΔ는 34년이란 뜻이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까지 와서
제자들에게
만 자신의
신분을 공
개하신 이
유가 무엇
이었을까?
세 가지 점
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예
수님에 관
한 소문이
헤롯 안티
파스와 예
루살렘의
정치종교지
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갈릴리에 정보원이 파견된 상태였다. 또 예수님은 오천 명과 사천 명을 먹이신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미 공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으셨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름을 시작하셔야 할 때까지는 아직 좀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민중의 추종과 바리새인들의 감시를 피하여 제자훈련에 적합한 장소인 골란고원 길을 따라 빌립보 가이사라에까지 여행하셨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로마의 황제들에게 바쳐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보셨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까”(29절)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가이사랴냐? 혹은 그리스도냐?”라는 정치적 이슈가 등장한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망의 복음은 로마인들의 귀에는 반역행위에 가까웠다. 로마제국의 명예와 합법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은 로마가 “평화를 가져오는 자”(peacemaker)란 것이었다. 로마는 신성인 황제의 후원 아래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유지하고 있었다. 신(神)으로 분향을 받았던 가이사랴의 공식 칭호들 가운데 하나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였다. 로마군대는 이 평화를 보장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속주민들은 기꺼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전쟁과 살인과 착취와 탄압의 대가로 얻어지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예수님이 제시한 평화(pax)는 세상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shalom)이었다. 이 샬롬은 하버드대의 하비 콕스 교수의 말대로, “황제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강제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써의 평화”였다. 이 평화는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심으로써 얻어진 아가페오의 평화였다. 암반 산, 음부의 출입구로 여겨진 동굴 속 깊은 연못, 황제 가이사랴와 판(Pan)에게 헌정된 신전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신 것은 의도된 것일 수 있다.

참 제자의 길

마가복음 8장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첫째는 예수님의 무리에 끼지 아니한 채 비판하는 구경꾼들이었다. 그들은 죽쇄에 묶여 지하 동굴에 갇힌 죄수의 삶을 즐기는 심미적 단계의 사람들이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구한 것



레오폴트 아그립바 2세(주후 56-95년)가 65년경에 네로의 둘째 부인 폼페아(Poppaea, 하나님 경외자)를 기념하여 주조한 가이사라 빌립보의 주화. 2주식과 6주식 신전에 풍요의 빛을 들고 있는 여성은 폼페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이 말한 표적은 민중이 원하는 생존의 빵인데, 그들은 이미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한테서 처형꺼리를 찾기 위해서 파송된 기관원들이었다.

둘째는 목자 잃은 양들처럼 갈 길을 잃은 군중이었다. 족쇄를 풀고 어둠을 탈출하여 빛으로 오르고자 애쓰는 윤리적 실존단계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목을 빼고 예수님만을 바라봤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본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고 유보했던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면, 예수님에게 등을 보일 자들이었다.

셋째는 제자들이었다. 족쇄에서 풀린 죄수가 동굴 입구 빛의 세계에 도달한 것처럼 종교적 실존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탔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좇아 교회라는 배에 올랐지만, 아직 자신을 헌신하지 못한 자들이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수난을 예고하셨을 때 강력하게 말렸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와 명예와 부를 얻고자 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길가에서

서열을 놓고 다뤘고, 요한과 야고보는 직접 예수님께 고위직을 부탁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걷고 계신 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 그들은 오로지 빵문제와 사람의 일만을 걱정하였다.

넷째는 참 제자의 길을 걷는 기독교적 실존단계에 도달한 자들이다.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자들이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들이다. 이것이 빛과 진리와 생명의 세계에 이르는 참 제자의 길이다. 예수님을 빛과 자신 사이에 두고, 예수님을 통과한 아름다운 무지갯빛을 보기도 하고, 사계절의 각기 다른 일광을 즐기는 자들이다. 이 단계에 도달한 자는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가슴에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기댄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절망을 극복한다. 이것이 발견한 것과 소유한 것의 차이요, 믿는 것과 누리는 것의 차이이다.

28. 희망이신 예수님의 수난예고(1)(막 9:1-13)

변화산 사건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막 9:1)

모세
(율법)
엘리사
(예언)
구약
(모형)
●
그리스도
(복음)
신약
(실체)
기초자
이스라엘의 족장: '토라'의 왕관, '올리브나무가지', '메노라'

마가
복음 9
장 1-13
절은 신
약 교 회
구약
(모형)
●
사도들
(복음)
신약
(실체)
건축자

마가 복음 9장 1-13절은 신약 교회의 (기독교)의 등장을 암시한 말씀이다. 또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 기

록된 첫 오순절사건과 관련되어져 있다.

첫 오순절사건이란 히브리인들이 유월절 안식일 다음날 이집트를 탈출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선민언약식을 치룬 후 토라(율법 혹은 계명)를 수여받은 날로써 구약교회(유대교)가 시작된 날의 사건을 말한다. 그리고 이 날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신약교회가 시작된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의 사건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옛새”와 “모세”라는 말은 마가복음 9장을 출애굽기 24장에 연결시키는 단어들이다.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시내산에서 엿새 동안 구름에 쌓여 얼굴에는 광채가 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출 24:1, 9, 15-16)을 상기시킨다. 또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나라 건국에 관련된 사건임을 암시한다. 출애굽기 24장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지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선민언약식을 치른 후 토라(율법 또는 계명)를 받아 구약교회인 문자적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날에 대한 기록이다. 따라서 마가복음 9장 1-13절은 곧 있을 오순절 날 성령님의 권능으로 신약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을 암시한 말씀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신 말씀은 우주종말이나 재림의 때를 언급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약성서교회시대 곧 희망의 성취를 상징하는 종말시대의 출범을 언급하신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주후 30년 5월 28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이 날로부터 모형과 그림자였던 구약교회시대가 끝나고 원형과 실체인 신약교회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율법시대가 끝나고 복음시대가 시작되었다.

모형과 그림자로써의 구약교회

모세와 엘리야는 문자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재건시킨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들이다. 이런 점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

게시록 11장 4절에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란 구절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칭한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모형과 그림자로써의 구약교회(토라와 메노라)
 복거리 장식: 유대교의 상징인 토라 두루마리 위에
 메노라와 메시아의 상징인 다윗의 별을 새겼다.
 이시다. 그리고 여호수아
 와 엘리사는 문자적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이고, 사도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이다.

에 땅과 율법을 갖게 해 주었고, 엘리야는 빼앗긴 그것들을 제자리에 되찾아 놓은 인물이다. 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사역의 지속성과 관련 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과 사도들로 이어진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의 연속성과 관련 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교회인 문자적 이스라엘의 기초자들이고, 예수님은 신약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의 기초자

가나안땅을 희망한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그 희망을 문자적으로 성취시킨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는 떠돌이노예들이었던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요단 강변까지 인도한 첫 번째 그리스도였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땅의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떠돌이노예들인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땅으로 쳐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여 떠돌이노예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준 용사였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협력하여 히브리 열두 부족에게 빵과 명예와 주권을 갖게 해준 것이다.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여호수아와 히브리인들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며, 여호수아서는 사도행전의 모형이다. 생명의 양식과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권과 하

나눔가족의 식구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야훼신앙이 붕괴되고 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인물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주전 885년에 왕이 된 오므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국제사회에 알린 강력한 왕이었지만, 아들 아합(874-853B.C.)을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동맹을 맺게 함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린 인물이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교활한 여인이었다. 아합은 이세벨의 사특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서 야훼신앙이 폐지되고 바알 신앙이 강제되었다. 이 위기의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 영웅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상황을 깔끔히 종결시킨 것은 아니다. 모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역할도 제한적이어서 여호수아처럼 마무리 작업은 엘리사가 처리하였다. 엘리사는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예후는 이세벨의 후손들과 바알 사제들을 처단하여 이스라엘에는 단 한명의 바알 사제가 남지 않게 하였다.

원형과 실체로써의 신약교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실체로서, 모세가 문자적 이스라엘에 그렇던 것처럼, 영적인 참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마가복음 9장 1-13절에 실린 변화산 사건은 모세가 율법으로 기초를 세웠던 문자적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바야흐로 참 모세이신 예수님이 복음으로 기초를 놓으실 참 이스라엘의 때가 도래하였고, 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박히셔야 할 때가 임박하였음을 암시한다.

이는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주전 586년 이후 오랜 기다림으로 희망해왔던 올람하바(Olam Ha-Ba) 곧 '옛 언약'인 율법과 짐승의 피로써 드러지는 성전예배가 예루살렘 시온에 재건되는 유대민족을 위한 '다가올 세상'이 아닌, '새



원형과 실체로서의 신약교회(복음과 십자가)

비잔틴제국의 주화(10세기말 11세기초): 예수님의 동안에 십자가 후광을, 가슴에 복음서를 새겼고,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이라고 새겼다.

언약'인 복음과 그리스도의 피로써 드러지는 영적예배로 온 열방이 민족성별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가족의 식구가 되는 '다가올 더 좋은 세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복음인 새 언약을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인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히 7:22) 또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히 8:6)라고 하였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인 것은 옛 언약인 율법에서처럼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곧 복음이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인들이 시내산에서 황소의 피 뿌림으로써 언약을 맺었던 것과는 달리 침례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새 언약 선민이 되었으므로, 이 언약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매주일 함께 모여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로써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엄수함으로써 선민의식을 공고히 하며,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하물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인 신약성서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식과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의식을 공고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29. 희망이신 예수님의 수난예고(2)(막 9:14-29)

마가복음 후반부의 기록목적(1)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한 다보(Tabar, 588m)산
예수님의 변화체험이 있었던 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마가복음 8장까지의 전반부가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과정으로써 점진적으로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혀가 풀리는 과정이었다면,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었다면, 9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왜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오랜 희망(Ha-Tikvah)을 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에 대해 점진적으로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부에서 소경이 점차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말 병어리의 혀가 풀려 만물을 밝히 보고, 말이 분명해졌을 때, 예수님을 오시기로 예언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분명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고백은 절반의 고백에 불과하다. 거기서 끝날 신앙고백이었다면, 굳이 후반부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의 후반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에 해당되는 나머지 절반에 대한 고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마가복음 9-16장까지의 기록이다. 마가복음 8장에서 끝나버리면, 유대교인 또는 여호와증인에 머물지만, 9장에서 출발하여 16장까지 계속 진행하면, 더 깊은 경지의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며, 영의 혀가 풀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하고나서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한 더 깊은 경지의 세계가 있음을 9장에서부터 보여주기 시작한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직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난예고를 하셨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수난예고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부활신앙에 기초한 기도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유월절 수난사건과 오순절 신약교회 창립에 대한 서론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과 부활 후에 신약시대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출범하게 될 것에 대한 예시적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 곧 마가복음 8장 14-29절의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세상을 바꿀 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귀신들려 악



부활신앙에 기초한 기도
(부활절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인도소녀)

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려
낼 수 없고,
생명을 살려
낼 수 없으며,
사람을 살려
낼 수 없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14 절 에 서
제자들이 서
기관들과 변

론을 하고 있었던 것은 제자들에게 아직은 유대교와 구약시대를 뛰어넘을만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18절에서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한” 것은 제자들에게 아직은 귀신들려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싸워 이길만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그 때에는, 예수님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땅에 엎드려져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만들며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져 넣는 더럽고 말 못하며 못 듣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신 것처럼,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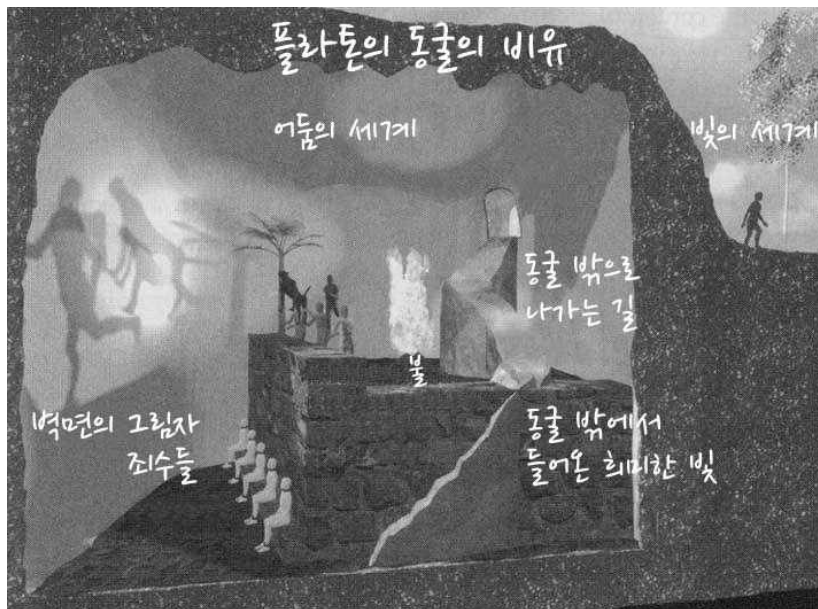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지적하셨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것은 믿음의 약함이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22절)라고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23절)고 하셨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큰소리로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24절)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은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 여기서 강조되

어야할 것은 아이를 살린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것은 기도였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28절). 그러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29절)고 대답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기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당시의 기도는 ‘베라카’(Berakhah)라는 기도문들을 낭송하는 것으로써 대표적인 것이 하루 세 번 회당에 모여 낭송하는 18개의 기도문(Shemoneh Esrei)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기도가 부활신앙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활신앙에 기초한 믿음

씨앗을 수용하는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비유에서 보듯이, 복음서에는 네 종류의 인물이 자주 등장한다. 본문에서도 귀신



들린 아이와 부친, 서기관들, 군중, 제자들이 등장한다.

귀신들린 아이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마 4:16)의 대표이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로 볼 때, 이 아이는 동굴에 갇힌 죄수에 해당된다. 귀신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려주는 것만 듣고,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인간이다. 자신의 뜻을 결정하거나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자주 거꾸러지며, 입에 거품을 물거나 이를 갈아야하는 처참한 사람이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누가 이 사람을 어둠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어 빛의 세계로 인도하겠는가?

등장인물들 가운데 서기관들은 철학자 베이컨이 말한 네 가지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족쇄에 묶인 채 동굴에 갇혀 빛의 세계를 보지 못한데서 생긴 편견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이고(동굴우상), 동굴벽면에 펼쳐진 그림자들처럼 왜곡된 논증과 학설에 의해 생긴 편견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이며(무대우상),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의 편견을 절대시하거나(종족우상) 동굴 속 죄수들의 다수여론과 편견에 끌려가는 사람들이다(시장우상).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귀신들린 아이를 해방시킬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오히려 그들은 아이와 그 아이의 가족이 겪는 고통을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생긴 당연한 결과라며 고통을 가중시키는 자들이다.

군중은 구경꾼들이다. 군중은 예수님의 복음과 표적들에 놀라움과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배에 오르는 일을 주저하거나 유보한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었으나 예수님을 일대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겉껍데기 인생, 구경꾼 인생, 자기가 없는 인생에 만족한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자들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거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자들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눈을 떠가고 귀를 열려가며 혀를 풀어나가는 배움의 과정에 있는 자들

이다. 빵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세상일을 놓아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며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연마하는 수련생들이다. 그들도 아직은 귀신의 족쇄에 묶인 아이를 해방시켜줄 부활신앙에 기초한 큰 믿음에까지 성장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머지않아 세상을 바꿔놓을 큰 능력을 충전시켜가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과연 복음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옥토인가? 우리는 과연 세상을 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30. 희망이신 예수님의 수난예고(3)(막 9:30-37)

마가복음 후반부의 기록목적(2)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름다움

마가복음 9장부터는 후반부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

렘에서 받으실 수난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8장까지의 전반부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이 갈릴리지역에서 주옥같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오실 자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하신 많은 능력과 표적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대조를 이룬다.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변화산 체험으로 시작한 것은 모세가 많은 고난 후에 구약교회인 문자적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후 죽은 몸으로 승천한 것과 엘리야가 많은 고난 후에 구약교회인 문자적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시킨 후 산 몸으로 승천한 사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많은 고난 후 신약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을 출범시킬 모퉁이돌이 되신 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형과 그림자였던 구약교회시대를 끝내고 원형과 실체인 신약교회시대를 출범시키셨고, 율법시대를 끝내고 복음시대를 출범시키셨다. 이 점 때문에 전반부에 예수님이 “보다 강한 자”

란 침례요한의 설교(1:7-8), “너는 내 아들”이란 하늘의 음성(1:11), 오실 자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예수님이 행한 많은 표적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8:29)이 실렸고, 후반부에 예수님이 받으실 “많은 고난”에 대한 예고(8:31), “너는 내 아들”이란 하늘의 음성(9:7), 거듭된 수난예고(9:31, 10:33-34)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백부장의 신앙고백(15:39)이 실렸다.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신분을 공개하는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예수님의 첫 번째 수난예고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이것은 모세의 인도로 첫 번 유월절 날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시내광야에서 첫 번 오순절 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의 내용으로 율법을 받아 출범한 문자적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명예와 경제와 주권을 되찾아 줄자가 아니라, 주후 30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 날 영적 이스라엘을 출범시키실 인류의 대속자이심을 암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침례식(홍해도하)을 통해서 받은 새 언약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그분이 세우실 영적 이스라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실 분이심을 암시한 것이다.

자기 십자가

마가복음 전반부의 마지막 장인 8장에서 벳새다 맹인이 고침을 받고 만물을 밝히 보게 된 직후에 비로소 제자들의 대표자 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 이 점에서 벳새다 맹인의 눈이 뜨인 것은 제자들의 무지의 눈이 뜨인 것과 같다. 이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그리고 그는 그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그는 나를 따르라"(막 8:34)고 말씀(상단의 헬라어)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님(ΙΣ ΧΣ)과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르는 동방정교회의 성인들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죽음의 때까지는 살아남아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셔야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좀 전에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며 항변하였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열리지 아니한 또 다른 무지의 눈이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은 세 번에 걸친 수난예고가 모두 있고난 다음에 여리고성의

또 다른 맹인 바디매오가 고침을 받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10:52)고 한 말씀 때문이다. 또 한 번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수난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경 바디매오의 눈까지 열린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과 그 일행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 차례에 걸친 수난예고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난에 대한 예고였을 뿐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겪게 될 많은 고난에 대한 예고였다.

수난예고의 목적



베드로의 발을 씻고 계신 예수님(Ford Madox Brown, 1852-56)

마가복음 9장 31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수난예고이다. 8장 31절에서 이미 한 차례 예고가 있었고, 10장 33-34절에 세 번째 예고가 나온다.

예수님의 수난예고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관계가 있다. 역설적이

게도 예수님이 오실 자 그리스도이시라는 신분노출은 곧바로 그분의 죽음문제로 이어진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민중이 기대하고 희망했던 그리스도와 다른 형태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출현을 달갑게 생각 할리 없는 가진 자들의 음모 때문이었다. 8장 30절에서와 같이 9장 30절에서도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 것은 죽음의 때인 유월절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기반으로 세우실 나라의 제자 직에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모세와 그의 제자 여호수아가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문자적 이스라엘을 출범시킬 수 있었고,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실체와 원형이셨던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영적 이스라엘을 출범시킬 수 있었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제자들이 겪을 많은 고난의 결실로 변영하게 될 것을 아셨다. 비록 당장은 당신의 제자들이 수난예고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장차 그들은 당신의 가르침대로 참 제자가 될 것을 아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 차례에 걸친 수난예고는 제자들의 세 차례에 걸친 무지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들이 장차 실천하게 될 세 차례에 걸친 제자직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된다.

첫 번째 수난예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난을 말리고 그 때문에 사단이란 소리까지 들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과연 제자들은 그렇게 하였다. 두 번째 수난예고 때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서열이 더 높은가를 놓고 서로 다투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들은 그렇게 하였다. 세 번째 수난예고를 듣고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하늘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였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누구

든지 크게 되려고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들은 남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의 나라는 출범한 지 362년 만에 전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31. 희망이신 예수님의 수난예고(4)(막 9:36-50)

제자의 길: 첫 번째



예수님을 가슴에 안은 오드리 헵번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는 말씀은 35절,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35절은 두 번째 수난예고에 따른 제자의 길에 관한 말씀인데, 37절은 그 제자의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한 첫 번째 것이다. 못 사람의 끝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못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첫 번째 말씀이다. 그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약하고 소외된 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레오 톨스토이(1828-1910)의 마음속에 세 가지 물음이 있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그리고 톨스토이는 운 좋

게도 이들 물음에 해답을 찾았다. 톨스토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모질고 거칠며 욕하는 사람의 마음에조차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로 톨스토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에 톨스토이는 사람의 가장 큰 실수가 자신을 향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사는 것임을 알았다. 불행히도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염려하며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 가족, 자기 부족, 자기 민족만을 바라보는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하였다.

톨스토이가 주목하여 본 복음서구절은 다름 아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 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도로시 데이나 테레사가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35-37, 40).

제자의 길: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38-40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유를 짜는 나사렛 마을의 연자매들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는 말씀은 35절,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35절은 두 번째 수난 예고에 따른 제자의 길에 관한 말씀인데, 38-40절은 그 제자의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한 두 번째 것이다. 못 사람의 끝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못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두 번째 말씀이다. 그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이뤄지는 사역들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독점과 배타적 선민사상이었다. 한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독점하였으니, 타민족에게 하나님이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상(민족)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약의 내용으로 율법(토라)을 지킴으로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영성에 도달하였다. 반면에 배타적 선민사상과 장자의식으로 인하여 타민족을 이방인 취급, 죄인 취급, 탕자 취급하여 멸시하고 교제를 멀리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이방인들을 멸시와 비방의 대상으로 삼았고, 섬김과 선교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첫째가 되려는 욕심을 품었으나 실제로는 과거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의 지배아

래서 처참한 삶을 영위하였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워진 여러 공동체들 중에서 첫째가 되려는 욕심, 신앙인들을 독점하려는 교파주의 때문에, 자기 교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배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앞서가는 집단이라는 이유로 뒤쳐진 집단을 배척하고, 덩치 큰 집단이라는 이유로 작은 집단을 배척하는 것은 못 사람의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비뚤어진 행위이다. 진실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되고자 하면, 예수님의 권면대로,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독점의식과 배타적 선민주의는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다. 반면에 못 사람의 끝이 되어 못 사람을 섬기는 일은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제자의 길: 세 번째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힌놈의 골짜기(게헨놈)와 '피밭'이라 불린 아겔다바에 세워진 수도원(중앙의 건물과 담장)

라 하여
물 한
그릇이
라도 주
면, 내
가 진실
로 너희
에게 이
르노니,
그가 결
코 상을
잃지 않
으리라”

는 말씀은 35절,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세 번째 것이다. 35절은 두 번째 수난예고에 따른 제자의 길에 관한 말씀인데, 41절은 그 제자의 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비록 그가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시키기보다는 연자 맷돌에 묶인 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하셨다. 또 예수님은 죄지은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다. 지옥은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뜨거운 맛을 보는 곳이라고 하셨다(42-48절).

참고로 유대교에는 교리가 따로 없다. 그 이유는 613개의 계명과 수많은 규례(구전)의 실천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약성서에는 천국과 지옥이란 개념이 없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가올 세상’(Olam Ha-Ba)이란 오실 자 ‘모쉬아크’가 장차 세울 문자적 이스라엘국가를 말한다. 구약성서에 자주 쓰인 ‘스올’(sheol)은 죽음의 세계 곧 무덤을 의미한다. 지옥이란 개념은 헬라시대에 나온 것으로써 그리스인들은 죽음의 세계인 ‘하데스’가 여러 개의 강들로 통하는 땅속 깊은 곳에 있다고 믿었다. 이곳 하데스에 낙원적인 ‘엘뤼시온’과 지옥적인 ‘타르타로스’가 있다고 믿었다.

반면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지옥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힌놈의 골짜기(게헨놈)를 말한다. 이곳에 가룟 유다가 목맨 ‘괴발’이 있었다. 힌놈의 골짜기에서는 한때 바알에게 분향하던 곳이었고, 몰렉에게 어린자녀들을 산 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치던 곳이었다(대하 28:1-4, 렘 7:31-33). 그러나 요시아 왕의 개혁(왕하 23:10)으로 이곳은 이방인의 무덤과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였다. 이후 힌놈의 골짜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상징이 되었다.

결론으로 예수님은 앞서 세 차례 언급한 제자의 길, 곧 못 사람을 섬기는 일을 49-50절에서 소금에 비교하였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다. 따라서 소금은 섬김과 살림의 상징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섬김과 살림의 일을 하지 않고 으뜸이 되려고만 하고 죽음의 일만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맛을 상실한 소금과 같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이 못 사람들 속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섬김과 살림의 일을 한다면, 서로 화목하는 살기 좋은 천국이 될 것이다.

32. 희망이신 예수님의 수난예고(5)(막 10:1-31)

제자의 길: 여성 보호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를 떠나 감람산 아래 벳바게에 도착하신 날짜는 유월절(주후 30년 4월 7일)을 꼭 일주일 앞둔 주후 30년 3월 31일 금요일이었다. 그러므로 갈릴리를 떠나 여리고 인근의 요단강 동편에 도착하신 때는 3월 하순경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추정하는 사람들은 이 무렵에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것이라 믿고 있었다. 따라서 예수님 일행이 유대지경 가까운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아 그를 제거할 구실을 찾으라는 밀명을 받고 파견된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갈릴리호수 남쪽 요단강계곡과 주변도로
사진: Ferrell Jenkins/Ferrell's Travel B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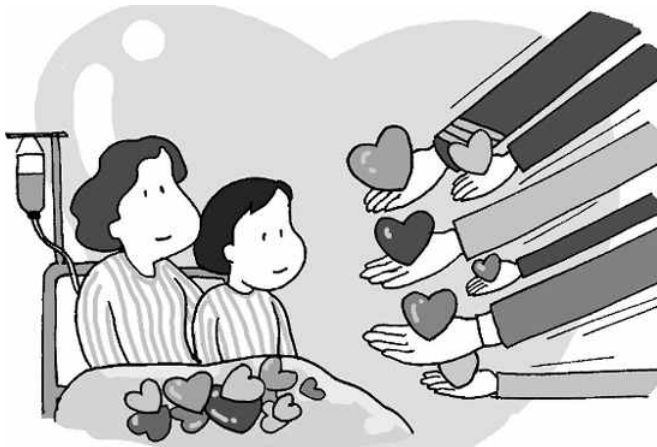
그들이 놓은 첫 번째 울무는 율법문제 가운데 이혼에 관한 것이었다. 물음의 핵심은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려도 좋겠느냐,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혼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마가는 이 물음을 통해서 여성보호가 제자의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모세가 명한 이혼증서는 가부장사회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을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유대사회에서 이혼은 대부분 아내가 남편한테서 버림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전적으로 여성들의 몫이었다. 특히 그것이 간음으로 인한 것일 때는 여성이 돌에 맞았을 수도 있고,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만일 이혼녀가 이혼증서를 지참하고 있다면, 그녀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혼도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도록 한 것은 이혼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명기 24장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열거된 곳인데, 그것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이혼법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만, 아직도 근동의 아랍권에서는 여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 하물며 모세시대에는 어떠했겠는가? 이혼증서도 없이 버림당하는 여성들이 다반사였을 당시에 이혼증서를 주라는 모세의 율법은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인정한 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마치 이혼을 허용하는 것처럼 악용되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이 깨지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었다.

제자의 길: 어린이 보호

희망의 나라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하게 버림당하여 상처 입은 여성들이 없는 곳이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남녀가



온정의 손 내밀기(복산일보, 2012년 3월 21일자)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7-8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고 하셨습니다(9절).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어진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 우상숭배와 간음을 몹시 싫어하시는 만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신다. 하나님의 사전에 이혼이란 단어는 없다. 운명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편을 드시며,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여성과 어린이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은 동일한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인간은 한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자만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결혼서약을 했으면서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마음을 줄 수가 있다. 심지어 결혼서약을 파기하고 이혼도 불사한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가 알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그가 원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잘못 알았을 수도 있다. 혹은 뭔가가 탐나서 거짓으로 서약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면, 한번 마음을 주시면, 한번 선택하시면, 한번 서약하시면, 결코 반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본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처럼, 여성과 어린이와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

량하는 일은 제자의 책무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3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여성들은 가부장이 사거나 팔수 있는 소유물에 불과하였다. 또 원칙적으로 유대인들은 13세 이상의 남성만을 이스라엘로 보았다. 그런 이유로 13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여성들은 그들의 계수에서도 빠졌다. 그들에게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뜰에 출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회당에서는 본당에 출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또 기도모임의 최소인원인 ‘민얀’(minyan)의 수에도 들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개방하신 희망의 시대는 이런 차별의 담들이 모두 허물어진 곳이다. 남녀의 차별과 연소의 차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차별, 신분의 차별, 계급의 차별까지 모두 헐어버린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14절)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16절).

제자의 길: 가난한 자를 돌봄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1885)

17-22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대표이다.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착실한 맏아들의

범주에 속한 유대인이다. 그가 부자였던 것으로 보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람의 물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였다. 그런데 그가 말한 ‘영생’과 예수님이 언급하신 ‘영생’은 그 의미가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구약의 관점에서 영생은 문자적인 것으로써 가나안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취시킬 ‘다가올 세상’(Olam Ha-Ba)으로 부른다. 반면에 신약의 관점에서 영생은 영적인 것으로써 하늘 가나안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미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의 물음에는 토라계명들을 모두 지켰으면 100점 만족이지, 여기에 무엇을 더 추가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구약에 의한 유대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다가올 세상인 ‘올람하바’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였다. 그 점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반면에 신약에 의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될 그릇이 못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참 제자의 길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임을 강조하신 것이다.

‘영생’이란 말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한 곳은 9장 43절이다. 예수님은 영생에 들어갈 제자가 걸어야 할 자기 부정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그 일이 여성을 보호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제자의 길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약하고 소외된 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하였고, 9장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는

데, 10장 21절에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 예수님은 영생과 관련해서 자기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시키기보다는 연자 맷돌에 묶인 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9:42-48).

33. 희망이신 예수님의 수난예고(6)(막 10:32-52)

예수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난예고

마가복음 전반부의 마지막 장인 8장에서 벳새다 맹인이 고침을 받고 만물을 밝히 보게 된 직후에 비로소 제자들의 대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고백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벳새다 맹인의 눈이 뜨인 것은 제자들의 무지의 눈이 뜨인 것이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은 아직 제자들에게 뜨이지 아니한 또 다른 무지의 눈이 있었다는 강한 인상을 준다. 제자들의 무지를 상징한 벳새다 맹인의 눈이 뜨였을 때 제자들의 대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분명히 보고 입으로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수난예고 때에 매번 무지한 태도를 보였다.



유대지방과 사마리아지역

사진: Gustavo Kralj/GaudiumpressImages.com

마가복음 10장에 실린 수난예고는 마지막이자 세 번째였다. 이 수난예고에도 불구하고, 야보고와 요한은 37절에서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무지한 요청을 하였다. 이 무지한 요청이 있고 나서 여리고성의 또 다른 맹인 바디매오가 고침을 받았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52절)고 하였다. 맹인 바디매오가 고침 받은 사건은 눈이 열려야 수난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세 차례에 걸친 수난예고는 예수님께서 친히 겪게 될 수난에 대한 예고였을 뿐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겪게 될 수난에 대한 예고였다.

예수님의 수난예고들은 세례 요한이 죽고 그리스도신분을 밝히신 직후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뤄졌다. 예수님이 성공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때에 대한 예수님의 자각은 매우 명확하였다. 이를 마태는 “이때로부터”(마 16:21)라고 소개하였고,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혹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10:1, 32-34)라고 하였다. 누가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눅 9:51)라고 적었고, 요한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요 13:1)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감람산 아래 벳바게에 도착하신 날짜는 유월절(주후 30년 4월 7일)을 일주일 앞둔 주후 30년 3월 31일 금요일이었다.

수난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수난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첫째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하며 붙들고 말린 것이었다. 둘째는 심히 근심한 것



이었고, 셋째는 야고보와 요한의 막후로비였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린 것과 근심한 것이 스승을 위해서였는지, 자신들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두 가지 모두 다 옳을 수 있다. 그들의 반응이 순수했는지, 불순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막후로비가 마지막 세 번째에 소개된 것을 보면,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현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들이 여리고의 맹인 바디매처럼 반드시 눈을 떠야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땅의 문제와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자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들을 잇달아 행하시자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얻게 될 명예와 권세와 재물에 점차 눈이 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수난을 말리고 그 때문에 사단이란 소릴 듣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누가 더 높으냐며 서로 다투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막후로비를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눈을 떠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여리고의 맹인 바디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말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민중이 원했던 그리스도는 붙잡혀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줄 자였다. 이 때문에 갈릴리지역에서 명성을 얻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데 성공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소식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민중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머지않아 통치자가 될 거라는 꿈에 부풀었다. 반면에 예수님은 처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처럼 발걸음이 쇠덩이를 매단 듯이 무거웠고, 머리엔 수심으로 가득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은 정말 지독히 고독하고 고통스런 것이었다. 제자들이 함께했고, 민중이 노변에서 환호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생각이 되어야 할 제자들은 명예와 권세와 재물에 눈이 멀어 상황파악을 할 수 없게 된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마음은 고무풍선처럼 허풍이 가득하였으며, 머리엔 권모술수만이 난무하였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세 번씩이나 수난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의 무지를 깨우치려 하셨다.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고침을 받음

복음서에서 제자의 길에 관한 교훈은 수난예고 다음에 나온다. 제1차 수난예고에서 주신 제자의 길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한다는 것이었고, 제2차 수난예고에서 주신 교훈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꼴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제3차 수난예고에서 주신 교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45절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

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고 하였다.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매오를 고치심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이 소경인 것을 알고 눈뜨기를 바라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필요하였다. 예수님은 눈뜨기를 소원한 바디매오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52절)고 하셨다. 눈을 뜬 바디매오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다. 이는 먼저 무지의 눈이 열려야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한다.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강조하는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에 “자기의 십자가”(19:17)라는 표현을 썼다.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특별히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마 16:24; 막 8:34; 눅 9:23)를 강조하였는데, 누가는 여기에 “날마다”란 낱말을 덧붙였고, 마가는 초대교회 성도의 한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일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했던 십자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억지로라도 짊어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였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여 오르신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언덕으로 올라간 것처럼, 기독교 신앙 자체가 죽음을 의미했던 당시의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복음서 저자들은 이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굽어지도록 설교하였다.

만일 우리가 벳새다의 맹인처럼 눈을 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게 된다. 만일 우리가 여리고의 맹인 바디매오처럼 눈을 뜬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을 위해서, 빵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과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만일 우리가 눈이 뜬다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된다.

34.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1)(막 11:1-10)

예루살렘으로의 오름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모든 활동은 예루살렘으로의 오름에 맞춰져 있었다. 이 오름은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오름, 곧 인류의 희망을 성취시키는 오름이었다. 예수님은 이 오름의 때가 찰 때까지 갈릴리지역에 계시면서 천국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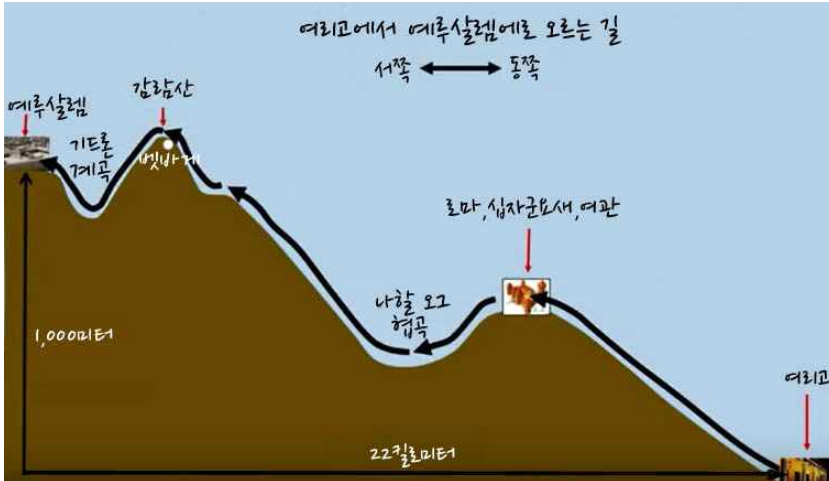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

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으며 손을 내밀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 때가 임박하자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유대지경에 인접한 요단강 동편에 도착하셨고, 여리고성에 이르러 맹인 바디매오의 눈을 고치셨다. 여기서 눈을 뜬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른다는 뜻이다. 그 길이 험한 가시밭길 혹은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을 위해서, 빵보다는 하늘양식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과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뜻이다. 눈을 뜬다는 것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속도시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고, 진리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오른다는 뜻이다. 눈을 뜬다는 것은 깨지고 낡아지고 무너질 영광을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고, 깨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오아시스인 여리고성에서 돌산인 예루살렘까지는 약 30킬로미터이고 험겨운 오르막이며 강도가 출몰하는 위험한 길이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60미터 낮은 곳에 있고,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760미터 높은 곳에 있어서 고도차가 1,020미터에 이른다. 예수님처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를 도보로 오른다면, 제주공항에서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를 도보로 오르는 것과 같다.

예수님 일행은 춘분이 막 지난 주후 30년 3월 31일 금요일 오후에 감람산 동쪽 중턱에 위치한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엄숙한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이 날은 예배와 안식으로 여독을 푸셨다. 벳바게는 ‘설익은 풋무화과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던 마을이다. 베다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가 살았던 곳으로써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려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마지막 마을이었다. 예수님으로서는 베다니가 여독을 풀고 예루살렘 입성(행진)을 준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



안식 후 첫날인 4월 2일 일요일이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고,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2절)를 타셨다. 희망성취, 곧 세상이 살고, 생명이 살고, 사람이 사는 일은 백마 탄 전쟁영웅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나귀새끼를 탄 평화의 왕이라야 성취할 수 있는 일이다. 개선행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하였다. 그들이 그토록 희망했던 다윗왕국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9-10절)를 외쳤다. ‘호산나’는 ‘호쉬아 나’로 발음되는 히브리어로써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다윗왕국의 영광을 재현시킬 그리스도를 지칭한 말이다. 추측컨대 민중의 백태 낀 눈에는 나귀새끼 탄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오랜 기간 머릿속에 그려왔던 백마 탄 전쟁영웅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기막힌 장면의 연출이었

다. 나귀새끼를 타신 예수님과 그분을 맞이하는 민중의 환호성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백마 탄 개선장군의 행렬과 겹쳐있었다. 벧새다의 맹인처럼, 여리고성의 맹인처럼 눈을 뜨지 않고서는 분명하게 볼 수 없는, 그래서 민중 대다수가 보지 못한 기막힌 장면의 연출이었다. 피를 부른 전쟁으로 얻은 일시적 승리, 폭력으로 얻은 잠정적 평화, 역대 전쟁영웅들의 개선행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된 의미의 승리, 영원한 살롬의 평화가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기막힌 장면을 분명하게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그 기막힌 장면을 분명히 보았다더라면, 불과 수일 후 그들이 빌라도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라고 외쳤겠는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는 것이었다. 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출범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더 나은 안식과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성취시켜 주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건의 예표는 출애굽사건에 있다. 종려



주일은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부활주일은 히브리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땅을 차지한 사건에 예표를 두고 있다. 또 종려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구원에, 부활주일은 육체구원에 관련되어 있다. 영혼구원에는 지상과 천상으로 나뉜다. 지상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물가에서의 기쁨이고, 천상에서는 이 세상을 하직한 직후, 곧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 후 낙원의 해변(계 15:1-4, 붉은 유리바닷가)에서 맛보는 구원의 기쁨이다. 육체구원은 죽음의 강을 건넌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 육체부활로써 이뤄질 구원의 완성이다.

종려주일사건의 예표는 홍해사건이다.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후 해변에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추며 목청껏 외친 함성이 종려주일사건의 모형이다. 홍해를 건넌 직후 시작된 40년 광야순례는 예루살렘 입성 직후 시작된 고난주간의 예표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홍해도하를 침례 받음으로, 광야생활을 교회생활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주의 만찬으로, 구름기둥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예표로 설명하였다.

지상의 종려주일사건은 낙원에서의 사건으로 이어진다. 계시록 15장 2-3절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천국에 오른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다.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홍해를 연상시킨다. 히브리민족이 홍해를 건넌 직후 해변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구원의 해변에 서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려주일사건은 예수

님 재림 때 백마 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심판 주 그리스도를 백마 타고 뒤따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큰 소리로 연호하며,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할 할렐루야성가대원들의 환호성이다. 이 재림사건은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뜻한다. 그날의 영광을 의심 없이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35.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2)(막 11:11-14)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날은 입성하신 당일인 주후 30년 4월 2일 일요일이었다. 그리고 시장기를 느끼시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신” 것은 4월 3일 월요일이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잎사귀는 새순들이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던 것은 아랍어로 ‘타크시’(taqsh)라 불리는 작은 열매들이 열리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타크시는 히브리어로 ‘테엔나’(te’enah)라 불리는 정상적인 무화과처럼 과육이 풍부하지도 않고 특별한 맛도 없지만, 시장기를 면하게 해주는데다가 누구나 따서 먹을 수 있는 열매였다.

마가복음의 큰 특징은 생생한 현장감에 있다. 예수님께서 “가



봄철에 열리는 작은 열매(taqsh)는 낙과되며,
상품성 있는 무화과(te'edah)는 여름철에 열린다.

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말씀은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증계하듯이 생생하게 설명한 것이다. 그 같은 사례가 마가복음에 많다. 예를 들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2:4),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개를 베고 주무시더니”(4:37-38),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6:39),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7:33-34)가 있다. 이처럼 마가복음의 기사들은 생생함과 현장감이 넘친다.

“무화과의 때”란 첫 수확이 시작되는 6월경을 말한다. 팔레스타인에서는 3월 하순쯤 무화과나무에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고, 1주일쯤 후면 새순 아래에 작은 열매들이 열리는데, 아랍어로 ‘타크시’(taqsh) 또는 ‘겨울무화과’라 불린다. 히브리어로 ‘테엔나’(te’enah)라 불리는 여름무화과는 타크시가 떨어지고 6주쯤 후에 열린다.

타크시는 체리 크기로 자라면 대부분 떨어져 버린다. 타크시는 맛도 없고 상품가치도 없어서 내버리는 열매지만, 농부들과 여행객들의 시장기를 면하게 해주기도 한다. 또 타크시는 무화과의 수확량을 미리 예측하게도 한다. 타크시는 테엔나의 전령과 같아서 새순이 나온 가지에 체리 크기의 타크시라 불리는 겨울무화과가 많이 열리면 테엔나라 불리는 여름무화과가 많이 열리고, 새순만 나오고 타크시가 열리지 않으면 무화과도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

무화과나무와 토라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다. 특히 무화과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이해되었다. 이런 이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자신



무화과 나무=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노트르담 대성당 입구 기둥조각)

들의 수치를 가렸다는 것에서 근거한다(창 3:7).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토라(율법)에 관한 지식을 뜻한다. 토라는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기 때문이다.

유대교에서 무화과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식된 데는 무화과나무에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이냐 혹은 불순종할 것이냐를 인간이 선택함으로써 선악이 판가름 난다는데 있다. 그것은 마치 토라 자체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라에 실린 계명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갈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뱀이 내민 열매를 받아먹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가 손을 불쑥 내민 것은 잘못된 손 내밀기였다. 그 열매를 먹어서가 아니라, 먹지 않기로 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아담과 이브는 이 잘못된 손 내밀기의 대가로 거부의 손짓과 두려움에 쌓여 웅크린 채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뱀의 유혹과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묘사한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기둥조각(1225년)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벽화를 그린 미켈란젤로도 뱀을 여성으로, 무화과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묘사하였다. 이것은 무화과의 성별을 여성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화과의 집산지인 지

중해에서는 수세기 동안 무화과를 여성성으로 보았다고 한다. 김지하 시인의 <무화과>에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다.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이 시를 해설한 다음카페 두레박국어교실은 무화과나무의 잎을 남성으로, 무화과의 열매를 여성으로 설명하였다. 무화과 열매 속에 있는 내면의 꽃이 무화과의 여성성을 묘사한다는 것이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기둥조각과 마찬가지로 미켈란젤로도 아담을 무화과 나뭇잎에 밀착해서 그렸고, 이브는 뱀으로부터 무화과 열매를 받고 있는 장면을 그렸다. 이렇듯 무화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토라의 상징이란 점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말라죽게 하신 것은 토라에 목숨을 걸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유대교를 고발하고 징계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무화과나무와 유대교

복음서들에는 구조주의 모형론이 담겨 있다. 복음서들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상반된 대립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념체계인 복음을 독자들에게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당대의 정치종교지도자들과 유대교의 율타리 법들,



토라(율법)=선악을 알게하는 지식

곧 규례와 장로들의 전통을 건강한 복음에 대립되는 병든 것으로 설명한다. 어둠 속에서 빛이 밝게 빛나듯이 유대교의 병든 상태를 지적함으로

써 기독교복음의 건강한 상태가 밝히 드러나게 한다. 따라서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나무는 토라(Torah) 또는 계명(Mitzvot)을 철저히 지킨다는 명목으로 장로의 전통 또는 율타리법(Gezeirot)이란 것을 만들어 열심히 지키지만, 열매가 없고 위선과 허례의식의 잎사귀만 풍성한 유대지도자들과 그들의 유대교를 상징한다. 이점에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은 위선이 가득하여 진실과 영성이 없던 유대지도자들과 유대교를 고발하고 징계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장점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려하는데 있었고, 문제점은 그것들의 본질보다는 의식, 의미보다는 형식, 정신보다는 문자에 치우친데 있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행동은 알맹이가 없는 겉껍데기 허례의식에 불과했고 형식에 치우친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율타리법들에 노예가 되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외적인 허례허식에 매달리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신앙심의 자만과 우월감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죄인취급하고 멸시하였다. 그들은 겉껍데기 사슬에 묶인 자신들의 현실을 눈이 있어도 직시하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했고,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였다.

유대지도자들은 계명의 불순종으로 얻은 그들의 수치심을 계명들의 율타리법들로 덮으려하였다. 그것은 마치 아담과 이브가 계명을 불순종하고 얻은 수치심을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로 덮으려했던 것과 같다. 열매가 없었던 유대지도자들이 율타리법들로 자신들의 삶을 포장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유대지도자들이 열심을 보였던 율타리법들은 계명을 상징한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였던 것이고,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풍성했던 무화과나무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유대지도자들과 유대교를 상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은 유대지도자들과 유대교를 고발하고 징계

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36.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3)(막 11:15-33)

희망성취의 방향

인간이 숙명이나 다름없는 오랜 외로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성취하는 길은 '시온에로의 오름'에 있다는 점을 복음서는 보여준다.

'시온에로의 오름'(aliyah to Zion)은 모든 유대인들의 집단무의식이자 오랜 희망(Ha-Tikvah)이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밖에서의 삶을 비정상적 상태로 간주하면서 그러한 삶을 유배생활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예루살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Ha-Tikvah)을 국가(國歌)로 부른다. "우리의 희망은 아



성전산(모리아산, 472m×297m)

나무아래 벽과 광장이 동쪽의 벽(서쪽)이고, 서쪽 벽의 높이는 광장아래로 17단, 광장위로 7단이었던 것에 주후 600년에 4단, 그리고 1866년에 13단과 1967년에 3단이 작은 돌로 덧쌓아져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황금돔 회교사원이 세워진 자리에 예루살렘성전이 있었다.
동쪽의 벽 반대편(동쪽) 계곡이 기드론이고, 계곡 위쪽이 감람산이다.

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천년을 간직한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의 오름을 ‘알리야’(aliyah)라고 부른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오름과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오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오름이었다. 예수님은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성공한 장소인 갈릴리지역을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 고문과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오르셨다. 거대한 생명의 호수를 끼고 있는 풍요로운 갈릴리지역을 버리고 더욱 거대한 죽음의 호수를 끼고 있는 유대광야지역을 향해서 오르셨다. 요단강변과 오아시스 여리고를 버리고, 돌산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칠고 힘든 오르막길을 택하셨다. 그러나 진짜 매서운 오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예수님은 수일 후면 날 카로운 채찍으로 맞아 망신창이가 되어버린 육신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언덕을 향해서 오르실 것이고, 못 박히신 후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이며, 종국에는 하늘 예루살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오르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 오름의 행진은 모두가 인간이 숙명이나 다름없는 오랜 외로움을 달래고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 사역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오름의 방향이 깨지고 낡아지고 무너지질 지상의 것, 일시적인 것, 육신의 것이 아니고, 깨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이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저자도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히 12:22) 곧 “흔들리지 않는 나라”(히 12:28)라고 하였다.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1)

주후 30년 3월 31일 금요일 오후에 베다니와 벳바게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안식일 후 첫날인 일요일에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두루 살펴보신 후에 희망성취를 위한 예비사역으로써 몇 가지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앉으시는 장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장소는 유대인들의 기도장소인 미문 안쪽 여성과 이스라엘의 뜰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었다.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 첫 번째 일이 주후 30년 4월 3일 월요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죽게 하신 것이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구약(율법)에 기초한 유대교를 상징한 것이었고, 그것은 이제 죽고, 그 대신에 열매 많은 무화과나무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열매 많은 무화과나무는 신약(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일이 같은 날인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이뤄지고 있던 부정한 상행위들을 몰아내고 이방인의 뜰을 기도하는 장소로 돌려놓으신 것이었다. 유대인들의 성전에서의 기도는 미문 안쪽 여성의 뜰이나 이스라엘의 뜰에서 '베라코트'(berakhot)라 불리는 기도문들을 낭송하는 것이었다. 또 제사장의 뜰에서 바쳐지는 희생제사도 짐승의 피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들은 머지않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신령과 진실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로 교체되어야 할 것들이었다.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주전 586년 이후 오랜 기다림으로 희망해왔던 올람하바(Olam Ha-Ba) 곧 '옛 언약'인 율법과 짐승의 피로써 드러지는 성전예배가 예루살렘 시온에 재건되는 유대민족을 위한 '다가올 세상'이 아닌, '새 언약'인 복음과 그리스도의 피로써 드러지는 영적예배로 온 열방이 민족성별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가족의 식구가 되는 '다가올 더 좋은 세상'을 의미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뤄지고 있던 부정한 상행위들을 몰아내고 이방인의 뜰을 기도하는 장소로 돌려놓으신 것은 '다가올 더 좋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일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시위하신 행위였다.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2)

4월 4일 화요일 아침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예루살렘성전의 성소출입구와 법궤(토라상자)를 새긴 유물들
 예수님시대의 유물함 | 유대혁명가 바르 코크바 (Bar Kokhba)의 주화 (주후 133-34년) | 라흐마스트리브카 하시딤의 법궤(Rachmestrivka Hasidim, Jerusalem)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22-26절)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이어 화요일에도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율법인 옛 언약을 상징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야하는 이유처럼, 율법인 옛 언약의 또 다른 상징인 “이 산”이 바다로 사라지고, 복음인 새 언약이 죽거나 사라진 자리를 새것으로 채워야했기 때문일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새것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히 7:22) 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히 8:6)라고 하였다. 누가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과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음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으며,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생애를 마치셨음을 강조하였다.

예수님께서 희망성취를 위한 예비사역으로 보여주신 세 번째 일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권위를 꺾은 것이었다. 진정한 권위는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보고 죽여 없앨 계락을 꾸몄다(18절). 이처럼 그들은 매사에 죽임을 일삼고, 계명의 본질보다는 겉껍데기에 치중했기 때문에 앞사귀만 풍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는 없고 위선만 가득하였다. 그들은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전통에 노예가 되어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일을 하였다. 배타적 선민사상과 독점의식에 빠져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소홀하였다. 반면에 예수님은 인류의 희망은 못 사람의 끝이 되어 못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성취되며, 복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37.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4)(막 12:1-17)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3)



프랑스인 화가, 제임스 티소(James Tissot, 1836-1902)가 그린 대제사장들 '아나니아와 가이파' (브뤼클린 미술관 소장)

마가복음
12장 1-12절
에 실린 포도
원 소작농부
들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희망성취를
위한 예비사
역으로 보여
주신 네 번째
일로써, 예수
님이 행하시
는 일들의 권
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며 따져 묻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모든 권위(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잠정적인 것이며, 권위를 위임받은 자는 그 권위를 일시적으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란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11:28)고 따져 묻은 것은, 마치 청지기가 주인에게 “이 집의 결정권자는 나인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러쿵저러쿵하느냐?”고 반박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질문이었다.

포도원 소작농부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못된 소작농부들은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자들을 돌려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비유에는 그들의 병든 상태가 심히 위중하여 수술을 늦출 수 없다는 뜻이 담겨있다. 또 이 비유에는 그들에게 맡겼던 정치와 종교의 청지기역할을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넘기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9-10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고한 말씀이 그 증거이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그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자들을 말한다. 또 농부들에게 농욕을 당한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그 주인의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7절)고한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한 가지는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자들이 누린 정권과 교권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두 이양되어야 할 한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그들은 정권과 교권을 위임받은 청지기들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청지기에 불과한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들이 권위(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반할 뿐 아니라 그 권위를 찬탈함으로써 그들이 일시적으로 손에 쥔 정권과 교권을 영속시키려 했던 것이다.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4)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민중의 오랜 희망이 성취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야욕은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는 말씀대로 농욕을 당하였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정권을 이방나라들에, 교권을 기독교에 1878년간이나 빼앗겼다.

하나님은 유대교에 맡겼던 야훼신앙을 빼앗아 기독교에 넘기



포도원의 소작농부들

셨다. 하나님은 유대교의 병든 상태, 곧 하나님독점, 성전독점, 권위찬탈, 배타적 선민사상 등을 더는 두고 보실 수가 없으

셨다. 유대교를 통해서는 인류의 희망을 성취하실 수가 없으셨다. 유대교는 선교의 대상인 이방인들과의 접촉과 교제를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수많은 율타리법들을 만들어 방어막을 겹겹이 쳤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타민족들의 신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한분밖에 없는 신을 독점해 버렸으니, 타민족들에게 참신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리셨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했던 예루살렘성전은 하나님독점의식과 남녀노소민족의 차별의식과 배타적 선민사상의 옴팔로스(Omphalos, 배꼽)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지성소에 가둬두고, 겹겹이 담을 쌓아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능욕당하는 치욕이 있고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성전지성소에서 해방되셨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신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히 10:9).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권을 빼앗아 이방나라에 넘겨버리셨다. 주후 66년에 유대총독 플로루스(Gessius Florus, 64-66년)가

성전금고에서 금 17달란트를 강탈할 뿐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육하였다. 격분한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주후 70년에 비극적 참패로 끝났다. 로마군이 막강한 탕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분열과 주도권 싸움도 문제였다. 패배의 대가는 너무 컸다.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노예로 팔렸거나 광산에 보내졌으며, 검투사로 등록되었다. 땅은 황폐해졌고 경작인은 사라졌다. 공회(산헤드린)는 해산되었고, 정치적 자율권마저 빼앗겼다. 일년에 반 세겔씩 내던 성전세를 로마의 주피터 신전에 바쳐야 했고,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토지세와 주둔군의 재정까지 부담해야 했다.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5)

마가복음 12장 13-17절에 인두세에 관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희망성취를 위한 예비사역으로 보여주신 다섯 번째 일로써 성(聖)과 속(俗), 즉 하나님의 나라(교회)와 세상의 나라를 구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당시 이스라엘은 세속국가 로마의 지배를



로마제국에 인두세를 바치는데 쓰인 예수님시대의 '데나리온' 앞면에 월계관을 쓴 티베리우스 황제(A.D.14-37)를 새겼고, TI [berivs] CAESAR DIVI AVGVSTI F[ilivs] AVGVSTVS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성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적었다. 뒷면에 황태후 리비아(Livia)를 평화의 여신(Pax)으로 묘사하였고, 오른손에 홀라 왼손에 명예와 신성의 상징인 올리브가지를 들렸으며, PONTIF MAXIM(초교의 제사장)이라고 적었다.

받는 신정국가였다. 그런데 신정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일지는 역사적인 교훈들로 볼 때 지극히 회의적이다. 중세기와 마

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신정국가들은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평화와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사람들의 생명을 파리 취급하듯이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聖)과 속(俗), 영(靈)과 육(肉), 즉 하나님나라(교회)와 세상나라 모두에 속한 시민들이다. 이 두 나라는 구별되며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신정국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아도 우리 몸에 둘 다 필요하듯이, 이 두 나라도 성도들의 영적 육적 삶에 모두 필요한 공간이다. 성과 속, 영과 육의 융화 없이 신정이든 세속이든 한쪽에 경도된 집단이나 국가는 빛이 어둠이 되고, 질서가 혼란이 되며, 생명이 죽음이 되게 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인두세를 바쳐야 했다. 로마가 평화를 보장해 주는 대가로 12세(혹은 14세)부터 65세까지 일 년에 1데나리온씩을 바쳤다. 열심당원(zealot)이나 단검단원(sicarii) 같은 과격한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행위는 굴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수치였다. 만일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했다면, 매국노로 몰려 민중의 몰매를 당할 일이고,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다면, 반역자로 고소당할 것이 분명한 일이었다. 따라서 세금에 관한 질문은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언덕 끌고다로 몰아가려는 음모였다. 그런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본 예수님은 명쾌한 대답으로 질문자들의 악한 의도를 부끄럽게 만드셨다. 그런데도 나중에 그들은 빌라도법정에서 예수님이 황제에게 인두세를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모함하였다(눅 23:2).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자들의 관심과 일은 온통 손에 쥔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 보수하는 데 있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들이 로마정부에 뇌물을 바쳐서 지켜온 권력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직책도 아무런 권력도 갖지 아니한 떠돌이 예언자를 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하였다. 그

러나 그 대가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참혹하게 돌아갔다.

38.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5)(막 12:18-27)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6)



라복(1882-83, 그림: Anders Zorn)

유대인 라복은 수혼결혼식이나 수혼의무포기식이 합법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수절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대인에게 '다가 올 세상'(Olam Ha-Ba)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세울 지상의 국가이다. 유대인에게 지복(至福)은 지상 가나안땅에서 누릴 안식이다. 유대인들이 영적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구약성서기록이 끝나고 100년쯤 더 지난 헬레니즘시대 때부터였다. 반면에 신약은 하늘 가나안

마가복음 12장 18-27절에 실린 부활논쟁은 예수님께서서 희망성취를 위한 예비사역으로 보여주신 여섯 번째 일로써 부활과 천국에 관한 것이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모세의 수혼법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유대교는 유대민족의 생사가 걸린 613개의 계명과 수많은 규례(구전)를 지키는 민족종교이지, 교리를 믿는 종교가 아니다. 구약성서에서 에덴은 지상낙원이고, '스올'(sheol)은 무덤에 불과하다. 구약은 지상 가나안땅에 관한 것이다.

땅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내세는 천국(낙원)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지복은 부활 후 천국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뜻한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성전 멸망과 함께 사라진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취하면서 정결의식과 제사의식을 강조한 반면, 모세오경에 없다는 이유로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다. 반면에 유대교의 기틀을 마련한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계명이 담긴 모세오경 말고도 구전((Mishniet)과 율타리법들을 정경과 동일한 권위로 취급하였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믿었다. 그렇다고 유대교에 영적세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유대교에는 13개의 믿음의 원리가 유일한 교리이다. 이것들은 영이신 하나님, 모세와 토라의 권위, 그리스도의 도래, 이스라엘과 성전회복에 관한 모세와 예언자들의 예언,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압축된다. 게다가 이들 믿음의 원리는 모두 하나님과 가나안땅에 관련된 구약의 문자적 성취를 믿으라는 내용이다.

예수님은 땅에 목숨을 거는 유대인들에게 깨지고 낱아지고 무너질 천막집 같은 가나안땅에 목숨 걸지 말고, 깨지지 않고 낱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늘 가나안땅을 사모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인간의 오랜 희망은 땅의 것, 물질적인 것,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부활과 천국의 실재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으로 입증하셨다. 첫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고(27절), 둘째는 부활한 몸이 영적이고 신령한 천사의 몸과 같아서 육신과 본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던 때처럼 결혼이 필요치 않다(25절)고 하셨다.

‘위붐’(yibbum)과 ‘하리짜’(halitza)

유대인들이 과부형수나 과부제수와 결혼하는 것을 수혼(嫂婚, Levirate)이라고 부른다. 이 수혼을 유대인들은 ‘위붐’(yibbum)이라고 부르는데 시형제란 뜻이다. 또 수혼의무포기식을 유대인들

은 ‘하리짜’(halitza 혹은 chalitzah)라 부른다. ‘위붐’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과부형수 또는 과부제수와 결혼하여 낳은 맏아들로



2012년 10월 18일 오전에 실제로 치러진 ‘하리짜’(halitza) 의식을 촬영한 것이며, 수혼 이행 의무자가 한쪽 발에 ‘하리짜’신발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 속 신발은 통상적으로 공동체가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한다. 캐나다 토론토의 ‘Bata Shoe Museum’에는 사진 속 신발과 동일한 신발들이 전시되어 있다. (신 25:5-6).

‘하리 짜’는 수혼이행의무자(goel)가 ‘위붐’을 거부하면, 과부여성이 장로들 앞에서 시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면전에 침을 뱉는 의식이다(신 25:9-10). 유대인공동체에서는 이 ‘하리짜’의식을 위해 가족신을 만들어 보관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준다.

‘위붐’은 시형제에게 수혼을 할지 혹은 말지를 결정할 선택권을 준다. 의무이행을 거부하면 불명예가 주어지고, 의무를 이행하면, 죽은 형제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위붐’의 목적이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편도 자식도 없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말과 룯의 이야기는 ‘위붐’에 관련된 유명한 사례들이다. 또 다말과 룯은 예수님의 조상들을 출산한 여성들로서 마태복음 1장에 실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유명 인사들이다.

수혼이행의무자는 죽은 형제와 아버지가 같아야한다. 죽은 형

하여금 죽은 남편의 이름을 받아 대를 잇게 함으로써 남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계명이다 (신

제에게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없어야 한다. 의무자(goel)는 형수나 제수의 남편이 죽기 이전에 태어난 형제라야 한다. 의무자나 과부나 모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라야한다. 죽은 형제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더라도, 의무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고, 한 사람하고만 ‘하리짜’의식을 치를 수 있다. 대신에 ‘위붐’이나 ‘하리짜’의식을 치른 후에는 죽은 형제의 다른 부인들도 재혼할 수 있다.

과부는 ‘하리짜’의식을 치르기 전에 다른 남성과 재혼할 수 없다. 만일 과부의 시형제들이 너무 어리면, 그들 가운데 누구든 결혼적령기에 도달할 때까지 수절해야한다. 또 만일 의무자가 행방불명이면, 과부는 그를 찾을 때까지 수절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위붐’은 젊은 과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법이다.

‘위붐’(yibbum)과 ‘하리짜’(halitza)의 문제점

비잔틴시대 이후 유대인들은 대체로 수혼보다는 수혼의무포기식을 선택해 왔다.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위붐’보다는 ‘하리짜’를 선택하고 있고, 개혁주의와 재건주의 유대인들은 아예 ‘위붐’을



유대교대사전에 실린 '하리짜'의식에 관한 삽화

폐지시켜 버렸으며, 보수주의 유대인들만 ‘위붐’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위붐’을 피하고 ‘하리짜’를 선택하는

대신에 시형제의 아들들 가운데 한 아이에게 죽은 형제의 이름을 물려받게 한다.

‘위붓’의 본래 취지는 자식 없는 과부들은 보호하려는데 있었지만, 오히려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왔다. 과부들은 자신의 재혼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남자의 결정에 맡겨야한다. 게다가 과부들은 시형제가 결혼적령기에 도달할 때까지 수절해야하므로 가임기를 넘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시댁이 며느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데 있다.

2014년 11월 10일자 <예루살렘포스트>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유대교 대법원이 ‘위붓’ 때문에 13년간 시댁과 힘겨운 싸움을 진행해온 42세의 슬로미트 라비(Shlomit Lavi)라는 여성에게 현재의 동거남과 결혼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하급심인 예루살렘의 유대교 법원이 지난 10년간 그녀에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뒤집었다.

사건의 발단은 결혼생활 1년 6개월 만에 병사한 남편의 아버지가 ‘하리짜’의식의 대가로 며느리에게 20만 세겔(5천9백만 원)을 요구한데 있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아들을 위해 써야할 치료비를 함부로 썼다고 주장하였고, 며느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항의하였다. 법원이 그들에게 타협을 권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세 차례나 가정법원에 고소하였다. 남편과 사별한지 13년이 된 지난 2014년도에 며느리는 가정법원의 중재로 시댁에 5천9만원을 지불하였고, 시댁으로부터 ‘하리짜’를 허락받았다. 그리고 7월에 며느리는 시동생이 거주하는 캐나다로 건너가 토론토의 정통주의 유대교법정에서 합법적인 ‘하리짜’를 치렀다. 그랬는데도 예루살렘의 유대교 법원은 또 다시 그녀에게 재혼을 가로막았다. 그녀가 수절해야할 기간에 다른 남자를 만나 4명의 자녀를 두었기 때문이다. 결국 슬로미트는 유대교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유대교대법원은 그해 11월 초에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슬로미트에게 재혼을 하라하였다. 상급심은 ‘하리짜’가 지체된 책임이 큰돈을 요구하며 슬로미트를 세 차례나 법정에 세운 시댁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유대교법원

은 토라의 근본취지를 살려 과부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그녀를 10년간이나 법정에 세우며 거액을 요구한 시댁의 편에 섰다.

39.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6)(막 12:28-44)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7)



마가복음 12장 28-34절에 실린 큰 계명은 예수님께서 희망성취를 위한 예비사역으로 보여주신 일곱 번째 일로써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마가는 질문자를 서기관이라고 기록한 반면, 마태는 율법사라고 적었다. 서기관은 문자적으로 성경필사자란 뜻이고,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란 뜻이지만, 호칭만 다를 뿐 하는 일은 같다. 또

마가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호의를 갖고 질문한 것처럼 기록한 반면, 마태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적었다(마 22:35). 호의를 가지고 했던 시험하려고 했던, 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자들에게 적대감을 키웠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같다.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서 받았던 인두세, 부활, 큰 계명, 그리스도의 신성과 같은 질문들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논쟁들로 추정되지만, 답변에 따라서는 자칫 반역자나 이단자로 내몰릴 소지가 있는 것들이어서 위험한 논제들이었다. 질문자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답변들은 민중이 듣기에 속이 후련하고 통쾌했을지 몰라도, 며칠 후 빌라도법정에 제출된 공소장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모독했고, 인두세를 반대한 자칭 그리스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며, 신성을 참칭(僭稱)한 중죄인이므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5절을 인용하여 ‘하나님 사랑’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답변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묻지도 않은 두 번째 큰 계명을 ‘이웃 사랑’이라고 답변하셨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이다. 이것이 계명의 정신이요 본질이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지도자들은 계명의 문자적인 적용에 집착한 나머지 계명의 정신과 본질을 놓쳐왔고, 쓸데없는 율타리 법들을 많이 만들어 계명들을 왜곡시켜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을 빙자하여 카샤룻 음식법과 같은 율타리법들을 많이 만들어 죄인과 이방인과의 교제를 차단시켜왔다.

하나님이 신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희망성취를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신령한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이다.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8)

12장 35-37절은 예수님께서서 희망성취를 위한 예비사역으로 보여주신 여덟 번째 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재성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의 선재성이란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요 1:18),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을 말한다(요 17:5).

이 문제는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주간에 행하신 일련의 희망



고라신의 유대교 회당의 모세의 자리

성취를 위한 준비사역들이 예수님이 오실 자 그리스도였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권위, 곧 신성과 선재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주후 30년 4월 2일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월요일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말라죽게 하셨으며, 예루살렘성전의 이방인 뜰에서 자행되던 부정한 상행위들을 몰아내시고, 이방인의 뜰을 기도하는 장소로 돌려놓으셨다. 이 일에 분개한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은 화요일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11:28)며 따져 물었다. 악한 포도원 소작농부들에 관한 비유는 예수님의 권위와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의 권위의 차이가 마치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의 권위와 소작농부의 권위의 차이와 같다는 점과 소작농부들이 주인의 권위를 찬탈코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코자 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이다. 포도원의 소작농부들의 비유에 이어 거론된 인두세문제, 부

활문제, 큰 계명문제가 모두 그리스도의 권위문제, 곧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재성의 문제들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건 강한 것이었다. 반면에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의 권위는 세상과 생명과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병든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8-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재성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유대교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에게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과 선재하신 성자 하나님이지라는 것을 믿지 않고, 단지 지상 가나안땅을 되찾아줄 정치군사적 영웅으로서 따름과 실천의 대상으로 여길 뿐이지, 예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희망성취를 위한 준비사역(9)



예루살렘 성전의 여성의 뜰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의
현금통이 놓여 있었다. 우측은 과부가 바쳤던 렵돈이다.



1 2 장
41-44절의
말씀은 예
수 님 께 서
희 망 성 취
를 위 한
예 비 사 역
으 로 보 여
주 신 아 홉
번 제 일 로
써 기 도 와
현 금 에 관
한 것 이 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헌금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기도에 상반된 대립관계를 보여준다. 부자들의 헌금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기도는 병든 예배를, 가난한 과부의 기도와 두 렵돈 헌금은 건강한 예배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사람들 앞에서 뽐내려하며, 상석을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40절)로서 큰 수술을 받아야할 만큼 병들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반면에 두 렵돈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온전한 헌신이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신 장소는 여성의 뜰이었다. 그곳에 나팔모양으로 생긴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9개는 성전세와 제물대신 돈으로 바치는 함이었고, 나머지 4개는 성전보수와 유지비용을 헌금하는 함이었다. 사람들이 헌금할 때 헌금의 목적과 액수를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께서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41-42절) 넣는 것을 보셨다.” 과부의 두 렵돈은 그녀가 가진 것 전부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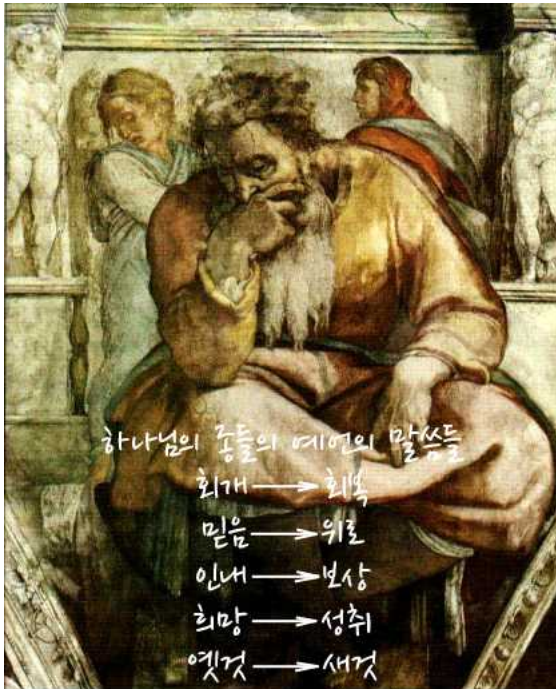
렵돈(lepton)은 유대인들의 주화로써 로마 돈 고드란트의 2분의 1,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막노동 인부가 받는 일당은 10만원가량이다. 이 돈을 예수님 때 노동자가 일당으로 받았던 한 데나리온과 비교하면, 두 렵돈의 가치는 1,563원 정도이다.

기도도 헌금도 꼭 필요한 예배의 요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을 때,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을 때이다. 만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다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거나 과부의 가산을 삼키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서기관들이 사람을 사랑하였다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뽐내려하거나 상석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과 경배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 영달의 수단

으로 삼았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가산을 삼켰다.

40.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7)(막 13:1-13)

종말의 특징



기독교 종말의 특징들 가운데 첫 번째는 종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과 보상이 성취되는 시점이란 점이고, 두 번째는 그 종말이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맛보아지고 있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그 종말이 지복(至福)의 시작점이란 점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재앙과 저주를 받는 불행의

시작점이란 점이고, 그 재앙과 저주가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맛보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말을 두려워한다.

성서는 아주 분명하게 환난과 재난과 재앙을 구별한다. 환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겪어왔고, 때로는 극심한 박해와 탄압, 곧 대환난(계 7:14)에 직면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환난은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성취와 보상을 받기 위한 연단이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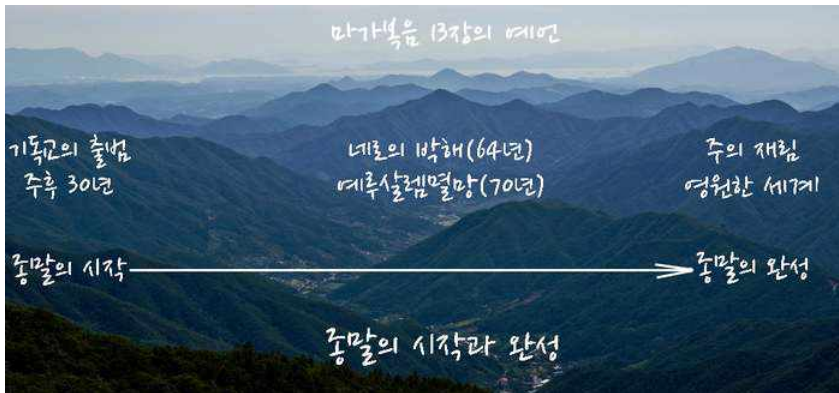
재난은 모든 피조물이 공통으로 당하는 재해이다. 재난은 환난과 재앙 모두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직면한다. 재난은 교통사고, 화재, 테러, 전쟁처럼 사람에게 의한 재해일수도 있고, 태풍, 홍수, 지진, 화산폭발, 가뭄처럼 자연재해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만일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재난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당하지 않아야 옳다. 징계 받아야 할 잘못이 없는데도 재난을 당했다면, 그 재난은 인재(人災)나 자연재해로써 피조물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재난도 겪고, 믿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도 받지만, 재앙과 저주는 받지 않는다.

재앙은 형벌과 저주에 해당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상과 축복의 대상이라면, 악한 사람들은 형벌과 저주의 대상이다. 주님의 재림은 악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완결시점이다. 이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 재앙은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맛보아지며 경험되어진다.

성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견디고 이길 것을 권면하면서 희망성취와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언에 속한다. 대표적인 예언이 주님의 재림이다. 주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성취와 보상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완결시점이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성취와 보상은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맛보아지며 경험되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야 할 이유는 환난을 견디고 이겨야 하기 때문이요, 무서운 재난과 재앙을 당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언의 목적(1)

마가복음 13장의 예언은 가까운 미래로부터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시공간에서 이뤄질 사건들, 곧 그리스도의 나라의 출범, 기독교박해, 예루살렘의 멸망, 주의 재림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뒤섞이고 압축된 권면이다. 그것은 마치 지리산노고단



에 선 사람이 광활한 산맥의 수많은 산봉우리들을 한 눈에 보는 것과 같아서 아주 멀리 있는 산봉우리조차 가깝게 느껴지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범(주후 30년)과 네로의 박해(주후 64년)와 예루살렘의 멸망(주후 70년)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미래처럼 예언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예언의 목적은 먼 미래에 성취될 시기를 밝히는데 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권면하는데 있다.

성서의 기록목적과 성서에서의 예언의 목적은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와 권면 및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중시하였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서 떠나 재난이나 재앙을 겪고 있거나 혹은 겪게 될 당신의 백성에게 회개운동을 펼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미래에 성취될 희망을 예언함으로써 회복운동을 펼쳤다. 또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겪거나 혹은 겪게 될 당신의 백성이 미래에 받을 보상을 예언함으로써 위로하였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반드시 이기라고 권면하였으며, 믿음을 이미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예언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경고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마가복음 13장의 예언은 그 목적이 미래에 있을 사건들에 있지 않고, 제자들의 훈련, 곧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야할 것을 권면하거나 경고하는데 있다. 그 증거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9절), “너희는 삼가라”(23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30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33절)는 말씀들이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듯이, 미래에 닥칠 재난을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기우(杞憂)가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다.

성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였다. 성서내용의 수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구약성서는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신약성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였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와 권면 및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활동은 회개운동이었고, 회복운동이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뿐 아니라, 더 크고 원대한 계획까지 갖고 계시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 모두의 예언이다.

예언의 목적(2)

예언의 또 다른 목적은 옛 질서를 새 질서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바벨론유배를 전후하여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예언의 핵



심은 제2모세, 곧 그리스도의 오심과 유다왕국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이들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만, 실상은

옛 언약에 기초한 유다왕국 대신에 새 언약에 기초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어설 것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행하신 사역과 말씀들은 모두 옛 질서를 새 질서로 바꾸시는 것들이었다. 그 첫 번째 일이 주후 30년 4월 3일 월요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말라죽게 하신 것이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구약(율법)에 기초한 유대교를 상징한 것이었고, 그것은 이제 죽고, 그 대신에 열매 많은 무화과나무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열매 많은 무화과나무는 신약(복음)에 기초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일이 같은 날인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이뤄지고 있던 부정한 상행위들을 몰아내고 이방인의 뜰을 기도하는 장소로 돌려놓으신 것이었다. 성전에서의 기도는 미문 안쪽 여성의 뜰이나 이스라엘의 뜰에서 ‘베라코트’(berakhot)라 불리는 기도문들을 낭송하는 것이었다. 또 제사장의 뜰에서 바쳐지는 희생 제사도 짐승의 피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들은 머지않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신령과 진실로 드리는 기독교예배로 교체되어야 할 것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이어 화요일에도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야 하는 이유처럼, 율법인 옛 언약의 또 다른 상징인 “이 산”이 바다로 사라지고, 복음인 새 언약이 사라진 자리를 새것으로 채워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새것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히 7:22) 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히 8:6)라고 하였다. 누가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과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늘 기도하셨음을 피력하였다.

포도원 소작농부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못된 소작농부들은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자들을 돌려서 말씀하신 것이다. 12장 9-10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

떨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겼던 정치와 종교의 청지기역할을 빼앗아 다른 이들, 곧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넘기겠다는 뜻이다. 건축자들은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자들이요, 버림당한 돌은 예수님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엡 2:20).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 곧 신약성서에 기초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한다.

41. 예수님의 희망성취사역(8)(막 13:14-37)

예수님의 권면, “깨어 있으라.”



1962년 9월에 제작된 이스라엘 건국 기념 메달
 전면엔 아이와 여인, 대추야자나무, 나무를 심는 남자를, 원둘레에 ISRAEL LIBERATED
 1948(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됨)이라고 새겼다. 뒷면 중앙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주후 70년에 발행한 주화 뒷면으로서 대추야자나무를 중앙에 새겼고, 우측에 슬픔에
 잠긴 유대인 여성 포로를, 좌측에 베스파시아누스가 오른손에 창을, 왼손에 호신용 단검을, 왼쪽
 발들 투구 위에 물러드는 모습을 새겼다. 원둘레에 IUDAEA CAPTA(유대 정복되다), SC
 (원로원 법령에 따라)라고 새겼다. 또 메달 둘레에 JUDAEA CAPTIVE 70(주후 70년
 유대 사로잡힘)이라고 새겼다.

마가복음 13장에 실린 예수님의 예언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한 가지는 마지막 37절에서 보듯이 “깨어 있으라”는 권면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12장에 실린 포도원 소작농부들의 비유에서 보듯이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이다. 옛 질서를 새 질서로 바꾸시겠다는 것이다. 옛 언약에 기초한 공동체를 새 언약에 기초하는 공동체로 바꾸시겠다는 것이다. 구약을 신약으로, 문자적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유대교에 맡겼던 소임을 빼앗아 기독교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교의 병든 상태, 곧 하나님독점, 성전독점, 권위찬탈, 배타적 선민사상 등을 더는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다. 유대교를 통해서 는 인류의 희망을 성취시킬 수가 없으셨다. 유대교는 선교의 대

상인 이방인들과 접촉하거나 교제할 수 없도록 수많은 울타리 법들을 만들어 겹겹이 방어막을 쳤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타민 족들의 신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9절), “너희는 삼가라”(23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30절), “주의 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33절)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신 또 다른 이유이다. 환난과 재난을 당할 때 믿음을 잃지 말라는 권면일 뿐 아니라,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예언은 부분적으로 주후 30년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범과 주후 64년에 시작된 네로의 박해 및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성취되었다. 이후로 예루살렘의 성전예배가 오늘날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다. 비록 유대교인들은 성전예배가 반드시 복원될 것이라고 굳게 믿지만, 설사 그것이 복원된다고 해도 동물의 희생제사는 더 이상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였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된 지 어언 70년이나 흘렀는데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성전이 복원되기만을 희망할 뿐, 직접 나서서 재건축하려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일이 오실 자 그리스도가 성취시킬 일이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는 성전이 예루살렘 시온산(모리아산), 곧 본래 성전이 섰던 자리에 단 하나만 세워져야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그 성전 터에 현재 이슬람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새 질서의 도래(1)

복음서 속에는 주후 30년까지 예수님시대의 사건들과 말씀들이 표면에 등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후 70년대의 교회시대 즉 저자시대의 사건들과 논쟁에 대한 신학적 해설이 깔려있다. 독



주후 71년에 주조된 유대 반란 진압 기념 주화

전면에 관을 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69-79년)를, 원둘레에 IMP CAES VESPASIANVS AVG PM TR P P P COS III(황제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대신관, 집정관 3회, 원로원 의원 3회)라고 새겼고, 뒷면은 종려나무사이에 유대인 포로 남녀를, 원둘레에 IVDEA CAPTA(유대 정복됨), SC(원로원 법령)라고 새겼다.

자들이 예수님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자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바울을 비롯한 서신서 저자들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쓴 글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을 필요가 생긴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출범과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모세오경을 읽을 때 표면에 드러난 모세시대뿐 아니라, 모세오경의 이면에 깔린 유대교신학과 유대민족사적 역사 이해까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고, 후대의 예언자들이 자기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여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을 펼친 것 또한 신약 서신서 저자들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을 펼친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예언은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을 말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의 회개와 결단과 헌신을 권면하기 위한 것이다.

신약성서 기록당시 교회들은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와 내부의 이단침투와 성장통을 앓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은 교회에 신학과 제도를 바로 세우도록 요구하였고, 교회는 이들 문제에 잘 대응함으로써 주후 30년에 창립된 지 283년만인 주후 313년에 로마로부터 합법종교로 공인받았고, 392년에는 로마의 국교로

우뚝 서게 되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리셨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했던 예루살렘성전은 하나님독점의식과 남녀노소민족의 차별의식과 배타적 선민사상의 옴팔로스(Omphalos, 배꼽)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지성소에 가둬두고, 겹겹이 담을 쌓아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능욕당하는 치욕이 있고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성전지성소에서 해방되셨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신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히 10:9).

교회가 설립된 지 한 세대가 지났을 무렵인 주후 60년대에 교회는 이단들의 침투를 받고 있었고, 로마와 예루살렘에서 세기적인 사건들이 터졌다. 이 사건들은 기독교계와 유대교계 모두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것들은 로마 시에서 벌어진 네로의 기독교박해(64-68년)와 이스라엘에서 펼쳐진 유대-로마전쟁(66-73년)이었다. 네로의 기독교박해는 로마당국차원에서 시행된 최초의 기독교박해였을 뿐 아니라, 사복음서, 베드로전서, 계시록의 기록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유대-로마전쟁은 유대인들에게 역사상 최악의 참화(慘禍)를 안긴 불행한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사건이었다.

새 질서의 도래(2)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권을 빼앗아 이방나라에 넘기셨다. 주후 66년에 유대총독 플로루스(Gessius Florus, 64-66년)가 성전금고에서 금 17달란트를 강탈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살육하였다. 격분한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주후 70년에 비극적 참패로 끝났다. 패배의 대가는 너무 컸다.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노예로 팔렸거나 광산에 보내졌으며, 검투사로 등록되었다. 땅은 황폐해졌고 경작인은 사라졌다. 공회(산헤드린)는 해산되었고, 정치적 자율권마저 빼앗겼다. 일 년에 반 세겔씩 내던 성전세를 로마의 주피터 신전에 바쳐야 했고, 팔레스



주후 79년에 주조된 유대 반란 진압 기념 주화
 전면에 월계관을 쓴 티투스 황제(79-81년)를, 원둘레에 IMP T CAESAR
 VESPASIANVS AVG(황제 티투스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고, 뒷면은 무릎이 꿇린 유대인 포로와 노획한 무기를 양손에 든 로마군인을,
 원둘레에 TR POT VIII COS VII(집정관 8회, 원로원 의원 7회)라고 새겼다.

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토지세와 주둔군의 재정까지 부담
 해야 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교회를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었던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한편 유대-로마전쟁의 참패로 이스라엘의 모든 정파와 종파들
 은 소멸되고 오직 바리새파만이 존속되었다. 이 무렵 유대교인
 들은 율법중심의 유대교 재건과 생존에 힘을 쏟아부어야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더 이상 탄압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잠재적 위협요소로 보고 회당공동체에서 그
 리스도인들을 파문시켰다. 또 그들은 사라진 성전제사를 대신해
 서 하루 세 번 기도시간에 바치는 18개의 기도문(쉐모네 에스레
 이)에 “이단을 공격함”이란 제목의 기도문을 12번째에 첨가하여
 기독교로부터 유대교를 보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
 대인들을 회당에서 추방하는 노력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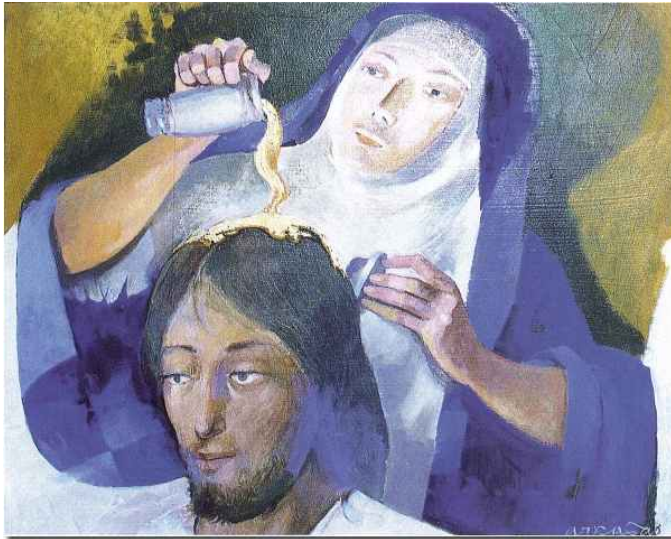
다른 한편 유대-로마전쟁의 참패로 인한 예루살렘교회의 폐쇄
 와 야브네 회의의 파문결정으로 세력이 약화된 유대인 그리스
 도인들은 이방인교회들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되었다. 주후 30
 년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이었다.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모두 유대인들

이었고, 야고보 장로가 수장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교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산으로 도망가라”(14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의 ‘펠라’와 ‘페트라’로 피신하였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루살렘교회는 더 이상 이방인 교회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유대-로마전쟁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핍박과 유대-기독교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금의 기독교가 되는 발판을 제공하였고, 동시에 기독교가 이후 300여 년간 로마당국의 박해를 받는 새로운 위기와 392년에 국교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42.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1)(막 14:1-11)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색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마가복음 14장 1-2절과 3-9절의 기록내용은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들이 아닐 수 있다.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를 부음(Arcabas, 1926년 출생)

1-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월절 날을 이틀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일 방도를 모색하였고,

그들의 계획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은 가롯 유다의 배신이었다는 암시가 담긴 말씀이다. 이 날은 주후 30년 4월 5일 수요일이었다. 복음서는 이 날에 대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3-9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한 금요일부터 머물렀던 숙소로 추정되므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 때가 유대력으로 4월 5일 수요일 저녁 한 날뿐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3-9절에 기록된 예수님 머리에 기름부음 사건은 베다니에 도착하신 금요일 저녁식사 때부터 수요일 저녁식사 때까지 어느 한 날에 있었던 사건으로써 마가는 이 도유사건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도모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병든 상태에 상반된 한 여성의 건강한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곳에 배치하였다고 여겨진다. 이 여성은, 비록 연약하지만,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1-11절에는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정치종교지도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의 수난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한 여자가 등장한다. 이들 모두는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감각을 발휘한 자들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권과 교권을 잡고 유지하는 일에서 뛰어난 감각을 발휘한 정치인들이자 종교인들이었다. 민중이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살려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자들이다. 시몬이 배설한 식사에 참석한 자들은 먹고사는 일에 남다른 수완을 갖춘 사람들이다. 한편 가롯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두뇌회전이 빠른 자로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희망을 성취시킬 자가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에 문자적인 빵과 명예와 주권을 되찾아줄 메시아가 아니란 것, 현실문제에 눈이 어둡고 무력한 예언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실망한 자였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

실제로 예수님은 혁명이나 전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군사도 모집하지 않았다. 유다는 예수님을 추종한 3년을 시간낭비였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현실문제의 해결에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믿다가 중도에 포기한 많은 사람들이 이 가

롯 유다한테서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반 면 에
값진 향유
를 준비한
여자는 예
수님이 정
치나 경제
나 종교에
무슨 큰 뜻
을 품었던
인물이라서
예 수 님 을
따랐던 것
이 아니고,
가롯 유다
처럼 당면
한 현실문

나드(Nard) 식물과 뿌리줄기에서 짙은 순진한 나드 오일 제 해 결 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로지 예수님
을 진실로 사랑하고 깊이 존경하며 신뢰할 뿐이었다. 그녀는 타
고난 감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였고, 힘을 다하여 예수
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8절). 예수님께
헌신했던 수많은 여신도들이 이 여자한테서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마가복음 14장
3-9절에서 뿐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6-13절과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도 읽을 수 있다. 마가복음이 주후 70년경, 마태복음이
70-80년 사이, 요한복음이 80-90년 사이에 각각 기록되었고, 최
소 5년에서 10년의 간격차로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의 반석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쓰였다. 마가와 마태가 옥함을 깨트려 값
비싼 나드(Nard)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여인의 이름에 침묵

한 반면에 요한은 그녀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고 이름을 밝혔다. 또 그녀의 행동에 분개한 사람을 마가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한 반면에 마태는 그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였다고 밝혔고, 요한은 “가룟 유다”였다고 이름까지 밝혔다. 이로 보건데, 여인의 행동을 책망한 자들은 다수의 제자들이었고, 그들 가운데 삼백 데나리온과 가난한 자들을 운운한 자는 가룟 유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곳이 마가와 마태는 “머리”라고 한 반면에 요한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하였다. 추정컨대, 그 여인은 향유를 먼저 예수님의 머리에 조금 붓고 나서, 나머지를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가와 마태는 머리에 부은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예수님이 기름부음을 받은 한 여자로 상징된 교회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였고, 요한은 발에 붓고 머리칼로 씻은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교회를 상징하는 한 여자의 순종과 헌신을 강조하였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감송(spikenard)으로써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Nardostachys Jatamansi)이다. 나드는 가나안땅에서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인도에서 수입하여 썼다. 기름은 뿌리줄기를 압착하여 얻는데, 한 그루에 여러 개의 뿌리줄기가 뻗는다고 한다.

옥합(玉盒)은 앨러베스터(Alabaster)라 불리는 석고(石膏)처럼 연한 돌을 깎아 만든 것으로써 불빛이 희미하게 통과되는 기름병을 뜻하며, 이집트에서 수입하여 썼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의미는 망치 같은 도구로 기름병을 깨뜨렸다는 뜻이 아니라, 기름병 입구를 밀봉한 밀랍을 뜯어냈다는 뜻이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은 나드(Nard) 기름은 순도 100퍼센트의 고급 향유로써 그 값이 “삼백 데나리온”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일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되는 큰돈이었다.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되거나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였던 것이다. 그 고귀한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였고, 대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석고처럼 연한 돌로 깎아 만든 옥합과 입구를 밀봉하는데 쓰인 밀랍.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입구를 밀봉한 밀랍을 뜯어낸 것을 말한다.

반면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삼십 세겔, 곧 120데나리온에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다. 120데나리온은 건장한 노예 한 사람값에 해당되는 돈이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은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으로 평가했던 가롯 유다는 스승을 그보다 훨씬 낮은 노예 가격에 팔아넘겼던 것이다. 여인과 비교해볼 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낮게 평가했는가를 알 수 있다.

여인은 값비싼 나드 기름이 담긴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가롯 유다는 은 삼십 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다.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기며 그분의 발에 헌신과 복종의 키스를 하였지만, 가롯 유다는 3년간이나 추종했던 스승에게 배신을 때려 가슴을 멍들게 하고 그분의 뺨에 배반의 키스를 날렸다. 여인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위로하고 그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까하고 그 기회를 찾았지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줄 수 있을까 하고 그 기회를 노렸다(10-11절). 그로 인해서 여인은 대대로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되었고, 가롯 유다는 대대로 악평을 받는 구천을 떠도는 가련한 혼령(a wondering man)이 되고 말았다.

43.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2)(막 14:10-11)

민중이 원했던 것

예수님이 사해 호수 언덕 유대사막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 바라는 유대인들의 세 가지 희망사항이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자격으로 내세운 첫 번째 조건이었다. 제2출애굽사건을 주도할 메시아는 모세가 제1출애굽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민중에게 만나를 내려 먹게 할 수 있어야 했다.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한 것이나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한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세 바칠 때 사용했던 두로(페니키아) 세겔(125BC-AD66)
 전면의 두상은 두로의 신 멜카르트(Melqart)로서 헤라클레스에 해당된다.
 뒷면의 뱀머리에 앉은 독수리는 지배자의 상징이다. 원둘레에 TYROY
 IERAS KAI ASYLOY(신성하고 범접할 수 없는 두로에 의한)이라고
 새겨졌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30세겔이 바로 이 돈이다.
 두로 세겔은 순도가 높고 무게가 7게명(출 30:13)이 요구한 것에 근접해서
 이 돈만 성전세로 받았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동전의 무게(10게라)
 에만 치중한 나머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1-27게명을 어기고 있었다.

뛰어내리라'고 말한 두 번째 시험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제국으로 이어지는 6백여 년 동안 땅바닥에 실추된 유대민족의 명예를 회복시킬 메시아인가를 증명해 보이란 뜻이었다. 민중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여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들을 다 주겠다'고 말한 세 번째 시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다윗 왕국의 권세와 영광을 천하만국 위에 세울 수 있는 메시아의 능력을 말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꿈꿨던 다윗 왕가의 복원과 예루살렘 성전예배의 재건 그리고 유대교를 국교로 하는 세계통치를 실현하려는 세속적인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수님은 알렉산더 대왕처럼 강력하고 권세 있는 세속적인 메시아가 되어 달라는 유대민중의 이 세 가지 유혹을 강하게 뿌리쳤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무력하고 쓸모없는 자로 여겨 팔아넘긴 것이나 유대민중이 예수님께 크게 실망하고 환멸을 느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서 외친 것이 다 예수님께 걸었던 희망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세속적이고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들의 희망은 수많은 인명의 피를 흘린 후에야 겨우, 그것도 일시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이고 영원하며 영적인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네 말이 옳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예수님이 대답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것은 땅의 것,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이었고,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하늘의 것,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가르치려 했던 것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은 기적을 베푸는 신(神)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신이었다. 그러나 민중은 예수님한

테서 사랑의 중요성을 배우려하기보다는 표적만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슬픔에 빠지게 했다.



마르크 샤갈의 *마지막 날의 유대인*(1923-1925년)
스위스 제네바의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

제자들 가운데는 가롯 유다만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민중의 기대를 저버린 채 분노의 불길 속에 몸을 던지려한다는 것을 알고 슬픔과 고뇌에 빠졌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정을 쫓던 여인에게 환멸을 느껴 헤어지려 해도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내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배신은 예수님께 환멸을 느낀 자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유다

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현실에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랍비여, 당신은 사랑보다 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보다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현실에 쓸모 있는 것밖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김남조 시인은 신앙에세이집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란 책에서 이렇게 썼다. “진실은 오히려 상처투성이일 때가 많다. 막 원정 가위로 다듬고 난 봄날의 정원이기보다 겨울 하상(河床)의 밑바닥을 흐르는 찬 물줄기일 수 있다. 부서지고 피 흘리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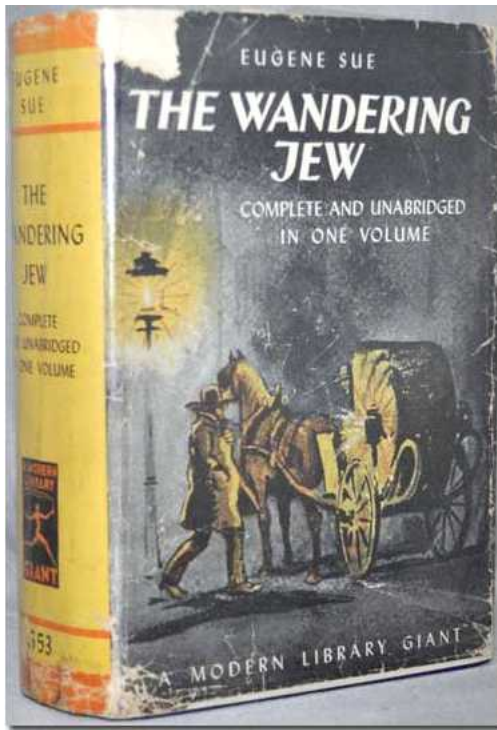
다가오는 진실, 일그러지고 반은 불에 타 버렸을 수도 있는 진실, 어차피 사람은 이것을 맞아 주어야 한다. 상처 나고 피 흘리는 진실을 사랑해야 한다. 슬픔에 대한 사랑, 고난에 대한 사랑, 이를 거쳐 가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며 어떤 생산과 창조에도 결코 다다를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생명’이란 시에서는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고 했다. 예수님은 금가고 일그러진 민중을 사랑하셨고,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추기를 원하셨으며, 그런 하나님을 민중의 친구로 소개하려고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한테서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만을 원했다. 따라서 민중은 사랑의 신을 말하는 예수님한테서 그들의 기대가 깨지고 환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민중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그랬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은, 구상 시인의 시구처럼, 홀로써 가야만 했다. 제자들의 배반과 도피 속에서 백성들의 비웃음과 돌팔매를 맞으며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홀로써 가야만 했다.

민중이 느끼는 환멸

이문열의 소설 중에 <사람의 아들>이 있다. 이 소설에 떠돌이 유대인(The Wandering Jew) 아하스 페르츠가 등장한다. 아하스 페르츠에 얽힌 전설은 13세기에 나왔으며, 저주를 받아 죽지도 못하고 세상을 유랑하는 유대민족을 의인화한 것이다.

페르츠는 이문열의 소설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이자, 이스라엘에게 빵과 명예와 주권을 되찾아줄 그리스도를 갈망하지만, 예수님한테서 환멸을 느낀 유대인들의 대표자이다.

페르츠가 돌덩이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이오. 당신은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 수 있겠소? 다시는 저들이 빵이 모자라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으시오?” 예수님이 말했다. “흙으로 돌아갈 육신은 빵으로 죽하겠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소.” 페르츠



떠돌이 유대인(Eugene Sue, 1804-57)

가 되받아쳤다. “저들이 겪어 온 그 오랜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직도 부족하단 말시오? 결핍과 갈구만이 저들 육신의 숙명이란 뜻시오?” 예수님이 말했다. “바람 앞의 겨와 같고 풀잎 위의 이슬 같은 육신의 삶이 저 영원한 참 생명에 비교될 수 있겠소?”

아하스 페르츠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이 당신의 권능을 두고 한 말씀을 믿고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예수님이 말했다.

“당신이 네게 요구한 것은 곡예사나 술사(術士)들이 할 짓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얕은 안목으로 저울질하지 마시오.” 페르츠가 탄식처럼 말했다. “그렇지만 백번의 거룩한 말씀보다 단 한 번의 어쭙잖은 기적에 더 쏠리는 것이 인간이며, 미망과 방황의 세월을 울고 신음하며 더듬어 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소?” 예수님이 말했다. “물질과 기적에 의한 믿음과 순종은 참이 아니요. 오직 말씀과 사랑 속에서 불신과 회의를 이겨낸 사람만이 하늘나라로 인도될 것시오.” 페르츠가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땅의 민중이 고대하는 것은 정신적인 메시야가 아니라 강력한 정치군사적인 메시야요. 가서 저들을 조직하고 무장시켜 옛 다윗의 영광을 재현토록 합시다. 나의 지혜와 당신의 권능을 합치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시오. 먼저 저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내고, 이 땅의 권세부터 손에 넣읍시다. 말씀

을 전하는 일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소.” 예수님이 말했다. “나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지 통치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며, 사람들의 죄와 고통을 덜어 주러 온 것이지 나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의 권세와 쾌락은 한순간이지만, 천상의 권능과 복락은 영원하오.” 이처럼 예수님이 인도하여 드리기를 원했던 나라는 일시적이고 허망하며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나라였던 것이다.

44.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3)(막 14:12-21)

유월절 축제(Pesach Seder)와 주의 만찬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18단계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서 세 덩어리의 무교병, 네 잔의 포도주, 구운 계란, 양의 정강이뼈, 소금물, 하로셋 재, 쓴나물, 채소, 손 씻을 물 및 예식서를 준비한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세 개의 무교병, 물을 희석한 낙산의 포도주, 구운 계란, 양의 정강이뼈, 소금물, 달콤한 하로셋, 쓴 나물, 채소, 손 씻을 물과 예식서를 준비한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18단계로 진행한다. 이 18단계의 유월절 식사는 모두 히브리민족의 해방과 가나안땅회복에 관련되어있다. 노예와 떠돌이였던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날의 영광을 회상하며, 고토를 잃고 노예와 떠돌이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구원과 가나안땅회복을 희망하는 축제이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

사는 계명에 전통이 더해져 발전되었다. 무교병, 쓴 나물, 불에 구운 양고기 취식, 말씀선포는 계명에 따른 것이고, 무교병 1개를 쪼개먹기, 채소를 소금물에 찍어먹기, 무교병 2개와 쓴 나물과 달콤한 하로셋으로 샌드위치 만들어먹기, 물을 희석한 녁 잔의 포도주마시기, 두 번의 할렐(Hallel)찬양, 다수의 기도문낭송, 두 번의 손 씻기, 예식서 등은 후대에 더해진 전통들이다.

어린양의 희생과 피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교병은 상황의 긴박함을, 소금물은 눈물과 땀과 흥해를, 쓴 나물은 노예생활의 비애와 슬픔을, 하로셋 반죽은 벽돌을 굽던 노예생활을, 녁 잔의 포도주는 성별하여 구원하고 구속하여 선민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출 6:6-7)을 상징한다. 이 가운데 주의 만찬의 모형은, 감사의 기도, 무교병 쪼갬, 말씀선포, 구원의 상징인 어린양의 희생, 감사의 잔, 할렐(찬양)뿐이다.

유월절 식사는 손을 씻은 후 포도주에 대한 성별의 기도와 성별의 잔을 마심으로 시작되며, 유월절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선포와 첫 번 할렐(시 113-14편)을 노래한 후에 선포의 잔을, 손을 씻고 먹는 본 식사 후에 감사의 잔을, 큰 할렐(시 115-18편 및 136편 후렴구) 후에 마시는 마지막 잔을 끝으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를 외치고 폐회한다. 유월절 식사 중에 여러 차례 기도문을 낭송한다. 유월절 식사에서 무교병은 고난과 가난을 상징하지만, 주의 만찬에서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유대교축제와 주의 만찬

유대인들의 회당기도회는 주전 586년 바벨론 유배 때 제사예배가 끊긴 이후에 생겼다. 예루살렘성전만이 합법적이라 믿었기 때문에 유배지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성경읽기, 설교, 기도문 낭송이 포함된 기도회를 발전시켰다. 회당은 주전 516년 예루살렘성전재건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교육, 판결, 기도회 장소로 발전되어 지역공동체의 중심점이 되었다. 오늘날의 유대교는 성전예배가 완전히 사라진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때 물을 희석한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누룩을 넣지 아니한 배방(Matzo) 세 개를 먹는다.

주후 70년 예루살렘멸망이후 랍비들이 토라의 613개 계명들을 보장하는 수많은 율타리 법들을 제정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유대교인들이 하루 세 번 모이는 기도회 때 빠뜨리지 않고 바치는 '쉐모네 에스레이'라 불리는 18(19)개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이 하루 세 번 바치던 성전제사를 대치한 것이다.

한편 주후 30-70년 사이의 그리스도인들은 회당기도회의 대부분, 즉 성경읽기, 설교, 기도문 낭송, 헌금 등을 기독교예배에 전용하였으나 쉐모네 에스레이를 주기도문으로 바꿨고, 성전제사를 주의 만찬으로 대신하였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구성된 회당기도회가 기독교예배에서는 1부 말씀예배와 2부 주의 만찬예배로 바꿨다.

유월절 식사는 노예와 떠돌이였던 히브리민족에게 해방과 가나안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때의 영광을 회상하며, 고토를 잃고 노예와 떠돌이가 된 민족의 해방과 가나안땅회복을 기원하는 식사로써 일 년에 한번만 갖는 큰 안식일 축제이다. 이 축제를 위해 유대인들은 상황의 긴박함을 상징하는 세 개의 무교병을, 성별하여 구원하고 구속하여 선민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출 6:6-7)을 상징하는 물을 희석한 녀 잔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양의 정강이뼈를, 눈물과 땀과 흥해를 상징하는 소금물을, 벽돌을 굽던 노예생활을 상징하는 달콤한 하로셋을, 노예생활의 비애와 슬픔을 상징하는 쓴 나물과 채소를, 구운 계란과 손 씻을 물과 예식서를 준비한다. 그리고 이 큰 안식일 축제는 매일 세 번 갖는 유대교의 회당기도회와 구별된다.

반면에 주의 만찬은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과 포도주와 예식서만을 준비하며, 말씀선포, 감사의 기도, 무교병 쪼갬, 감사의 잔, 할렐(찬양)이 포함된 예배축제를 매 주일 갖는다.

기독교축제로써의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부탁하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유언에서 비롯되었다. 초창기에 주의 만찬은 순교자 저스틴이 주후 150년경에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쓴 <변증서>에서 볼 수 있듯이 애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Walter Rane, 1949년 출생)
왼쪽 출입구에 검은게 보이는 사람이 배신자 가롯 유다의 뒷 모습이다.

이라 불린 “보통의 흠 없는 식사”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일요일이 공휴일도 아니고, 성도들 중에는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노예들도 있었으므로 1부 말씀예배는 주일 새벽에 드렸다. 새벽 예배 후 흠어졌다가 2부 주의 만찬예배를 위해서 저녁에 다시 모였다. 이 저녁집회 때 성도들은 각자의 음식을 집회소로 가져왔고 봉헌 후에 함께 나눠먹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기독교예배도 발전하였는데, 이때 애찬은 예배의식 속에 완전히 녹아내린 주의 만찬예배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예배는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예배가 되었고, 십자가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죄의 속박을 구원으로, 죽음을 부활로 바꿔놓으신 교회의 머리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도하는 기념예배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의 나라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약속 받고, 인침 받고, 보증 받으며, 선취하여 누리고 맛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원예배가 되었다. 또 기독교예배는 인간의 죄악성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세상과 물질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섬김과 관리의 삶의 자세, 사랑과 베품의 삶의 자세로 살 것을 다짐하는 헌신예배가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수직으로 하나님과 연대하고 수평으로 이웃과 연대하며,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과 연대하는 친교예배가 되었다. 이처럼 기독교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주의 만찬 곧 종말론적인 식사를 통해서 대신(對神), 대인(對人), 대물(對物)관계에서 서로 화해하고 사귀며 연대하고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친교예배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예배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사도들의 가르침”인 말씀예배로 표현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떡땀”인 주의 만찬예배로 표현된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

다”(요 1:14)는 의미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연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45.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4)(막 14:22-26)

많은 사람을 위하여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가복음 14장 22-26절은 주의 만찬 제정사이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금요일이 시작되는 밤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 식사 중에 남기신 유언이다. 이 제정사를 소개한 사람이 네 명인데, 마태와 마가의 것은 로마교회의 것으로 짐작되며, 바울과 누가의 것은 안디옥교회의 것임이 확실히 된다.

네 개의 제정사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에 실린 바울의 것이 50년대 중반의 것으로써 현장성이 가장 뛰어나고, 오래된 것이다. 그 다음이 누가의 것이고, 마태와 마가의 것은 현장정보다는 예배용으로 다듬어진 것들이다. 세 복음서 모두 이 사건이 있고서 40-50년이 지난 70-80년대에 기록되었다. 그렇지만 누가는 현장성이 뛰어난 안디옥교회 주의 만찬 제정사의 전

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의 것과는 차이점이 두드러지지만, 바울의 것과는 공통점이 매우 많다. 이들 네 개의 제정사에 나타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현장성이 높을수록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이 강조된다. 바울의 것에 2회, 누가의 것에 1회 있고, 마가와 마태의 것에는 없다. 마태와 마가에 반복령이 없는 이유는 이미 주의 만찬이 모든 교회들에서 매주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현장성이 높은 바울과 누가의 것들은 “새 언약”의 성격이 매우 강한 반면에 마태와 마가의 것들은 “새”자(字)가 빠지고 “언약의 피”만 언급되었다. 그 이유는 복음서들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유대교가 극도로 약해진 상황이었는데 다가 이미 기독교가 새로운 언약공동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성이 높은 바울과 누가의 것은 빵을 먹고 포도주잔을 들기 전에 “식후에” 또는 “저녁 먹은 후에”란 말을 쓰고 있지만, 예배용으로 다듬어진 마태와 마가의 것들에서는 배불리 먹고 마시는 애찬에서 소량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기념의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식후에” 또는 “저녁 먹은 후에”를 생략하였을 것이다.

반대로 현장성이 낮을수록 신학적 해설이 많아진다. 바울과 누가가 “너희를 위하여”라고만 한 반면에 마가의 경우 “많은 사람을 위하여”로, 마태의 경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로 진보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에서 유대민족으로, 유대민족에서 전 인류를 위한 것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또 땅에서 하늘으로, 육(肉)에서 영(靈)으로, 유한에서 영원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옛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장 1-11절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나온다. 4-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기록하고, 언약식 당일 이른 아침에 산기슭에 제단을



이것은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해리 앤더슨(Joseph Harry Anderson, 1906년 출생)

썰고,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 하였고, 소들을 잡아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으며, 살코기들은 언약식 마지막 단계인 언약의 식사 때에 사용하였다.

언약식의 중요단계 가운데 하나는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이다. 모세가 소들의 피를 받아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린 다음, 언약서인 토라를 회중에게 읽어준다. 회중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고 응답한다. 그러자 모세가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11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표자들 간에 나눈 언약의 식사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고 했다. 근동에서

는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히 하려고 단을 쌓은 후에 당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눴다.

이 시내산 언약을 구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고,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과 토라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첫째는 짐승의 피로써 맺어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땅을 조건으로 맺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옛 언약에서 땅은 문자적인 지상의 가나안땅이고, 구원개념은 이 땅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 땅의 지속적인 유지여부는 언약의 내용인 토라의 준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일찍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이 시내산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키는가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사 24:5) 때문이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렘 22:9)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렘 31:31-33).

새 언약의 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더 좋은 언약”이라 했고,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히 7:22) 또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히 8:6)라고 했다. 앞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월터 레인(Walter Rane, 1949년 출생)

언급하였듯이 옛 언약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소의 피를 계약 당사자인 회중에게 뿌림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새 언약의 강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심령에 뿌림으로써 이뤄진다는 점에 있다. 히브리서가 새 언약을 일컬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식 때 신앙고백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삶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구주로 모시고 섬기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새로운 언약을 한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된다. 이것이 신약(新約)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새 선민언약이다.

주의 만찬은 새 선민언약체결을 공고히 하려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벤전 2:9-10)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행위이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주후 97년경에 쓴 에베소서신에서 주의 만찬을 “불사(不死)의 약(藥)이요, 죽음의 해독제”라고 불렀다. 주의 만찬은 기독교예배를 영적예배로 만들뿐 아니라, 유대교예배와 차별시킨다. 예수님의 주의 만찬 제정사는 “떡을 가지사(봉헌), 축사하시고(주의 만찬기도), 떼어(분병례), 주시며(성찬배수/聖餐拜受), 가라사대(교훈)”로 압축된다. 이것이 포함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구약에서 모형을 갖는 실체적 예배이다.

46.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5)(막 14:27-52)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

유월절 만찬 직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였다. 밤이었지만, 보름달이 흰히 비취고 있어서 이동에 지장이 없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으로써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다. 거기서 예수님은 마치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셨다.



감람산의 겟세마네(기름짜는 틀) 동산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33절),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다”(34절). 예수님도 100퍼센트 인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희망성취사역을 이해하고 완성시키려고 하셨다. 그 일의 성취를 위한 죽음은 분명 두려운 것이지만, 대가를 치르고도 많이 남을 엄청난 가치가 그 속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35절). 누가에 의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고 하였다. 사

실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였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정한 뜻을 변경하실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죽음으로써 따르겠다는 결단이자 육신의 욕망과의 싸움이였다.

반면에 출세에 눈이 어둡고 귀가 먹었던 제자들은 눈앞에 닥친 암흑의 현실을 꿰뚫어 보지 못했고, 세 차례의 수난예고에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다. 오히려 제자들은 ‘암행어사 출두요!’와 같은 ‘그리스도 출두요!’를 꿈꾸고 있었고, 피곤한 육신을 가누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번민과 고통에 참여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36절)라고 세 차례 반복기도하심으로 신앙 때문에 혹은 삶의 무게 때문에 번민하고 힘들어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세 번이 갖는 의미는 확증이다. 예수님은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설 때까지 기도하셨던 것이다. 또 예수님은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37-38절)고 말씀하심으로 신앙 때문에 혹은 삶의 무게 때문에 번민하고 힘들어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 주시므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신이 잠깐 동안 인간으로 변신(계시)하는 사례는 그리스도마신화뿐 아니라 구약성서에서도 흔하게 발견된다. 그러나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30년간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 부르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가장



위대한 구원사건이다. 이 사건이 인류에게 끼친 긍정의 효과는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서양의 정신문명사이고, 바울과 같은 성인들의 일생이며,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이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성육신 사건이 절정에 달한 장소는 대권을 탈환한 정치마당이나 대승을 거둔 군사마당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름달빛을 받으며 “땅에 엎드리어” 가슴을 쥐어짜는 고뇌에 찬 기도를 올린 겔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형벌은 가혹한 것이었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이런 날이 닥칠 것을 알고 지내 온 세월이 3년이었으니까 이 날의 고통이 단순히 이 한날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날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또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고통은 이렇게 예수님한테도 피를 말리고 살이 떨리게 하는 아픔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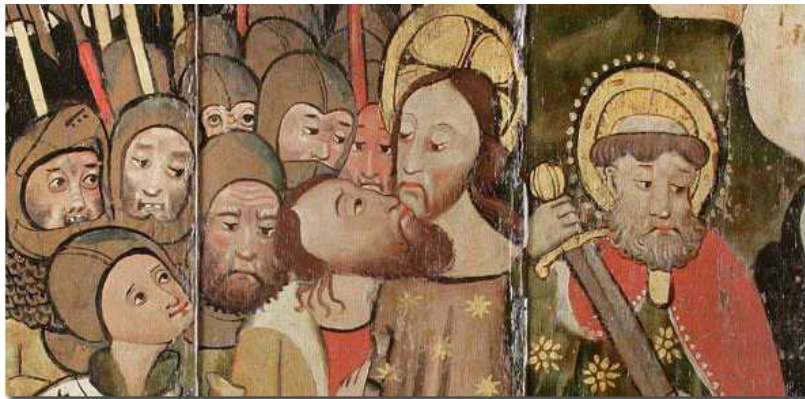
문제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겪었다는 점에서 그분이 겪었던 고통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인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대신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이 겪는 아픔을 친히 겪었던 것이고 인간이 겪는 아픔과 고뇌를 친히 대신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며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고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도록 간구한 예수님의 기도를 철저하게 외면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백미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인간의 뜻은 선한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지난 2천 년간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었다. 이런 점 때문에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지만, 현세적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다”(고후 7:10)고 하였다.

인간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고통의 문제를 오해하는 시각은 신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공리주의, 실용주의, 실증주의의 시각 때문이다. 안락함은



가룟 유다의 배신의 키스(종교개혁시대)

선이고, 고난은 악이다. 부유함은 선이고, 가난함은 악이다. 건강함은 선이고 병듦은 악이다. 강함은 선이고, 약함은 악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고통 없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게 하고, 잘살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게 한다. 심지어 고통의 존재가 하나님의 무능함과 부재함을 증명한다고 말하게 한다.

그러나 고통은 인간들의 반역을 치유하는 도구이다. 고통은 인간의 교만을 치유한다. 고통은 인간의 욕심을 치유한다. 고통은 속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게 한다. 엘리 위젤(Elie Wiesel, 1928-2016)은 유대인으로서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는 수용소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썼는데, 그의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했다. 어느 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다. 교수대의 밧줄이 내려와 목에 감기자 나이 많은 노인은 곧바로 숨이 끊어졌다. 그런데 어린 소년은 쉽게 죽지 않고 밧줄에 목이 매달린 채 20여분 이상 발버둥치는 것이었다. 이런 참혹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수용소의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탄식하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버리셨고 떠나셨단 말인가?”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헤집고 들어오는 음성이 있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저 교수대에 매달린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다.”

앤도 슈사쿠는 그의 소설 <침묵>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였다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분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통증에는 진통제나 교감신경 파괴와 같은 의학의 도움이 약이 되지만, 고통에는 사랑이 약이다. 인간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가족 친지 교우 친구 이웃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는 고통에 가장 효과가 큰 치료약이다.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고통은 줄어든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인간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이다.

47.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6)(막 14:53-72)

공개적인 신앙고백

예수님이 체포되어 심문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절명하신 사건은 유월절 한날에 다 이뤄졌다. 이날은 금요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심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절명하시기까지 박해자들 앞에서 담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체포되신 즉시 밤이 맞도록 다섯 차례, 곧 대제사장들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한 번, 공회원들 앞에서 한번, 헤롯 안디바에게 한번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두 번, 심문받으시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동



대제사장 앞에 선 그리스도(Gerard van Honthorst, 1617년)

요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지키시며 심문자들이 오히려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게 하셨다. 반면에 베드로는 대제사장들의 하속들로부터 세 번 심문을 받고 세 번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것은 줄음에 빠져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다섯 차례의 심문은 베드로보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기회가 더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은 삶의 미련들을 모두 극복하신 반면, 베드로는 세 번 모두 굴복하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공적생애출범을 앞두고 금식기도 후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심문)을 받으신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기도하신 후 심문받으신 것, 베드로가 세 번 심문받고 세 번 다 배신한 것에는 당대의 삼심제도(三審制度)라는 관행이 숨어있다. 베드로가 세 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박해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비두니아(Bithynia)에 111년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플리니(Pliny the Younger)는 체포된 기독교인들에게 세 차례 배교할 기회를 준 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신앙을 고집하면 처형토록 하였다.

초기 기독교시대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침례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세 번의 신앙고백과 세 번의 침례를 주었다. 이 당시 침례는 물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졌고 박해시대여서 위험한 일이었다. 믿음이야 발설치 않으면 남이 알 수 없지만, 침례는 그 믿음을 공개하는 것이므로 목숨을 걸어야하는 일이었다. 침례를 받는 자들은 먼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고 고백한 후에 첫 번째 침수를,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고백한 후에 두 번째 침수를,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고 고백한 후에 세 번째 침수를 받았다. 이 세 차례의 신앙선언과 침수세례는 박해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자주 직면했던 세 차례의 배교선언과 무관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배신

한 밤중이 되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안마당이 내려다보이는 2층 주랑사이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때에 안마당에서 걸걸을 잡고 있었다. 나타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체포했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대제사장의 집 뒤편에는 그날 밤의 거사를 도모하느라 이미 모닥불이 피어있었고, 쌀쌀한 밤 기온 탓인지 사람들은 일이 어찌 되어 가는지를 보려고 모닥불 곁에 모여들었다. 그들 사이에 베드로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초라한 행색의 그가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내 알아보았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속들로부터 세 번이나 심문을 받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때마다 강하게,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면서”(71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닭이 운 것은 베드로가 첫 번째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울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의하면, 닭이 두 번째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 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72절).

로마제국 당시 고관대작의 집들은 대개가 이층집이고, 집 가

운데에 뜬이 있었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은 이층에서 심문을 받고 있었고,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었다”(66절).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래 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지켜볼 수 있도록 이층 난간 쪽에 세워놓고 심문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제사장들의 다그침에 담대하게 답변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교행위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셨고, 닭이 두 번째 울자, 몸을 돌려 아래 뜰에 있는 베드로를 연민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셨다. 그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문을 받으신지 벌써 네다섯 시간이나 되었고, 먼동이 트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신상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제사장들은 공회원들을 소집하여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웠고, 총독관저로 데려가 빌라도의 심문을 받게 하였다.

닭이 울다



1630년대 말 말 막부 도쿠가와 이에미쓰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위의 성화판을 받고 지나가게 하였다. 색출된 기독교인들은 '구명대탈기'라는 고문을 통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다(참고: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

서울대미대 김병중 교수는 자신이 그린 <닭이 울다>(1988)란 그림에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였다. “닭이 우는 시간은 통회와 고통 그리고 환희의 시간이다.” 배교, 수탉의 울음, 여명 등을 생각나게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일본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 그것이다. 이 소설에 “멀리서 닭이 울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유물전시관에 다 닳은 성모상이 새겨진 작은 성화판이 전시되어있다고 한다. 1637년 일본 큐슈우 시마바라(島原)에서 농민들이 과중한 세금과 기독교금지에 반항하여, 16세의 소년 아마쿠사 시로오(天草四郎)를 대장으로 삼아 난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이때는 3대 막부인 도쿠가와 이에미쓰 시대였는데, 시마바라 난을 진압한 후,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성화판을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색출된 기독교인들을 ‘구멍 매달기’란 방법의 고문을 통해서 신앙을 포기토록 유도하였다.

<침묵>에 로드리고란 이름의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담당 형사는 지독하게 믿음이 강한 이 신부를 배교시키려고 이미 몇 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성화를 밟고 배교한 농민들을 놓아주지 않고 그들을 거적에 말고, 양쪽 귓바퀴에 구멍을 뚫어 한 방울씩 피가 흐르게 한 뒤 좁은 구멍에 거꾸로 매달아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어가게 한다. 결국 신부는 자기로 인해서 농민신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의 고통을 면해주기 위해서 배교의 길을 택한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새긴 동판을 발로 밟고 지나간다. 엔도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것을 밟는 것이었다. 이 발의 아픔. 그 때, 밟아도 좋다고, 동판에 새겨진 그분은 신부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48.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7)(막 15:1-32)

대제사장들과 공회(산헤드린)의 심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인 가야바와 안나스로부터 새벽까지 심문을 받으셨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본래 세습되는 종신직이었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는 임명직으로 바꿨다. 안나스는 주후 6년경에 시리아총독으로부터 대제사장직에 임명되었으나 15년에 면직되었다. 그 후 3년간 안나스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갔고, 18년에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에 올라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가야바는 명예 대제사장이자 장인인 안나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런 정황 때문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대제사장들”이란 복수 명사가 사용되었다.

새벽에 가야바와 안나스는 공회(산헤드린)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공회원들 앞에 세웠다. 몇몇 공회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대제사장들과 한 통속이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날이 밝자 예수님을 결박하여 로마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로마의 속주(식민)인 예루살렘공회에 사형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월절은 유대민족의 해방절이기 때문에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로서는 이 시기에 왠지 모를 흥분과 기대에 휩싸이곤 하였다. 이 시기에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마치 한껏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건들기만 해도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8일간 지속되는 유월절 명절은 민중봉기의 가능성이 연중 가장 높은 시기였고, 로마총독과 대제사장들 및 헤롯 왕가의 권력자들에게는 결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숨 가쁜 한 주간이었다. 이런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 때문에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집결해 있었다. 빌라도는 유대총독부가 주재한 가이사랴에서 혹 있을지도 모른 소동에 대비하여 추가 병력을 이끌고 왔고, 헤롯 안디바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의 수도 디베라에서 왔다.

로마총독 빌라도의 심문

폭동이나 반란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유월절에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모의하여 고소한 예수사건은 빌라도 총독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으므로 총독 빌라도로서는, 비록 이른 아침에 갑자기 밀어닥친 사건일지라도, 선불리 다룰 수 없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은 공회가 제출한 공소장을 읽고 한 심문이었다. 공소장에는 이밖에도 민중선동, 로마에 바치는 조세(租稅)거부, 자칭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던 빌라도의 법정

그리스도, 성전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성참칭(僭稱)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로마병영내의 총독 빌라도 관저(Praetorium)에는 고소인들인 대제사

장들과 공회원들이 참석하였고, 그들이 동원한 증인들과 방청객들로 북적이었으나 예수님을 변호해줄 변호인이나 증인들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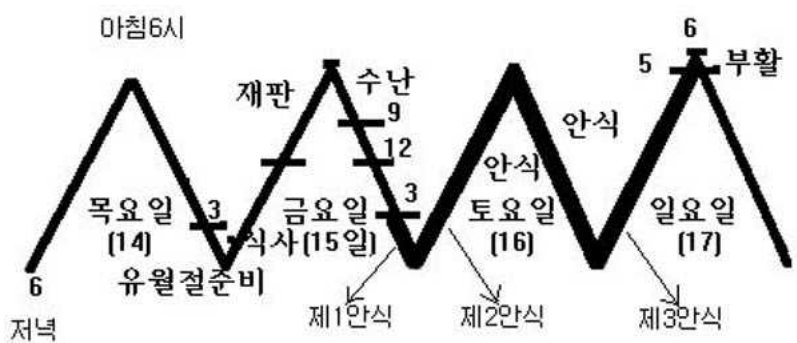
공소장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10절)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었다. 빌라도 총독은 고민에 빠졌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입증할 직접증거나 정황증거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한 가지 방안으로 유월절 명절에 백성이 요구하는 죄수를 사면하는 전례를 이용해 볼 생각이었다. 마침 무리가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구하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놓아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된 무리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청하였다. 바라바는 민란을 꾸미고 그 민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였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무리가 격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13-14절). 이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정식재판을 받게 하거나 혹은 속주민에 관한 사건이어서 즉결심판이 가능한 재판이었을지라

도 법과 양심이 요구하는 정의로운 판결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택하였다.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15절).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법원에 “유대민족이 그동안 주권적인 사법기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따져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잘못된 재판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스라엘 대법원은 “소송기록이 없고 신약에 단편적인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1967년에 이 청구를 각하한 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권력욕에 찬 기득권층과 우매한 민중에 휘둘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류의 오랜 희망인 구원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유월절 속죄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군인들은 예수님을 군영으로 데려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희롱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갔다(16-20절).



주후 30년 4월 7일 유월절(보름) 날에 예수님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체포되신 바로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동굴 무덤에서 날짜 수로는 3일간 40여 시간을 안식하셨으며, 일요일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유대인의 새 날은 해가 지는 6시경에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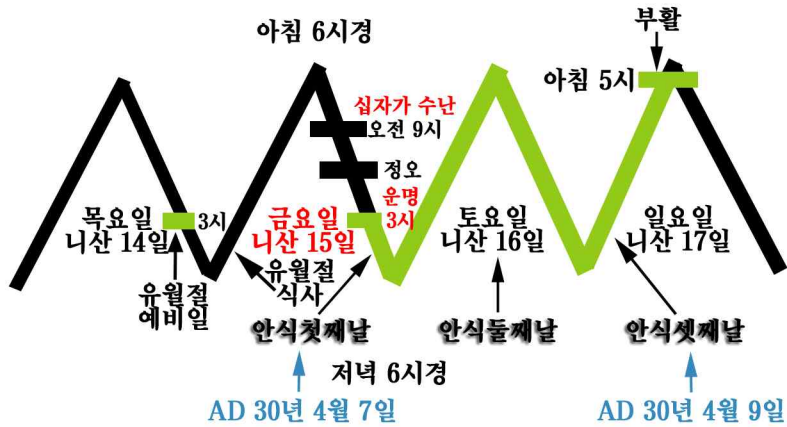
훗날 기독교에 개종한 알렉산더와 루포의 부친시몬이 그 무렵 구레네에서 와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군인들에게 붙들려 탈진해 버린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해골의 곳)까지 가게 되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는 8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한다.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교포였다. 훗날 시몬의 가족은 기독교에 개종하여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롬 16:13).

복음서에 두 명의 시몬,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과 매사에 용맹했던 시몬 베드로가 비겁하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배신한 일화가 뿔뿔히 실린 것은 예수님이 묵묵히 고난을 감내하시고 끝내 승리하셨던 수난이야기와 함께 박해시대를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위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려고 쓴 복음서의 기록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은 네로의 박해시대에 로마에서 기록되었다. 이 무렵 마가는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수고하였다. 마가는 견디기 어려운 박해 때문에 제2의 가롯 유다, 제2의 시몬 베드로가 속출하는 정황 속에서 생존이 위태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처럼 묵묵히 고난을 감내할 것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교회의 십자가를 짊어질 것과 베드로처럼 배교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권면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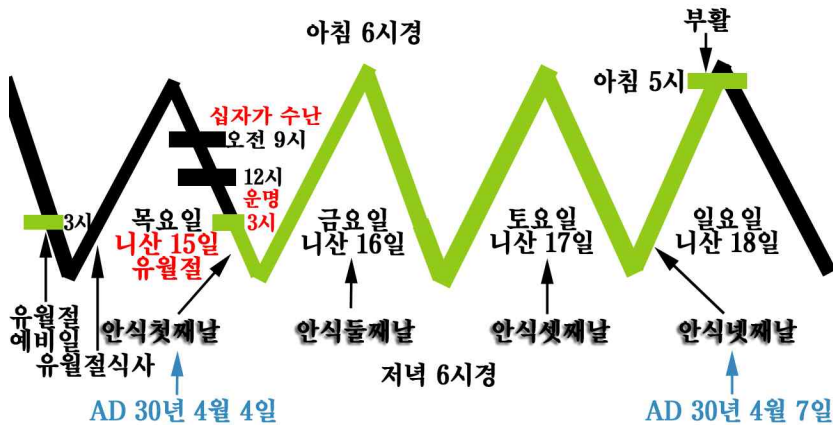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개입된 모든 이들,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대제사장들, 거짓 증인들과 방청객들, 빌라도와 군인들, 심지어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도구들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을 예정하고 택하셨거나 강제하셨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허황된 욕망에 치우쳐서 혹은 선한 양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님이시고, 그분을 인류의 오랜 희망을 성취할

속죄양으로, 또 주후 30년 유월절을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의 때로 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예수님의 수난과 무덤에 계신 시간 - 기존의 주장(38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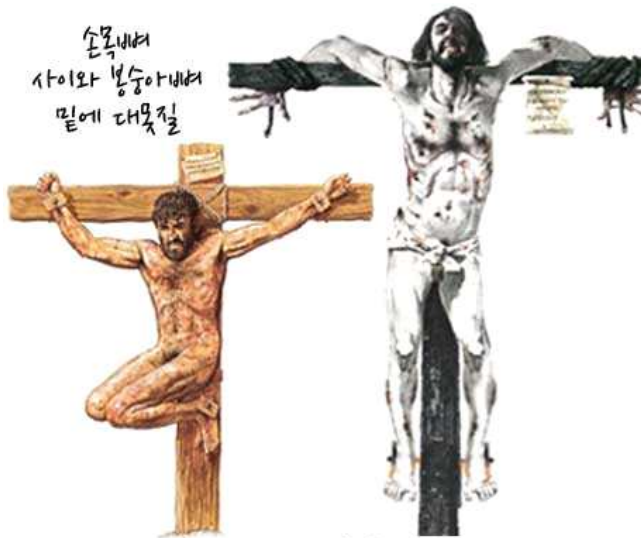


예수님의 수난과 무덤에 계신 시간 - 새로운 주장(62시간)



49.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8)(막 15:33-41)

예수 그리스도님의 수난의 목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죄악을 온전히 덮는 제사
십자가의 도(복음)=죄악을 치유하는 지식=햇빛(금) 계시
예수님시대의 성전봉사자 예로하난의 죽음을 재구성한 그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나 큰 능력과 놀람과 표적들을 행하신 것들은 긴 서론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 당하신 수난사건이 오히려 본론에 해당된

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수난에는 그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님의 수난의 목적은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 공동체를 폐하시고 새 언약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율법) 공동체를 폐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열방의 백성들을 이방인과 죄인 취급하면서 열방의 백성들과 그들이 먹고 쓰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여겨 그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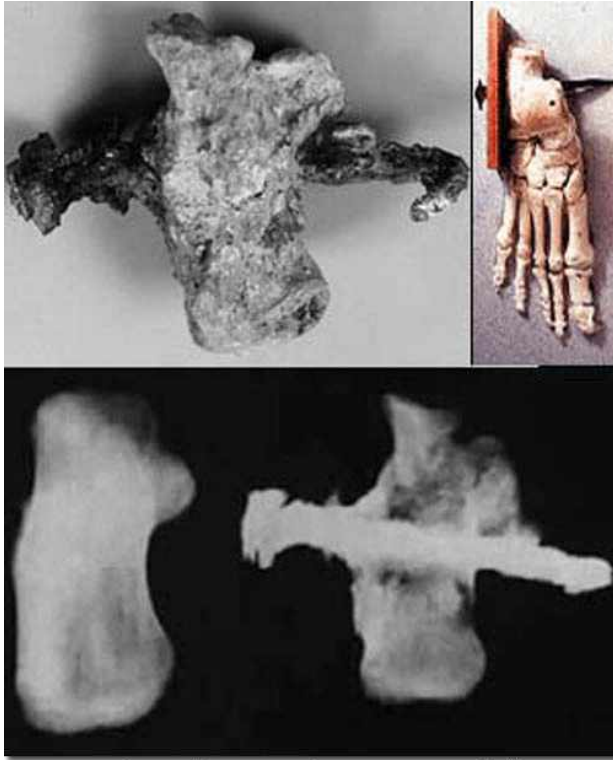
의 교제를 차단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선민의식과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또 본질과 기본에 충실하기보다는 율법과 겉껍데기 율타리 법들의 문자적인 준수에 매달렸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님의 수난의 목적은 새 언약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 받는 모든 자들에게 죄 사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여 그리스도인을 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일군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결과론적인 것으로써 구원받은 큰 무리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군들에게 해당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님의 수난의 목적은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바와 같이 지상에 문자적인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땅에 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지고 낡아지며 무너질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나라이다. 그 같은 점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곧 오실 자 그리스도이시였다. 그러나 거기가 끝은 아니다. 주의 재림 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 난 벤하쿨’ 유골의 증언

예수님은 유월절 날 아침 8시경에 살점을 도려내는 채찍을 맨 살에 맞으셨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형틀에 쓰일 가로대를 짊어지셨으며, 기도시간인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 요한난 벤 하콜의
발뒤꿈치 뼈에 박힌 쇠못(주후 7-70년)

기도시간인 낮 12시경부터 저녁희생을 드리는 오후 3시경까지, 하루 중 태양이 가장 강렬해야 할 바로 그 시점에 칠혹 같은 어둠이 지속되었으며, 예수님은 저녁희생제물이 드려지는 바로 그 시각에 운명하심으로써 인류의 화목제물로써 하나님께 바쳐졌다.

1968년 예루살렘의 기밧트

하미브타르 발굴에서 1세기경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 무덤의 유골함 속에는 요한난 벤하콜이라는 20대 남자의 유골이 담겨 있었다. 이 유골 중에는 18cm 길이의 굽은 쇠못이 박혀있는 발뒤꿈치 뼈가 있었다. 쇠못은 나무에 박힌 후 빠지지 않게 뒤끝이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었고, 십자가는 올리브나무였다. 그리고 쇠못은 죄수의 발등이 아니라, 발뒤꿈치 옆 복사뼈 밑에 박혀 있었으며, 아카시아 나뭇조각이 죄수의 발을 받치고 있었다. 유골함 속에는 큰 나무망치에 맞아서 부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강이뼈도 있었다. 발견된 손과 손목뼈에서는 손바닥이 아닌 손목 위 두 개의 팔뼈 사이에 큰못을 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2천 년 전에 시행된 십자가 처형식이 어떠했는가를 재구

성해볼 수 있게 되었다.

죄수가 십자가형을 받으면, 상의를 벗긴 채 나무기둥의 허리 부분에 양손이 묶인다. 그러면 죄수의 벌거숭이 등이 하늘을 향하게 된다. 죄수의 등에다 동물의 뼈나 철 조각이 매달린 채찍으로 내려치면 피가 튀기고 살점이 도려내진다. 체벌이 끝나면 죄수는 십자가의 가름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형장을 향해 걷는다. 도착하면 짊어지고 온 가름대를 기둥에 맞춘다. 그리고 땅에 눕혀진 십자가나무 위에 죄수의 옆구리가 나무 바닥에 닿게 눕힌다. 그리고 죄수의 두 발이 세로 기둥에 나란히 모아진 상태에서 복사뼈 바로 밑에다 쇠못을 박는다. 굵고 울퉁불퉁한 쇠못은 두 발의 복사뼈를 관통한 다음 나무에 깊이 박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죄수의 상체를 90도 비틀고 무릎을 꿇려서 바로 눕힌다.

인간의 장벽들을 허물어버린 절규

다음에는 끈으로 양쪽 팔목을 가름대에 묶고 양손의 손목뼈 사이에 못을 박는다. 이렇게 한 다음 십자가를 세워 고정시킨다. 상체가 뒤틀린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산소부족과 호흡곤란으로 큰 통증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쉽게 죽지는 않는다. 낮에는 뜨거운 땀별과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때로는 날짐승의 공격을 받으며, 고통 중에서 서서히 죽게 내버려둔다. 그러나 죄수를 급히 죽여야 할 경우에는 큰 나무망치로 정강이뼈를 쳐서 부러뜨린다. 상체가 아래로 처지면 횡격막이 숨통을 조이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은 못 박히신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정도 지난 오후 3시경에 캄캄한 하늘을 향해서 절규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절규 직후에 운명하셨다. 그리고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님을 향해 서있던 백부장은 그분에게서 신으로부터만 느낄법한 엄청난 존엄과 전율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말았다(37-39절). 그도 훗날 기독교에 개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보건데 예수님의 절규는 단순히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내지른 비명이 아니라 인간한테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위엄과 성취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성소회장이 갈라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절규는 생명을 살리고 해산하기 위한 안간힘이자, 사탄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면서 지른 기합이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대민족의 하나님으로 제한해 버렸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지은 성전에 가둬두고 독점하였다.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을 예루살렘 성전 한곳에 제한시킨 것은 일종의 통치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성소를 담과 뜰로 막아놓고 민족과 성별과 계급에 따라 접근을 제한시킨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보좌(법궤)가 놓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의 영역이었고, 성소는 당번 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었으며, 성소를 둘러싼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또 그 바깥 이스라엘의 뜰에는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뜰로 통하는 여성의 뜰에는 남녀노소불문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여성의 뜰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 한곳에만 출입이 가능하였다. 신성하게 여겨지는 성전의 뜰에, 설사 그곳이 여성의 뜰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은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목숨을 내놓아야했다. 이런 점에서 성전의 뜰들을 구별하는 담들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종의 차단막, 곧 휘장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주를 상징한 성전의 모든 담과 문들, 곧 민족의 담(미문), 성별의 담(니카노르 문), 신분의 담(성소 문), 계급의 담(지성소 휘장)을 허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50.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9)(막 15:42-47)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주후 30년 4월 7일 유월절 날이자 안식일 하루전 날인 금요일이었다. 이날은 유월절 첫날이면서 동시에 큰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한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런 이점을 생각한 공회원이면서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요셉은 훗날 기독교에 개종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요셉의 청원을 받고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의 생사여부를 확인한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요셉은 새로 구입한 세마포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후에 바위를 파서 만든 굴무덤에 안치하였고, 돌을 굴러 입구를 봉쇄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서 슬퍼하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곧 알패오의 아내이자, 예수님의 제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에 싸서 굴무덤에 안치하고 입구를 돌로 봉하는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이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으로서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여인이며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입었던 여인이었다(16:9). 남성들의 마음이 부와 명예와 권세욕에 차있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반면, 이들 여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이들도 이들 여인들이었다. 심지어 남성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디 믿었고, 분명한 증거를 보고서야 믿었지만, 이들 여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추종하며 헌신하였다. 남성중심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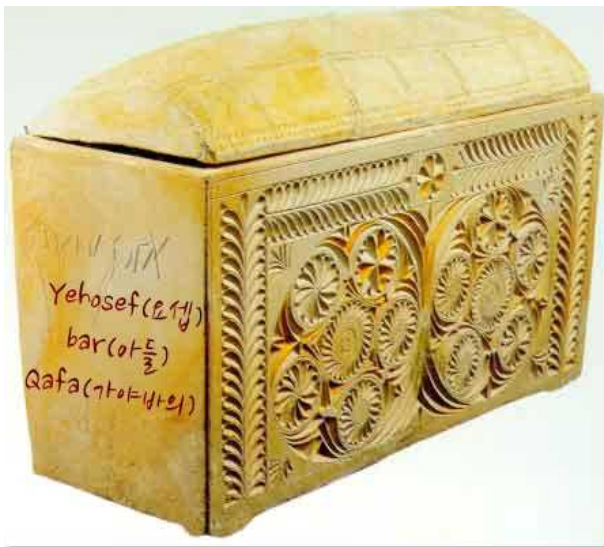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성모교회 내부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과 시신 안치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사건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 것은 그 자체가 모든 증언이 참되다는 상황증거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민족의 담, 성별의 담, 신분의 담, 계급의 담이 허물어졌으며, 민족성별 빈부귀천의 차별없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교회시대가 열렸다는 증거이다.

예수님시대의 장례법

예수님의 출생을 전후해서 각각 1세기씩 약 200년 동안에 유행한 유대인의 장례법은 먼저 시신을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일 년 정도 안치해 두었다가 살이 부패한 뒤에 유골을 수습하여 유골함에 보관하는 방식이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유골함이 발견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장례법은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이 장례법이 아니었다면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할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고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섭리는 팔레스타인의 기후조건이다. 이 지역의 기후는 건조한 열대성사



막기후이기 때문에 비에 노출되지 않는 한 썩지 않고 오래도록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유골함이 오늘날에 발굴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대제사장 가야바의 가족 묘실이 1990년 11월에 우연히 발견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킨바가 있다. 이 묘실은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남쪽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공원과 도로 근교에 묻혀있었던 것으로써 12개의 유골함이 들어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에 "가야바의 아들 요셉"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로써 이 무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처형토록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가족무덤이라는 것과 발견된 나머지 유골함들 가운데 하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것으로 믿어지게 되었다. 또 기드론 골짜기에서는 헬라어로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알렉산더'라고 쓰고, 그 밑에 아람어로 '구레네의 알렉산더'라고 쓴 유골함이 발굴되었다. 구레네의 알렉산더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다.

발굴된 예수님시대의 유골함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2002년 10월 21일 주후 10-70년 경에 사용되던 고대 아람어 서체로 '야고보, 요셉의 아들, 예수의 형제'(Ya'akov bar Yosef akhui Yeshua: 야아코브 바르 요세프 아큐이 예슈아)라는 글을 새겨 넣은 길이 약

50cm 크기의 유골함이 예루살렘의 한 동굴에서 도굴된 후 이스라엘의 한 개인 소장자에 의해서 비밀리에 보관되어 왔음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유골함에 새겨진 글의 진위 여부를 분석한 프랑스 소르본대학의 앙드레 르메르(Andre Lemaire) 교수는 “... 이 석회석 유골함이 BC 1세기와 AD 1세기경에 유대인들이 매장에 사용하던 것과 아주 유사한데다가 글의 형태와 서체로 봐서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성이 파괴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야고보가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주후 63년경에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968년 6월에는 예루살렘에서 15개의 석회암 유골함들이 발굴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 요한난 벤 하콜(7-70년)이라 불리는 무릎을 구부린 채 십자가에 처형된 젊은이의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유골함에서는 약 18센티미터 크기의 십자가의 못이 박힌 발뒤꿈치 뼈도 발견되었다. 이 쇠못은 현존하는 유일한 십자가의 못이다. 그의 유골들과 쇠못이 박힌 뼈를 해부학적으로 검토한 학자들은 이 젊은 죄수가 상체를 90도 비틀린 상태에서, 두 무릎이 굽힌 채로, 가지런히 모은 두 발의 복숭아 뼈 바로 아래에 쇠못이 박혔고, 팔목에도 쇠못이 박혀서 처형되었다고 밝혔다. 이 상태에서 몸이 팔에 매달려 있게 되면, 가슴근육이 마비되고, 늑간근육이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공기가 폐로 유입은 되지만, 밖으로 내뿜어내질 수 없게 되어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류에 쌓이게 된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어 상체를 세우려 할 것이다. 그런데 사형수의 무릎 뼈를 나무망치로 타격하여 부러뜨린다면, 무릎 뼈가 부러진 죄수는 몸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없게 되면서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곧 죽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은 골고다로 지고 가야할 십자가형틀의 가로대(patibulum)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리에 힘을

주어 상체를 밀어 올릴 힘이 고갈된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희생 제사를 바치는 저녁기도시간에 운명하심으로써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유월절 속죄양이 되셨던 것이다.

51. 희망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10)(막 16:1-20)

제자들의 개안(開眼)단계



마가복음의 큰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제자들의 무지에 있다. 그들이 실제로 무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로서 단번에 눈이 열리거나 귀가 열리거나 혀가 풀리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혀가 풀리는 단계를 밟아가는 자들이었다. 플라톤이 <향연>(Symposion)에 소개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빌리

자면, 마가복음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의 광기를 신령하고 정신적인 광기로 승화시켜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의 청지기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된 일군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벧새다와 여리고의 장님이 고침을 받고,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자로 예언된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도달해야 할 마지막 개안(開眼)

단계는 아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다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과 매장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것, 구입한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한 것,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배신했거나 겁을 먹고 줄행랑쳤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반면, 제자들은 부와 명예와 권세욕에 사로잡혀 자리다툼을 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못 자국을 보거나 만져보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몇 차례나 전해 듣고서도 믿지 못하였다(12-13 절). 오히려 그들은 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충격과 실의에 빠져 있었다. 진실로 그들은 여전히 “눈이 가리어져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고” 있었다(눅 24:16, 25).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열은 믿음의 눈과 의심의 귀를 활짝 열어줄 마지막 개안(開眼)의 단계로써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불러 모아 사도직에 위임하시고 희망찬 새아침을 열어주시려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씀을 유월절 식사 때(14:28) 하셨고, 부활하신 직후(16:7)에도 하셨다.

제자들에게 열린 새로운 세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이 갈 곳이 어디였겠는가? 충격과 실의에 빠져 예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규합시킬 수 있는 곳은 역시 처음 그들을 불러 제자로 삼았던 갈릴리가 제격이었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손 한번 쓰지 못하고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걸린 시간은



십자가(김훈숙, 1986년)



십자가(김훈숙, 2002년)

예수님의 고난의 상흔들을 강조하면서도 손과 발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오르는 새의 이미지로 자유와 기원을, 머리의 가시면류관은 생명이 싹트고 피어나는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부활의 승리와 위로 및 생명과 평화와 희망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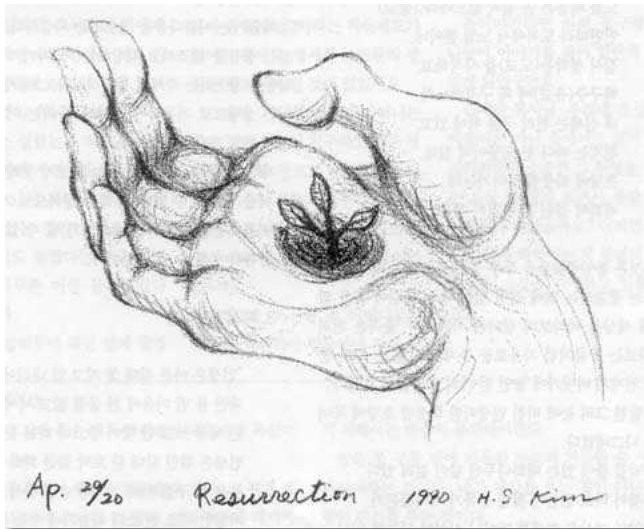
락을 맞은 것과 같아서 제자들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맞은 환희에 찬 새아침,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새 출발, 떠오르는 동녘의 햇살 같은 또 다른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야곱이 브니엘에서 맞이한 아침처럼 제자들에게 열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험이었을 것이다.

자신만의 삶과 성공을 위해서 모질게 살았던 야곱은 자신에게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강탈당한 에서와의 피할 수 없는 만남을 앞두고 압복 강가에서 매우 침통하고 침울한 철후 같은 밤을 맞았다. 에서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창 32장). 야곱은 그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생사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야곱은 모든 가족과 가족들을 강을 건너게 하여 떠나보낸 후 자신은 강가에 혼자 남아 밤이 맞도록 기도으로써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어찌나 힘을 쓰고 땀을 흘렸던지 환도 뼈의 힘줄이 끊어졌다. 동틀 무렵에 하나님은 그에게 속임수와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살아온 지난날의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혹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뜻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다. 통회와 고통으로 밤을 지새운 대가로 야곱은 서광이 비치듯 환희의 아침을 맞았다. 그

불과 15시간 남짓에 불과하였다. 예수님의 수난사건은, 수차례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마른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아서 제자들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맞은 환희에 찬 새아침,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새 출발, 떠오르는 동녘의 햇살 같은 또 다른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야곱이 브니엘에서 맞이한 아침처럼 제자들에게 열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험이었을 것이다.

래서 그는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다'는 뜻으로 '브니엘'이라 지었다. 비록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기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충격과 실의의 터널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고, 수십일 후에는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모습의 참 제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제자들에게는 물론이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되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



부활(김호숙, 1990년 석판화)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새싹이 움터나옴을 표현하였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은 새 언약공동체의 출범과 인류의 희망 성취사역의 종말론적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예시한 것이 변화산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등장

하는 모세는 많은 고난 후에 첫 유월절 날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홍해를 건너게 한 후 시내광야에서 첫 번 오순절 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의 내용으로 율법을 받아 구약교회인 문자적 이스라엘을 출범시킨 인물이다. 또 다른 등장인물인 엘리야는 많은 고난 후에 구약교회인 문자적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시킨 인물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

님의 그림자와 모형이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 수난 당하심을 통해서 율법시대와 구약교회를 폐하시고 복음에 의한 새 언약 공동체로 신약교회를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에 출범시키셨다.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죽어서 승천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산채로 승천한 것도 아닌,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은 인류의 희망성취, 곧 어둠이 빛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며, 죽음이 생명이 되는 구원의 성취와 종말론적인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또 고난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신 것은(19절) 하늘 가나안땅,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 신약(복음)교회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며 선택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반석의 물과 만나를 먹고 마신 것처럼, 믿고, 회개하고, 침례(홍해도하)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그분이 세우실 영적 이스라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9장 1절에서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충격과 실의에 빠져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또 다시 불러 모으시고 사도의 직분을 위임하셨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15-18절).